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Perception on
Disabilities in Goyang City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연구

문정화
유선치
조수민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Perception on Disabilities in Goyang City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선치(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조수민(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발 행 일 2019년 10월 31일

저 자 문정화, 유선치, 조수민

발 행 인 이재은

발 행 처 고양시정연구원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 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24-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장애 인식 개선 정책 방향 및 연구 동향	9
제1절 정부의 장애 인식 개선 정책 방향	11
제2절 장애 인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19
제3장 고양시 장애 인구 및 정책 현황	23
제1절 고양시 장애인구 현황	25
제2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정책 현황	36
제4장 국내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45
제1절 국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47
제2절 국내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66
제3절 국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례	76
제5장 고양시 성인 및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실태	89
제1절 고양시 성인의 장애 인식 조사 방법	91
제2절 고양시 성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분석	93

제3절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조사 방법	119
제4절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분석	121
제6장 고양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	145
제1절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 방법	147
제2절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 분석	149
제3절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 방법	155
제4절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분석	157
제7장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169
제1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개요	171
제2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결과 분석	172
제8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81
제1절 결과 요약	183
제2절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209
부록(설문조사표)	213
Abstract	235

표 목차

[표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7
[표 2-1]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주요 법률 비교	12
[표 2-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장애 인식 개선 관련 계획	14
[표 3-1]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변화(2000~2019)	26
[표 3-2]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고양시 장애인 등록 현황(2019.7.기준)	29
[표 3-3]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2016년 9월)	31
[표 3-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시 대처 행동(2016.9.)	35
[표 3-5] 고양시'취약계층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실행과제-장애 인식 개선 사업	38
[표 3-6] 고양시 장애인 지원 정책 예산(2019년)	39
[표 3-7] 2019년도 고양시 장애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 장애 인식 개선사업 현황	40
[표 3-8]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 인식 개선사업 현황	41
[표 3-9] 고양시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42
[표 3-10]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현황	43
[표 3-11]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방법 현황	43
[표 4-1] AFL(Australia Football League) Football Teams의 Action Plan 사례	50
[표 4-2] Paralympic School Day(PSD) 프로그램의 개요	65
[표 4-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중 장애 인식 개선 사업	71
[표 4-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	74
[표 4-5]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	75
[표 4-6] 국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현황	76
[표 4-7] 국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방법 현황	77
[표 4-8]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제도 비교	78
[표 4-9]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교육 사례	81
[표 5-1] 고양시 성인 - 응답자 현황	92
[표 5-2] 고양시 성인 -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93

[표 5-3]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세부 항목)	101
[표 5-4] 고양시 성인 - 선호하는 교육 방법	110
[표 5-5] 고양시 성인 - 기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	114
[표 5-6] 고양시 초중고생 - 응답자 현황	120
[표 5-7]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121
[표 5-8]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세부 항목)	129
[표 5-9]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특수학급 유무 차이)	130
[표 5-10]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봉사활동 경험 차이)	131
[표 5-11] 고양시 초중고생 - 선호하는 교육 방법	139
[표 5-12] 고양시 초중고생 - 기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	142
[표 6-1] 고양시 발달장애인 - 응답자 현황	148
[표 6-2]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응답자 현황	156

그림 목차

[그림 3-1]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 변화(2001~2017)	25
[그림 3-2] 타 지자체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2013~2019)	25
[그림 3-3]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변화(2000~2019)	26
[그림 3-4]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2019.7.기준)	28
[그림 3-5] 고양시 거주 장애인의 차별 경험(2016.9.)	30
[그림 3-6] 고양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 만족도(2016.9.)	34
[그림 5-1] 고양시 성인 - 주위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94
[그림 5-2] 고양시 성인 - 장애인 긍정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95
[그림 5-3] 고양시 성인 - 장애인 부정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96
[그림 5-4]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종합 평균)	97
[그림 5-5]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인지적 요소)	98
[그림 5-6]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정서적 요소)	99
[그림 5-7]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행동적 요소)	100
[그림 5-8] 고양시 성인 -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102
[그림 5-9] 고양시 성인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103
[그림 5-10] 고양시 성인 - 장애인의 날 인지 여부	103
[그림 5-11] 고양시 성인 -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104
[그림 5-12] 고양시 성인 -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대응 방식	105
[그림 5-13] 고양시 성인 - 장애인 복지제도가 미흡한 이유	105
[그림 5-14] 고양시 성인 - 자녀, 손자녀의 장애인 통합 교육에 대한 생각	106
[그림 5-15] 고양시 성인 -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에 대한 생각	107
[그림 5-16] 고양시 성인 -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내 거주) 의견	108
[그림 5-17] 고양시 성인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경험 및 필요성	109
[그림 5-18] 고양시 성인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중 유익한 내용	110
[그림 5-19] 고양시 성인 - 도움이 되었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111

[그림 5-20] 고양시 성인 - 고양시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112
[그림 5-21] 고양시 성인 - 고양시에서 확대해야 하는 사업	113
[그림 5-22] 고양시 초중고생 - 주위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122
[그림 5-23]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긍정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123
[그림 5-24]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부정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124
[그림 5-25]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종합 평균)	125
[그림 5-26]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인지적 요소)	126
[그림 5-27]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정서적 요소)	127
[그림 5-28]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행동적 요소)	128
[그림 5-29]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133
[그림 5-30]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133
[그림 5-31]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의 날 인지 여부	134
[그림 5-32]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134
[그림 5-33]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대응 방식	135
[그림 5-34]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복지제도가 미흡한 이유	136
[그림 5-35]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에 대한 생각	137
[그림 5-36]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생각	137
[그림 5-37]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경험 및 필요성	138
[그림 5-38]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중 유익한 내용	139
[그림 5-39] 고양시 초중고생 - 도움이 되었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140
[그림 5-40] 고양시 초중고생 - 고양시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141
[그림 5-41] 고양시 초중고생 - 고양시에서 확대해야 하는 사업	142
[그림 6-1] 고양시 발달장애인 - 타인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한 인식	149
[그림 6-2] 고양시 발달장애인 -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선호도	150
[그림 6-3] 고양시 발달장애인 - 함께 활동하고 싶은 사람(복수응답)	150
[그림 6-4]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을 주는 기관 이용 경험 유무	151

[그림 6-5]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을 주는 기관 이용 시 느낌	152
[그림 6-6] 고양시 발달장애인 - 타인 도움 필요 경험 유무	152
[그림 6-7]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 필요시 행동(복수응답)	153
[그림 6-8]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 요청 대상(복수응답)	154
[그림 6-9]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 요청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154
[그림 6-10]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이웃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157
[그림 6-11]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이웃사람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158
[그림 6-12]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이웃사람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159
[그림 6-13]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차별하는 사람	160
[그림 6-14]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시 대처 행동	160
[그림 6-15]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차별 경험 장소(1+2순위)	161
[그림 6-16]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경험	162
[그림 6-17]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내용	162
[그림 6-18]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자녀 근로 시 차별 경험(복수응답)	163
[그림 6-19]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	164
[그림 6-20]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람	164
[그림 6-21]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시설관련 종사자의 장애인 이해와 전문성	165
[그림 6-22] 고양시의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충분성	166
[그림 6-23]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고양시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166

요 약

1. 서론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직업재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주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
- 고양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지자체 등 전 고양시민이 참여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공감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양시민의 장애인식 실태와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느끼는 사회의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장애인식 개선 사례를 검토하고 고양시민의 장애인식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사회 인식 조사 등 장애 인식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장애인식개선 정책방향 및 연구동향

□ 장애인식 개선 관련 법률

-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의무 부과

-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 개정 -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선언적 규정)
-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특수법인까지 장애인식 교육 의무규정 확대 적용
- 201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해당

□ 장애인식 개선 관련 연구 동향

- 국내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한 장애인식 개선 관련 연구는 매우 적음
- 주요 사회복지정책 연구기관에서 진행된 장애인 관련 연구 중 장애 인식 개선에 관련된 연구는 없음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장애인개발원(4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0편)에서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됨
- 장애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 다루어짐
- 2000년대 초반, 학생(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학교의 통합교육,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됨
- 2010년대 이후는 학교 통합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고, 고용주의 장애 인식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함

3. 고양시 장애 인구 및 정책 현황

□ 고양시 장애인구

- 2019년 7월 현재,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고양시 전체인구 1,051,177명의 3.85%(40,286명)로 전국 5.03%, 경기도 4.21%보다 낮고 수원시 3.57%, 성남시 3.79%보다는 약간 높은 편임
- 고양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 역시 2000년 1.5%에서 2019년 7월 3.85%로 증가함
- 2019년 7월 기준 고양시 장애인 인구 중 심한 장애는 15,366명(38.1%), 심하지 않은 장애는 24,920명(61.9%)임

□ 고양시 장애 인식 관련 조례

- 고양시는 2015년 10월 8일,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
- 제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고양시 장애 인식 관련 사업(2019년)

- 고양시 장애인 권익증진 8개 공모사업 실시
- 고양시 공무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찾아가는 희망가득 공연상자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 장애 인식 개선사업 운영

□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현황

- 고양시 어린이집~대학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행률은 2016년 11.8% , 2017년 40.8%, 2018년 37.7%로 높지 않으며, 특히 유치원의 교육 이행률은 20%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집합교육 비율은 감소(92.1% → 56.2% → 39.5%)하고, 원격 교육 비율이 증가함(4.3% → 23.4% → 39.6%)

4. 국내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 국외 사례

- 국외 정책 사례는 구조적차원, 조직차원, 개인차원으로 구분하여 호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사례 검토

구조적 차원의 접근 (장애 관련 법, 정부정책 등)	법, 정책 등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지시함으로써 장기 간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침
조직 차원의 접근 (교육, 고용영역의 정책사업 등)	삶의 특정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함
개인 차원의 접근 (캠페인, 접촉프로그램 등)	개인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목표로 함

□ 국내 사례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민간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장애인재단) 통합교육(제주동광초등학교, 대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사례 검토

5. 고양시 성인 및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실태

□ 설문조사 개요

- 고양시내 초중고(총 9개) 학교 재학생 560명, 고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62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설문조사 결과

- 장애수용태도는 초중고생, 성인 모두 인지적 요소 > 행동적 요소 > 정서적 요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요소는 초중고생이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성인은 행동적 요소가 초중고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및 단체활동에 대한 생각은 성인의 긍정응답 비율이 초중고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 중 초중고, 성인의 공통 인식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용어 사용임
-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며, 장애인 복지가 미흡한 주요 이유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꼽고 있음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는 초중고생의 14.2%, 성인의 8.2%가 인지하고 있는 등 인지도가 매우 낮음
- 성인의 23.1%, 초중고생의 74.8%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경험이 있음
- 성인의 79.2%, 초중고생의 79.0%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바람직한 교육 횟수로 성인은 1년에 한 번 55.7%, 6개월에 한 번 30.9%, 초중고생은 6개월에 한 번 56.6%, 1년에 한 번 37.5%를 선호함
- 선호하는 교육 방법 : 성인은 체험식 46.6%, 참여식 23.3%, 강의식 19.3%, 온라인

10%, 초중고생은 체험식 60.4%, 강의식 18.5%, 참여식 11.2%, 온라인 10%로 나타남

- 학교 내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와 학급 내 장애친구가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초중고생, 성인 모두 장애인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장애수용태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성인은 장애 인식 개선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장애수용태도(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초중고생의 경우 장애 인식 개선교육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가 차이 나지 않음. ‘장애수용태도’ 역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

6. 고양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

□ 발달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

- 고양시내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설문응답 가능자) 232명 대상으로 면접 조사 실시 후 분석
-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타인의 행동태도에 있어 전체의 26.1%가 부정적인 경험을 함(인상 쓰며 저리가라고 소리를 지름, 장애인을 보면 피함)
- 다른 사람과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78.8%가 좋아하며 6.5%는 싫어함
-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60.4%, 도움 필요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12.7%, 도움 필요시 가족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경우 60.5%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가족 설문조사

- 고양 시내 발달장애인 가족 231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실시 후 분석
- 이웃사람의 장애인의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8.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6.3%로 매우 높음
-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사회에서 받는 차별 정도에 있어 ‘약간~항상 경험한다’가 57.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50%, 사회적 편견이 27.6%로 나타남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으로 일반시민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공무원 17.4%, 가족 16.7%도 상당히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시설관련 종사자의 장애인 이해와 전문성에 대해서는 47.9%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1%는 부족하다고 인식함
- 차별 하는 사람은 일반시민이 71.7%, 이웃동료 11.1%, 공무원 7.9%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시 66.7%는 참고 무시한다라고 응답함
-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 43.2%, 지하철 11.9%, 택시 10.8% 순으로 차별을 경험함
- 고양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은 충분하다가 18.5%, 부족하다가 44.5%로 부정적 인식이 큼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화가 45.3%, 기업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17.6%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7. 고양시 장애인식 개선 관련 실무 전문가 F.G.I 결과

□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의견

-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든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 통합교육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필요
-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 인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교육 안에 장애 인식 개선교육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당사자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 초등학교 때 장애관련 기관 봉사활동 경험은 장애 인식 증진에 효과적이므로 저연령일 때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접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지역사회 내 일반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자주 접할수록 인식이 개선되므로 지역 내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 개선 사례 홍보 활성화
- ‘장애인 꿈의 버스’ 등 타지자체에 없는 선도적 사업의 지속 확대 유지와 발달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등 선도사업 확대 필요

□ 기타

- 장애 인식 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장애 인식 개선 센터 필요
- 기업을 장애시설에 사회공헌을 할 경우 장애 인식 개선교육과 프로그램

을 제공하게 되어 후원과 인식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8.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 중점과제1.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과제2. 장애 인식 관련 조례 개정
- 과제3. 장애 인식 정보 온라인시스템(홈페이지) 마련
- 과제4. 장애인 후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장애 인식 개선 센터(컨트롤 타워) 설치

- 중점과제 1. 장애 인식 개선교육 실적 관리(학교, 기관, 기업 등)
- 과제 2.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식개선교육 통합·연계
- 과제 3. 지역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네트워크 강화
- 과제 4. 장애 인식 관련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 장애인 당사자 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 내실화

- 중점과제 1. 강의안 등 다양한 공모전 실시
- 중점과제 2. 장애인 당사자 강사 활동 강화
- 과제 3. 생애주기, 역할을 고려한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발
- 과제 4. 장애 인식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성과지표 개발

□ 촘촘한 대상별 교육 강화

- 중점과제 1. 장애 인식 교육 사각지대 해소(비경제활동인구, 노인 등)
- 중점과제 2. 장애 관련 기관 직원 및 공무원 교육 강화
- 과제 3. 유아대상 장애 인식 교육 강화
- 과제 4.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교육 강화
- 과제 5. 버스,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 교육 강화

□ 사회적 확산

- 중점과제 1.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및 캠페인
- 중점과제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과제 3.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검토
- 과제 4. 장애인 홍보대사(성공스토리 당사자) 위촉 및 활동
- 과제 5. 공공기관 광고 및 홍보물에 장애인 이미지 삽입

□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특화·선도사업 추진

- 중점과제 1.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 지정
- 중점과제 2. 특수학급 학교 장애 인식 교육 및 지원 강화
- 과제 3. 장애인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시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음.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직업재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장애인 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률이 34.0%로 높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도 79.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 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도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를 규정함
- 2016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었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규정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구체화하는 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2019.1)에 따르면 2018년 국가기관 및 어린이집, 각급학교, 공공기관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행률은 42.1%~49.9%로 2016년에 비해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 장애 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교육(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2개 교육은 교육내용이 유사하지만 교육기관, 강사자격, 미 이행시 제재규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고양시는 2015년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 인식 권익증진 공모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사업, 찾아가는 희망가득 공연상자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실시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에 따르면 고양시 거주 장애인은 생존권 및 소비자권, 이동권, 노동권 등에서 차별 경험률이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도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주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장애인개발원, 2011)
- 이러한 장애 인식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 다루어져 왔음.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 관련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 두 기관을 제외한 국내 주요 정책연구기관과 지자체에서 수행한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연구는 거의 없음
- 고양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지자체 등 전 고양시민이 참여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공감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양시민의 장애 인식 실태와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느끼는 사회의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장애 인식 개선 사례를 검토하고 고양시민의 장애 인식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사회 인식 조사 등 장애 인식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애 인식 개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되며 1장 서론과 8장 요약 및 정책제언을 제외한 6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 2장 : 「장애 인식 개선 정책 방향 및 연구동향」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관련 법률, 정부의 장애 인식 개선 계획,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장애 인식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검토함
- － 3장 : 「고양시 장애 인구 및 정책 현황」에서는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결과 리뷰, 고양시 장애 인식 관련 조례, 정책, 예산, 사업,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교육 실시현황을 검토함
- － 4장 : 「국내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에서는 국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를 구조적 차원, 조직 차원,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호주, 영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례, 민간기관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장애 인식 개선 사례를 분석함
- － 5장 : 「고양시 성인 및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실태」에서는 고양시 관내 9개 초·중·고 학생 560명과 고양시 거주 성인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 인식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비교함
- － 6장 : 「고양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에서는 설문응답이 가능한 경증 발달장애인 232명, 발달장애인 가족 231명을 대상으로 사회인식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함
- － 7장 :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에서는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 내용을 분석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

- 장애 인식 개선 관련 법률, 계획, 정책방향 분석을 위하여 각종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 선행연구를 검토함

○ 통계자료 및 기존자료 재분석

- 고양시 장애 인구 현황, 장애 인식 관련 예산, 사업 진행 실적, 교육 실적 등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결과 등 기존자료를 재 분석함

○ 사례 분석

- 고양시 정책방안 시사점을 얻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모범사례를 분석함

○ 설문조사

- 고양시 9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고양시 거주 성인 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설문응답이 가능한 경증 발달장애인 232명 대상, 발달장애인 가족 231명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함

○ 장애 인식 실무전문가 인터뷰 및 FGI 분석

- 장애복지 현장에서 장애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 인터뷰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분석함

[표 1-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인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장애 인식 개선 정책 방향 	- 문헌 및 장애인 정책 연구기관 홈페이지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현황 고양시 장애인 인식 개선 정책 현황 	- 관련 통계자료 및 기존자료 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분석 	-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성인 및 초중고생 장애 인식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성인 620명 고양시 초중고생 560명 (각 구별 초중고 1개교씩 총 9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통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비교 분석 특수학급 여부, 학급 내 장애인 친구여부에 따른 인식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사회인식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발달장애인 232명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2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통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관련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 FGI 분석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정책방안 도출

제 2 장

장애 인식 개선 정책방향 및 연구동향

제1절 정부의 장애 인식 개선 정책 방향

제2절 장애 인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제절 정부의 장애 인식 개선 정책 방향

1. 장애 인식 개선 관련 법률

- 1997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주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함
-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동 및 교통수단, 모·부성권, 성, 괴롭힘, 장애여성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등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책이나 의무 교육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및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지정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 2007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 개정
 - 장애인고용법의 경우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2007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 교육에 대한 이념 실행 노력에 대한 권고를 명시함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일반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함
- － 두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통적인 정책은 인식 개선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임

[표 2-1]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주요 법률 비교

구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조항	제 25조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제 5조의 2에 의거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화 규정 •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까지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도록 함(선언적 규정) • 2017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해당)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명칭	장애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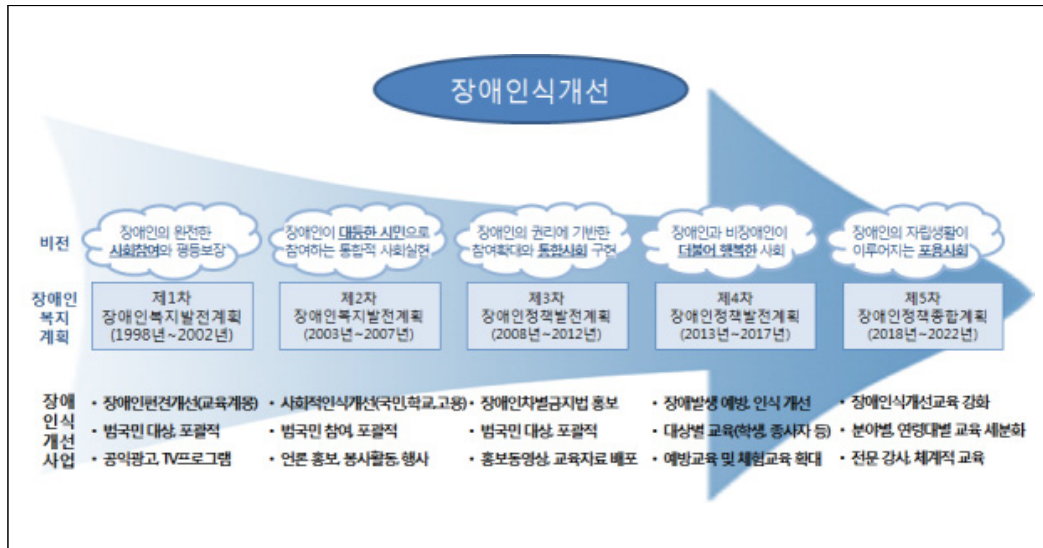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일 2019.9.11. 외

2. 정부의 장애 인식 개선 관련 계획

- 보건복지부(관계부처 합동)에서 5년 단위로 세우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계획' 등에 장애 인식 개선 계획이 일부 포함됨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1998~2002)'의 세부 추진계획 중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국민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실시가 포함됨

- 제1차 계획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실시로 국민의 편견 의식이 줄어드는 등 인식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함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03~2007)’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별도의 추진 과제로 나오면서 일반국민, 학교, 고용현장,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계획이 구체화됨
- 제2차 계획의 주요 성과는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한 것임(‘장애인복지법’ 2007.4. 전부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7.4. 제정, 2008.4. 시행 등)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계획(2008~2012)’은 통합적 접근(보편적 인권 존중)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 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이 포함됨
- 제3차 계획은 고용, 교육,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정보 접근, 문화·예술·체육 등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교통, 대중시설,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이 미흡함
-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계획(2013~2017)’에는 부모 및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되고, 후천적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홍보가 포함됨
- 제4차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3차 계획의 연계 선상에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고자 하였으나 부처별 추진정책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강화를 위해 장애 인식 개선교육의 관리·운영 및 시스템 도입 등 제도화 방안 마련 계획이 포함됨

[그림 2-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장애 인식개선사업 변화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 각 차수별(제 1차 ~ 5차) 장애 인식개선 내용 재구성.

[표 2-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장애 인식 개선 관련 계획

구분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계획(장애 인식 개선 내용)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8~2002)	<p>< 장애인 복지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매체 홍보, 교육계몽 등을 통한 사회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등 장애인프로그램 방송, 공익광고 제작 홍보 초중고 교과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내용 반영(1999년) 기업체 등 연수시 장애인 관련 교육 내용 포함 추진(2000년) 다각적인 장애인 편의증진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언론, 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 장애인 사회참여, 평등 보장	<p>< 장애인 고용 -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강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 행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 장애인고용촉진 시청각 자료 제작 활용 등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p>< 사회적 인식개선 - 일반국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이 참여하는 장애인 먼저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인식 개선 실천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 등 언론매체(TV, 인터넷 등)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지속 실시 및 언론매체의 왜곡된 표현 모니터링 등

구분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계획(장애 인식 개선 내용)
<p>5개년 계획 (2003~2007)</p> <p># 대등한 시민, 통합적 사회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호칭 등 관련용어 개선 등 • 사회일반의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hr/> <p>< 사회적 인식개선 - 학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교과서 장애 관련 내용 심화 보충 •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실시 확대 <hr/> <p>< 사회적 인식개선 - 고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전파, 30대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등으로 장애인 고용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 동료근로자를 활용한 후견인제 도입 유도 등 •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정책 홍보 등 • 장애인관련 행사의 효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장애인 행사(상공인의 날 행사 등)에 장애인 참여 제고 등
<p>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2012)</p> <p># 보편적 인권, 통합사회 구현</p>	<p>< 장애인 사회참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홍보동영상, 교육자료 등 제작·배포 •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hr/> <p>< 장애인 교육문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 대상 장애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주관의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대상별 장애이해 영상물 제작·보급 및 활용 - 범국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UCC 공모전 추진 등
<p>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13~2017)</p> <p># 더불어 행복한 사회</p>	<p><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 장애발생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교육의 확대 <hr/> <p><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장애 인식개선 관련 행사 개최 <hr/> <p><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확대 및 인식개선 유도 • 장애인 웹정보 접근성 보장 -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p>제5차 장애인정책종합</p>	<p><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구분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계획(장애 인식 개선 내용)
5개년 계획 (2018~2022) # 장애인 자립 포용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기관 설치 • 수요자 특성별 표준 강의를, 양질의 교육 콘텐츠 발굴 및 보급 • 전문 강사 인증제 도입 및 단계별 자격제 전환 • 장애인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설립 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수학교 우수사례 발굴·보급, 대국민 장애 인식 개선 <p>* 2022년까지 특수학교 총 196교, 특수학급 총 11,575학급 목표 : 2017년 현재 특수학교 총 174개교, 특수학급 총 10,325학급</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20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규모·유형별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 강사 양성관리체계 등 인프라 구축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5개년 계획』, 각 차수별(제 1차 ~ 5차) 장애 인식 개선 내용 만 추출하여 재구성
각 차수별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비전) 핵심어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과 ‘제5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18~2022)’
내 장애 인식 개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봄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측면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됨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2018년)*
- 인식개선 지표 개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강사양성시스템 및 교육 모니터링 등 제도화 방안 마련

* 2018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장애 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함

* 세부 추진 방안 : ① 대상자별 표준교재 및 교육 콘텐츠(안) 개발 ② 강사자격부여 및 양성 시스템 방안 ③ 장애 인식개선교육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 ④ 장애 인식개선교육 사회적 확산 및 민간부문 확대

- 사회 전반에 장애감수성 확산을 위해 현 공공부문에 국한된 교육의무대상기관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방안 마련

(2)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 설치

- 기관별로 분산·시행되고 있는 인식 개선 관련 교육을 통합·연계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 설치
-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등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기관 업무 위탁(법적근거마련)

(3) 수요자 특성별 표준강의안, 양질의 교육콘텐츠 발굴 및 보급

- 수요자의 특성에 맞도록 표준강의안 개선 및 일반인 대상 강의안 공모전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콘텐츠 발굴 및 보급
- 현재 4종(초등, 중고등, 교직원, 공공기관) → 분야별, 연령대별 세분화
- 학습교재 뿐 아니라 동영상, UCC, 영유아용 인형극 등

(4) 전문 강사 인증제 도입(시범사업) 및 자격제 전환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법 취지에 맞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전문강사인증제 도입(2018년 시범사업) 후 자격제로 단계적 전환

(5)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2018년~)

- 교육이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효과성 평가를 위해 장애인으로 구성된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2) 제5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18~2022)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내실화

-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18~2022)'의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영역 -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과제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장애 인식 개선 홍보 강화가 포함됨

(1) 범국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확대
 - * 특별기획방송 : 대한민국 1교시(KBS 라디오), 장애이해교육 드라마(KBS TV)
 -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및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
-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지원
 -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장애 인식 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대학 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교육 이수 의무화
 -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를 위한 대학 환경 조성

(2) 범국민 장애 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등학생 및 일반국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확산
 - 범 국민 대상 SNS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용 콘텐츠 전파
- 관계부처 협업으로 TV,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범국민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 긍정적 장애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 범부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공익광고 및 홍보 콘텐츠 지속 노출

제2절 장애 인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 국내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한 장애인식 개선 관련 연구는 매우 적음
- 사회복지정책 연구기관의 장애인 관련 연구 중 장애 인식 개선에 관련된 연구는 없으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장애인개발원(4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10편)에서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됨
- 장애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1. 정책연구기관의 연구 현황

1)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관련 연구(정책 및 연구보고서) 총 97편 중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연구는 없음
-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 경기도 복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관련 연구(정책연구 및 단기정책보고서) 총 52편 중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연구는 없음
 - 경기연구원 역시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연구는 없음
- 서울복지재단, 서울연구원
 -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 관련 연구(연구사업 과제) 총 49편 중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연구는 없음
 - 서울연구원 역시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연구는 없음

2) 장애인 정책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 최근 10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된 정책연구 총 260여편 중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연구는 4편에 불과함
- 최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장애 인식 개선교육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좀 더 체계화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공무원 대상(2008)
-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교재 개발 연구-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 공무원용(2014)
- 장애 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2017)
- 장애 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201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소속기관인 고용개발원은 1990년대부터 장애인 고용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함. 장애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2008년부터 수행되기 시작함
- 최근 10년간 기본·수시·위탁과제 총 427편 중 10편의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연구가 수행됨. 최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앞으로 고용현장에서 장애 인식 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장애인 고용인식개선을 위한 EDI 행동프로그램 개발 보고서(2008)
- 장애인 고용가능성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과 실제-영국 사례(2008)
- 사업주의 장애 인식에 관한 연구(2010)
-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EDI 행동프로그램 II 개발(2010)
-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의 인식 분석(2011)
- 장애 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2011)
-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 홍보방안(2013)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2018)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2018)

2. 학위 논문의 장애 인식 관련 연구 현황

- 장애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 다루어짐
 - 2000년대 초반, 학생(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 학교의 통합교육,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장애 인식 및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함
 - 2010년대 이후는 학교 통합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고, 고용주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함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	비고
직업재활전문가와 고용주의 장애인고용 인식에 관한 연구(조주현, 2003)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인식 결정요인 연구(강석주, 2007) 지적장애인 사회적 차별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남희은, 2015) 초등학교교사의 장애 인식과 특수교육전문성, 통합교육 효율성의 구조관계 연구(배아란, 2019)	박사 논문
장애인에 대한 인식 태도 연구 -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이학범, 2000) 대학생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김인호, 2001) 장애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이진숙, 2002)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현정숙, 2004) 일반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과 장애 인식과의 관계(송경숙, 2004) 청소년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김태성, 2005)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대한 연구(김연희, 2007) 통합교육 경험시기에 따른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연구(심명용, 2007) 정신장애인 및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김미영, 2007)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박경옥, 2008) 장애 인식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이창화, 2008)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 청소년의 인식 연구(이진숙, 2008) 초등학교 교사의 청각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박성하, 2009)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인식 - 여대 학생을 중심으로(박혜신, 2010) 독후감쓰기가 중학생들의 장애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김희철, 20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운영실태 및 인식 연구(정상용, 2012) 장애 인식개선프로그램이 비장애초등학생의 장애 인식과 활동선호에 미치는 영향(김유리, 2012) 장애 인식개선교육이 초등학생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주유민, 2012) 고용주의 인식이 지적장애인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임하규, 2012)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유창숙, 2012) 일반 유아 어머니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최정인, 201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공선희, 2013) 장애인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식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임창규, 2014)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조소이, 2014) 대학생의 장애인 접촉 경험이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은혜, 2015)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장애 인식 정도가 통합체육 수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석경중, 2016)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식 탐색(박지연, 2018) 초등학교 고학년의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인식 연구-통합체육수업 중심(장세호, 2018) 통합학급 일반학생의 장애 인식 수준이 체육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고병훈, 2018)	석사 논문

제 3 장

고양시 장애 인구 및 정책 현황

제1절 고양시 장애인구 현황

제2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정책 현황

제절 고양시 장애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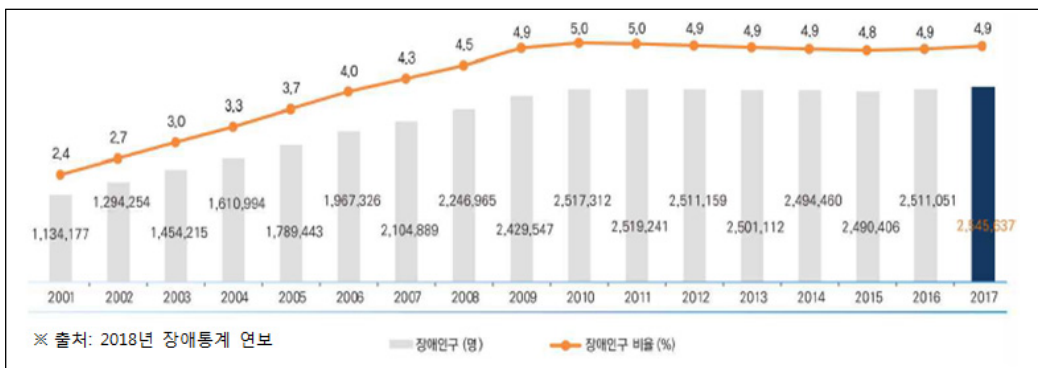
- 2019년 7월 현재,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는 2,605,425명(전국 전체인구 51,845,612명의 5.03%)이며, 경기도 장애인 등록 인구는 554,110명(경기도 전체인구 13,176,011명의 4.21%)임

- 타 지자체의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7월 현재, 수원시 3.57%(42,716명), 성남시 3.79%(35,884명)임

※ 고양시 장애인 등록인구는 고양시 전체인구 1,051,177명의 3.85%(40,286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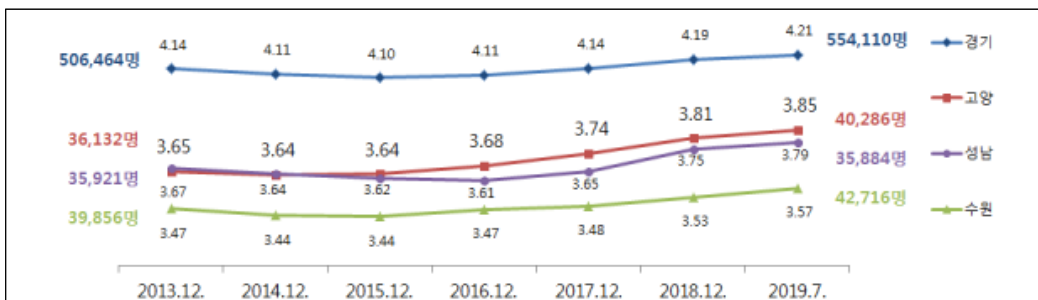
[그림 3-1]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 변화(2001~2017)

(단위 : 명, %)



[그림 3-2] 타 지자체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2013~2019)

(단위 : 명, %)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접속일 2019.8.30. 사회보장통계 인출 / 사회보장정보원은 2013년 이후 자료만 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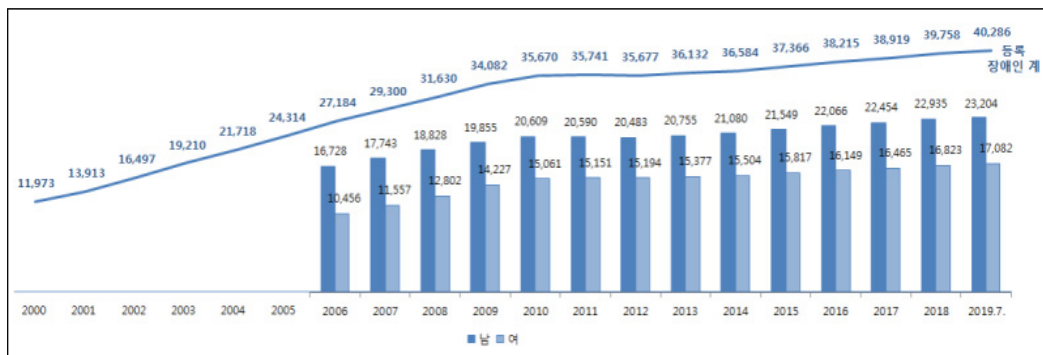
1.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1)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변화

-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00년 말 11,973명에서 2019년 7월말 40,286명으로 19년 동안 약 4배 정도 증가함. 고양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 역시 2000년 1.5%에서 2019년 7월 3.85%로 증가함
- 장애인 등록 인구 남녀 비율은 남성 58%, 여성 42%로 남성이 많음. 최근 10년간 남녀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그림 3-3]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변화(2000~2019)

(단위 : 명)



※ 자료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 각 연도(2001~2018)』, 각 연도 12월 말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www.ssis.or.kr)

* 2005년 이전 고양통계연보에는 장애인 성별 구분 없이 합계만 기입됨

[표 3-1]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 변화(2000~2019)

(단위 : 명, %)

연도	고양시 전체인구	장애인 등록 인구 계		장애인 성별 구분	
		장애인 인구수	비율	남	여
2000	797,597	11,973	1.50	-	-
2001	811,467	13,913	1.71	-	-
2002	836,664	16,497	1.97	-	-
2003	865,077	19,210	2.22	-	-
2004	886,000	21,718	2.45	-	-
2005	904,077	24,314	2.69	-	-

연도	고양시 전체인구	장애인 등록 인구 계		장애인 성별 구분	
		장애인 인구수	비율	남	여
2006	910,206	27,184	2.99	16,728 (61.5)	10,456 (38.5)
2007	924,839	29,300	3.17	17,743 (60.6)	11,557 (39.4)
2008	938,831	31,630	3.37	18,828 (59.5)	12,802 (40.5)
2009	938,784	34,082	3.63	19,855 (58.3)	14,227 (41.7)
2010	950,115	35,670	3.75	20,609 (57.8)	15,061 (42.2)
2011	961,239	35,741	3.72	20,590 (57.6)	15,151 (42.4)
2012	969,916	35,677	3.68	20,483 (57.4)	15,194 (42.6)
2013	990,571	36,132	3.65	20,755 (57.4)	15,377 (42.6)
2014	1,006,154	36,584	3.64	21,080 (57.6)	15,504 (42.4)
2015	1,027,546	37,366	3.64	21,549 (57.7)	15,817 (42.3)
2016	1,039,684	38,215	3.68	22,066 (57.7)	16,149 (42.3)
2017	1,041,983	38,919	3.74	22,454 (57.7)	16,465 (42.3)
2018	1,044,189	39,758	3.81	22,935 (57.7)	16,823 (42.3)
2019.7.	1,051,177	40,286	3.85	23,204 (57.6)	17,082 (42.4)

※ 자료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 각 연도(2001~2018)』, 각 연도 12월 말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www.ssis.or.kr) / 전체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27.101.213.4>) 접속일 2019.8.12. 주민등록인구현황(각 연도 12월말 기준) 인출

* 2005년 이전 고양통계연보에는 장애인 성별 구분 없이 합계만 기입됨

2)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장애인 등록 현황

○ 2019년 7월 기준 고양시 장애인 인구 중 심한 장애는 15,366명(38.1%), 심하지 않은 장애는 24,920명(61.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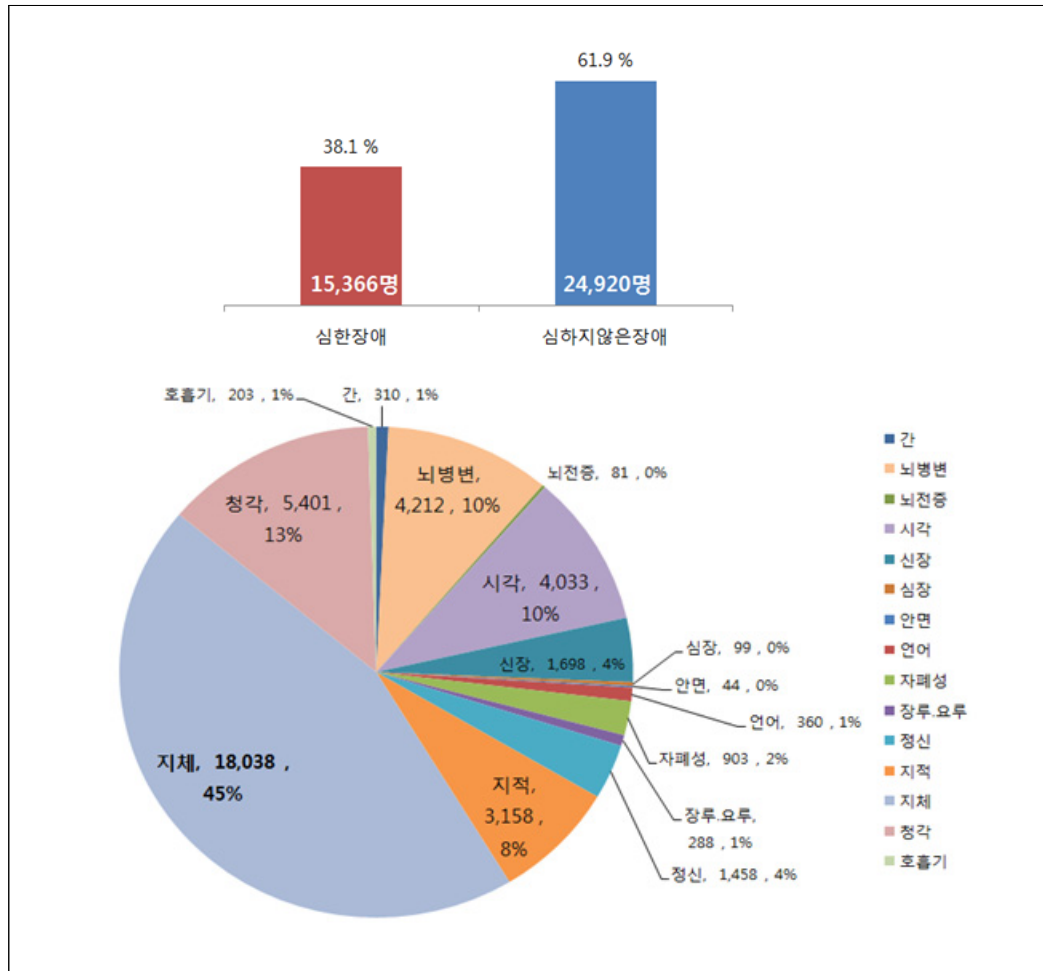
－ 자폐, 정신, 지적 장애는 모두 심한 장애에 포함됨

○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장애인 중 44.8%(18,038명)가 지체장애인임

－ 청각장애인 13.4%(5,401명), 뇌병변장애인 10.5%(4,212명), 시각장애인 10%(4,033명), 지적장애인 7.8%(3,158명), 신장장애인 4.2%(1,698명), 정신장애인 3.6%(1,458명)임

[그림 3-4]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2019.7.기준)

(단위 : 명, %)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접속일 2019.8.30. 사회보장통계(2019.7.기준) 인출

* 기존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되고 2019년 7월부터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른 통계가 제공됨

-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고양시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인의 경우 100% 심한장애에 속함. 호흡기장애인도 97%가 심한장애에 속함
- －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80% 이상이 심하지 않은 장애에 속함

[표 3-2]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고양시 장애인 등록 현황(2019.7. 기준)

(단위 : 명, %)

장애유형	등록 장애인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장애인수	비율	등록장애인수	비율
간	310 (0.8)	15	4.8	295	95.2
뇌병변	4,212(10.5)	2,687	63.8	1,525	36.2
뇌전증	81 (0.2)	18	22.2	63	77.8
시각	4,033(10.0)	753	18.7	3,280	81.3
신장	1,698 (4.2)	1,217	71.7	481	28.3
심장	99 (0.2)	76	76.8	23	23.2
안면	44 (0.1)	26	59.1	18	40.9
언어	360 (0.9)	174	48.3	186	51.7
자폐성	903 (2.2)	903	100.0	-	-
장루,요루	288 (0.7)	37	12.8	251	87.2
정신	1,458 (3.6)	1,458	100.0	-	-
지적	3,158 (7.8)	3,158	100.0	-	-
지체	18,038(44.8)	3,333	18.5	14,705	81.5
청각	5,401(13.4)	1,314	24.3	4,087	75.7
호흡기	203 (0.5)	197	97.0	6	3.0
계	40,286 (100.0)	15,366 (38.1)		24,920 (61.9)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접속일 2019.8.30. 사회보장통계(2019.7.기준) 인출 /

* 기존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되고 2019년 7월부터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른 통계가 제공됨

〈 ※ 참고 : 장애 유형 설명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통계 지표 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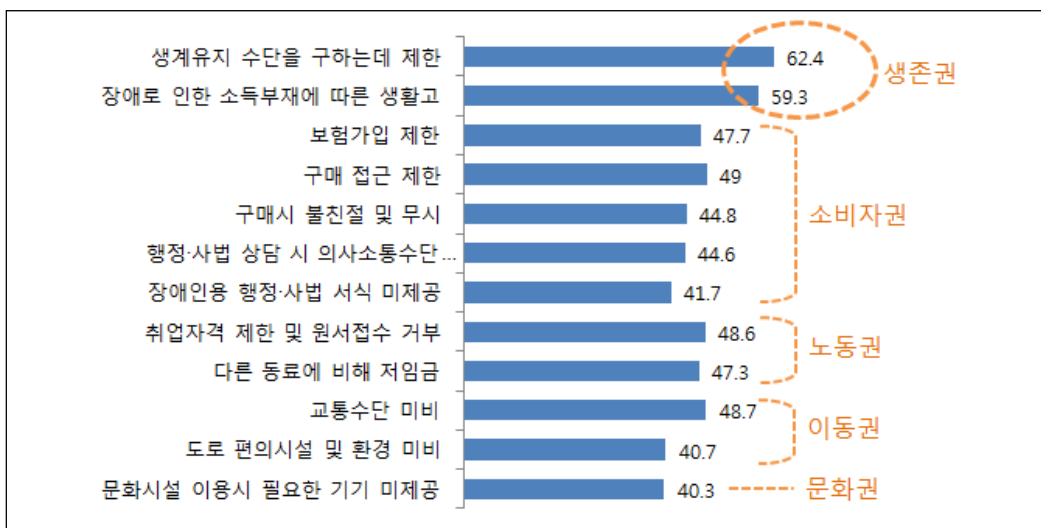
장애 유형	설명
간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병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시각	시력 기능의 저하 또는 시야결손으로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언어	음성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폐성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루,요루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정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적	정신 발달이 항구적으로 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지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인하여 팔, 다리,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	청력 기능이나 평형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2016.9.)

- 2016년 9월 실시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양시 거주 장애인은 생존권 및 소비자권, 이동권, 노동권 등에 있어서 차별을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거주 장애인의 62.4%는 생계유지 수단을 구하는데 제한을 느끼고 있으며, 59.3%는 장애로 인한 소득부재에 따른 생활고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소비자권 영역에서는 구매 접근 제한 49.0%, 보험가입 제한 47.7%, 구매시 불친절 및 무시 44.8%, 행정·사법 상담시 의사소통수단 미제공 44.6%, 장애인용 행정·사법 서식 미제공 41.7% 등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권 영역에서는 취업자격 제한 및 원서접수 거부 등의 노동기회 차별 48.6%, 다른 동료에 비해 저임금을 받는 임금 차별 47.3%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교통수단 미비 48.7%, 도로 편의시설 및 환경 미비 40.7% 등의 이동권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고양시 거주 장애인의 차별 경험(2016.9.)

(단위 : %)



※ 자료 :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언연구』, 2016.11. 내용 재구성.

[표 3-3]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2016년 9월)

(단위 : %)

인권보장 영역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영역	'매우 있음 + 약간 있음' 비중
생존권	생계유지 권리 차별	생계유지 수단을 구하는데 제한	62.4
		장애로 인한 소득부재에 따른 생활고	59.3
재산권	재산상의 불이익	사기·절취 등 재산 침해	20.8
		상속권 제한	15.2
소비자권	보험·금융 이용 차별	보험가입 제한	47.7
		금융상품 이용 제한	24.7
	구매 권리 차별	접근 제한	49.0
		불친절 및 무시	44.8
		구매 제한	32.3
	행정·사법 접근권리 차별	행정·사법 상담 시 의사소통수단 미제공	44.6
		장애인용 행정·사법 서식 미제공	41.7
건강권	진료권 차별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21.8
		진료정보 제공 차별 및 알 권리 침해	16.1
	치료권 차별	간병제도 및 의료 재활 치료 미흡	35.8
		의료비용 과다	18.9
		장애를 이유로 과다한 치료 강요	18.5
거주권	거주이전 권리 차별	전월세 입주 거부	15.2
		이사 강요	10.9
		주택매매 거부	6.5
가족권	결혼할 권리 차별	장애를 이유로 결혼 반대 및 제한	19.6
	가족생활 권리 차별	가족활동 차별 및 재산권 제한	20.3
		가족 내 차별 및 폭력	15.4
		가족 내 의사결정 배제	11.5
		장애인 자녀 출산 이유로 이혼 경험	8.8
		장애로 이혼 및 별거 강요	8.5
보호권	보호받을 권리 차별	심리 및 언어 폭력	36.8
		신체적 폭력	17.9
		성범죄 노출	12.7
문화권	참여 권리 차별	필요한 장비 및 기기 미제공	40.3
		문화공간 편의시설 미비	37.2
		점자자료, 음성안내 서비스 등 미제공	30.7
		문화·체육시설 이용 제한 또는 거부	27.6
		문화활동 참여 제한 또는 거부	26.9
접근권	이동권 차별	교통수단 미비	48.7
		도로 편의시설 및 환경 미비	40.7

인권보장 영역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영역	'매우 있음 + 약간 있음' 비중
		대중교통 승차 거부	32.7
		보조견, 보조기구의 탑승 거부	19.9
	건축물 접근권 차별	건축물 편의 시설 미비	32.4
		건축, 시설 이용 거부 및 제한	19.4
	정보 접근권 차별	정보접근 제한	21.1
		정보매체 접근 제한	21.1
참정권	투표권리 차별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장비 미비	30.0
		선거정보 접근 제한으로 투표권 침해	18.9
지원서비스이 용 권리	지원서비스 이용 차별	이동도우미 미비	35.1
		가정도우미 미비	28.3
		심리상담서비스 미비	26.3
		수화, 점역 서비스 미비	20.8
형사상의 권리	법 절차 차별	불법체포 및 자백 강요	9.2
	피해자로서의 권리 차별	의사소통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13.5
성적 자기결정권	성생활 권리 차별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	13.4
노동권	노동기회 차별	취업자격 제한 및 원서접수 거부	48.6
		입사 시험시 적절한 편의제공 부재	37.9
		장애를 이유로 면접시 탈락	37.9
		별도 신체검사 또는 면접 요구	17.9
	임금 및 보상 차별	다른 동료에 비해 저임금	47.3
		다른 동료에 비해 임금 체불	20.5
		산재 인정 및 보상 차별	20.5
	노동환경 차별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차별	28.6
		노조가입 및 직장행사 등에서 배제	27.7
		직무능력 교육 및 훈련의 차별	26.8
		적절한 업무 배치 및 직무 환경 차별	25.9
		다른 동료에 비해 승진 차별	24.1
		부당 해고	20.5
		장애를 이유로 퇴직 강요	18.8
여성장애인의 권리	모성권 차별	장애 이유로 양육권 침해	6.3
		불임수술 및 피임 강요	5.6
		낙태 강요	4.8
		산전, 산후 조리 차별	4.8
	성차별	여성장애를 이유로 노동기회 침해	22.7
		여성장애를 이유로 교육기회 침해	19.1
		여성장애를 이유로 재산권 침해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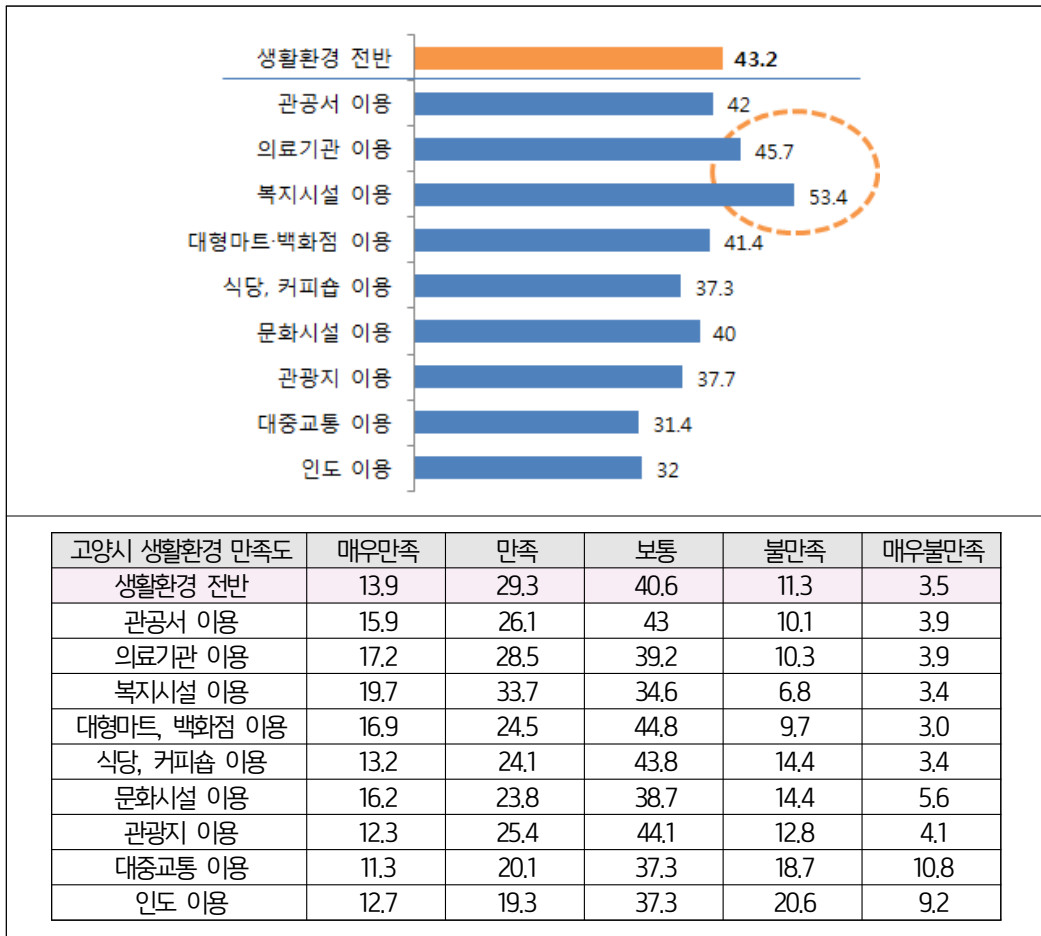
인권보장 영역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영역	‘매우 있음 + 약간 있음’ 비중
	폭력	폭력	17.3
		성폭력	9.7
정신장애인의 권리	교육기회 차별	교육기회 제한 및 박탈	24.1
	취업기회 차별	취업교육 및 취업 기회 제한	31.0
	보호서비스 차별	적절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미흡	20.7
		학대	6.9
발달장애인의 권리	교육기회 차별	교육기회 제한 및 박탈	28.8
	취업기회 차별	취업교육 및 취업기회 제한	32.8
	보호서비스 차별	적절한 보호 서비스 미흡	36.1
		이중 차별	32.1
교육권	교육기회 차별	입학원서 거부, 모집요강 제한	18.0
		전학, 퇴학 강요 및 편입 거부	6.0
	교육환경 차별	동료학생으로부터의 괴롭힘	30.0
		통학 교통편의 부재	26.0
		교육 프로그램 참여거부	20.0
		적절한 교육 과정 미흡	18.0
		편의시설, 기자재, 보조인력 미비	18.0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12.0
		장애학생 담당자 미배치	12.0
장애아동의 권리	교육기회 차별	교육기회 제한 및 박탈	18.0
	취업기회 차별	취업교육 및 취업기회 제한	10.0
	보호서비스 차별	적절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미흡	12.0
		아동학대	6.0
시설장애인의 권리	사생활권 차별	자기결정권 침해	14.5
		사생활권리 침해	9.1
	폭력	무시, 언어폭력	16.4
		성추행 등 성폭력	8.2
	서비스 및 권리 차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침해	13.6
		거주이전권리 침해	12.7

※ 자료 :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복지육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 2016.11. 내용 재구성.

- 고양시 거주 장애인의 ‘고양시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3.2%로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세부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복지시설 이용 53.4%, 의료기관 이용 45.6%, 관공서 이용 42.0%, 대형마트·백화점 이용 41.4%, 문화시설 이용 40.4%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 대중교통 이용 및 인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6] 고양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 만족도(2016.9.)

(단위 : %)



※ 자료 :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 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언연구』, 2016.11. 내용 재구성.

- 고양시 거주 장애인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19.9%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8.0%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
- 고양시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7.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남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시 32.3%는 참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단체와 의논 23.8%, 무시한다 18.0%, 이웃이나 친지와 의논 13.2%, 행정기관에 신고 9.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은 절반 정도가 참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기관 및 단체와 의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시 대처 행동(2016.9.)

(단위 : %)

구분	전체	장애 유형							
		지체	신장	시각	청각	뇌병변	지적	자폐	장애
참는다	32.3	31.6	25.8	48.1	52.9	25.4	25.1	34.4	34.5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단체와 의논한다	23.8	15.0	29.0	14.8	17.6	16.9	37.9	22.9	20.7
무시한다	18.0	26.7	16.1	25.9	13.7	15.3	11.8	14.6	17.2
이웃이나 친지와 의논한다	13.2	11.8	9.7	7.4	5.9	18.6	13.3	21.9	10.3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9.3	11.8	12.9	3.7	7.8	16.9	7.9	4.2	13.8

※ 자료 :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 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언연구』, 2016.11. 내용 재구성.

- 장애인 복지관련 정보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을 통해 얻는 경우가 31.4%, 주변 사람(친구, 이웃, 친척) 24.2%, 정보매체(언론, 인터넷) 16.9%. 장애인 단체 15.9%, 행정기관(시청, 구청, 주민센터)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35.1%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8.2%는 보통, 24.8%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제2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정책 현황

1. 고양시 장애 인식 관련 조례

- 고양시는 2015년 10월 8일,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
- － 제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음
- － 기본계획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5.10.8.제정·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2.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정책

- 2008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노년기를 제외한 모든 세대(0~18세 아동·청소년기, 19~44세 청년층, 45~64세 중장년층)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필요성이 나타남(경기복지재단, 2010)
- ‘제4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추진 전략의 장애인 정책 과제 중 ‘지역사회 커뮤니티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신규)’사업에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됨
 - (지속 사업) : 구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대,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정착,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및 돌봄 센터 확대, 장애인 돌봄 서비스 수준 향상, 장애인 꿈의 버스 활성화
 - (신규 사업) : 지역사회 커뮤니티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등급제 개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제7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중장기 추진과제 ‘취약계층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의 세부 사업에 ‘비장애인 장애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취약계층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 ① 사회복지연계사업, ②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③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④ 노인통합건강관리 사업, ⑤ 커뮤니티케어 등을 추진할 계획임
 - ②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비장애인 장애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이 포함됨
- ※ 비장애인 장애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2019년 연차별 실행계획)
 - 허약노인 장애 예방 프로그램
 - 어린이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
 - 앰버버스와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 등

[표 3-5] 고양시 '취약계층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실행과제 -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전략 4.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생활 환경 조성 추진과제 4.3. 취약계층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비장애인 장애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2019년 연차별 실행계획)		
세부 사업	주요 내용			
사회복지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심리정서 상담지원 - 노인개안수술 의료비 지원 -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의료비 지원 	허약노인 장애예방 프로그램	낙상 예방교육, 뇌졸중 예방교육, 신체 활동 가이드 제공	경로당 이용 어르신 100 여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장애인 발굴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 비장애인 장애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어린이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후천적 장애 예방교육, 장애 체험	초등 학교 10개소, 1,000 여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교육 제공 및 간접적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고취 및 인식개선 도모	관내 초등 학교
노인통합건강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및 복지 취약계층 노인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 독거노인의 영양과 근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어르신대상 지역사회연계 건강주치의사업 실시 - 지역병원 의사들의 나눔 진료 	멤버버스 와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	매월 호수공원에서 장애인 인권관련 영상교육, 구연동화 및 장애인 인권의 이해 등 이론 교육,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 등 장애체험	고양 시민
커뮤니티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필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음 -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협착증 재활 프로그램	협착증 원인과 증상 및 예방법 교육, 도구를 이용한 재활훈련 시행	고양시 만 5세 이상 아동
				고양 시민

※ 자료 : 고양시, 『제7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2018. p. 119. 재구성. /
고양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연차별 실행계획서』, 2018. p. 157. 재구성

3.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예산

- 2019년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관련 예산 총 720억원 중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행사비 등으로 약 1억3천5백만원이 책정됨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 : 장애 인식 개선사업 3천만원, 공무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50만원,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비 약 9천만원 등
 - 장애인 복지지원 정책 :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운영비 1천만원

[표 3-6] 고양시 장애인 자원 정책 예산(2019년)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예산액
재가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3,434,847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28,813,204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7,375,964
장애 인식 개선사업	30,000
고양시 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1회)	1,500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	15,000
장애인가족 키텍스 캠핑 페스티벌	25,000
장애청소년 어울림 문화제	30,000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4,900
세계 콩팥의 날 기념 신장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4,200
흰 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3,500
발달장애인 기능경진 대회	3,500
농아인의 날 기념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4,200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화합 행사	3,500
장애인 복지지원	1,409,980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0,000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895,000

※ 자료 : 고양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9.

4.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사업 현황(2019년도)

○ 2019년도 고양시 장애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 총 사업비 39,339천원(시 보조금 3천만원 + 단체 자체부담금 총 9,339천원)

[표 3-기] 2019년도 고양시 장애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 장애 인식 개선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비고(단체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장애 인식 개선사업 '우리 하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장애인 강사 파견 교육 실시 장애 인식개선UCC공모전을 활용하여 최대 다수에게 홍보효과 기대 	8,290	고양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장은 아픔을 말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및 어르신 이용시설에 방문하여 신장장애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기증 홍보와 병행 	2,124	한국신장장애인 협회 고양지부
친구야 같이 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새로운 <장애 인식개선>인형극 극본 제작과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2,664	일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 인식 개선 '수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어교실 기초, 중급반별 교육 제공 수어통역자격증 반에 필요한 특강 개최 	8,000	고양시농아인협회 고양시지회
장애인가족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영화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1:1 매칭으로 영화관람 자원봉사자외의 연계 및 영화 관람 후 후기 작성을 통한 피드백 	2,240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양시지부
즐거운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청소년과 함께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여행과 사랑의 음악회 추진 	4,826	나눔나무
날개단 기사단 양성과정 '우리들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관련 행사 참여 및 취재 인디자인을 활용한 전자책만들기'정보화협회 웹진 '우리들뉴스' 	6,195	경기도장애인 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
우리 모두 어울림공동체 '우리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관련단체를 방문하여 장애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토론회 강의 진행 전문가를 초청하여 장애 인식 개선 토론회 강의와 1일 장애 체험 활동 실시 	5,000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2019.8.22.)

- 2019년도 고양시 공무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1회 실시(2019.6.25.)
 : 고양시 전 직원 대상 ‘장애인과 함께하기’ 강의 및 장애인 관련 영화 관람
 총 사업비 150만원(시비 100%)

- 2019년도 찾아가는 희망가득 공연상자(장애 인식 개선사업) 운영
 :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 인식 개선사업
 총 사업비 1,249만원(상반기 619만원, 하반기 627만원)

[표 3-8]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장애 인식 개선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비고
찾아가는 희망가득 공연상자 (2019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공연을 병행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공연 강사(장애인)의 마술, 인형극 - 장애 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 PPT를 활용한 장애이해 교육 	6,190	14개 초등학교 총 1,671 명
찾아가는 희망가득 공연상자 (2019년 하반기)		6,270	15개 초등학교 총 1,784명

※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2019.9.23.)

- 2019년도 IL 장애 인식 개선사업 현황
- 고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 강연회 연1회, 캠페인 연 2회 이상, 편의시설 개선활동(수시-2018년 10건, 2019년 9월 현재 6건) 등
 - 즐거운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 2개 초등학교(5개 학급) 활동보조인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1개 중학교(293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콘서트, 주엽동 주민자치축제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일산사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83명) 대상 교육, 1개 고등학교(400명) 대상 교육, 대화역 광장 장애 인식개선캠페인 등
 - 일산서구햇빛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 장애 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 중학생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거리캠페인(주엽역 일대) 등

5. 고양시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장애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는 고양시에 4개 학교(덕양구-명현학교, 일산동구-경진학교, 일산서구-밝은학교, 홀트학교)가 있음
- 고양시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약 70%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시간별로 오가며 학생 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급’이 있음
 - 고양시 유치원(178개) 중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10%(18개)에 불과함

[표 3-9] 고양시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황

과정	명현학교(덕양구)	경진학교(일산동구)	홀트학교(일산서구)	밝은학교(일산서구)
유치원	1학급(4명)	3학급(12명)	1학급(4명)	6학급(24명)
초등학교	12학급(72명)	12학급(72명)	12학급(72명)	-
중학교	6학급(36명)	6학급(36명)	6학급(36명)	-
고등학교	6학급(42명)	6학급(42명)	6학급(42명)	-

과정	학교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수	비율
유치원	178개	18개	10.1%
초등학교	86개	64개	74.0%
중학교	45개	34개	75.0%
고등학교	36개	24개	66.7%

※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2019.8.22.)

6.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교육 실시 현황

-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시스템에 집계된 고양시 어린이집~대학교의 장애 인식 개선교육 이행률은 2016년 11.8%, 2017년 40.8%, 2018년 37.7%로 나타남
 - 특히 유치원의 교육 이행률은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함

- 2018년도 전국 이행률과 비교해 볼 때 고양시 이행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전국 5.4%, 고양시 0%), 어린이집(전국 49.9%, 고양시 42.7%), 유치원~대학교(전국 47.9%, 고양시 25.3%)

[표 3-10]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

교육대상	2016			2017			2018			2018년 전국 이행률
	전체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전체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전체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지방자치단체	43	0	0	43	1	2.3	43	0	0	5.4
어린이집	1,002	23	2.3	917	389	42.4	855	365	42.7	49.9
유치원	174	15	8.6	175	23	13.1	176	33	18.8	47.9
초등학교	83	60	72.3	83	53	63.9	83	27	32.5	
중학교	41	30	73.2	41	29	70.7	41	16	39.0	
고등학교	36	30	83.3	36	18	50.0	36	10	27.8	
대학교	4	0	0	4	1	25.0	4	0	0	-
어린이집 ~대학교	1,340	158	11.8	1,256	513	40.8	1,195	451	37.7	

※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작성일 2019.10.7.) 자료 요청 - 분석

- 2018년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방법은 원격교육 39.6%, 내·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39.5%, 기타(체험 및 연수) 20.9% 순으로 이루어짐
- 최근 3년간 집합교육 비율은 감소(92.1%→56.2%→39.5%)하고, 원격교육 비율(4.3%→23.4%→39.6%)과 기타 교육방법(3.6%→20.4%→20.9%)은 증가함
 - 집합교육 중 내부강사 교육 비율은 감소하고, 외부강사 교육 비율이 증가추세임

[표 3-11]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방법 현황

(단위 : 회, %)

구분	2016				2017				2018			
	원격교육	집합교육		기타	원격교육	집합교육		기타	원격교육	집합교육		기타
		내부강사	외부강사			내부강사	외부강사			내부강사	외부강사	
교육 횟수	12	204	54	10	326	467	315	284	476	176	299	252
비율(%)	4.3	72.9	19.4	3.6	23.4	33.5	22.6	20.4	39.6	14.6	24.9	20.9

※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작성일 2019.10.7.) 자료 요청 - 분석

제 4 장

국내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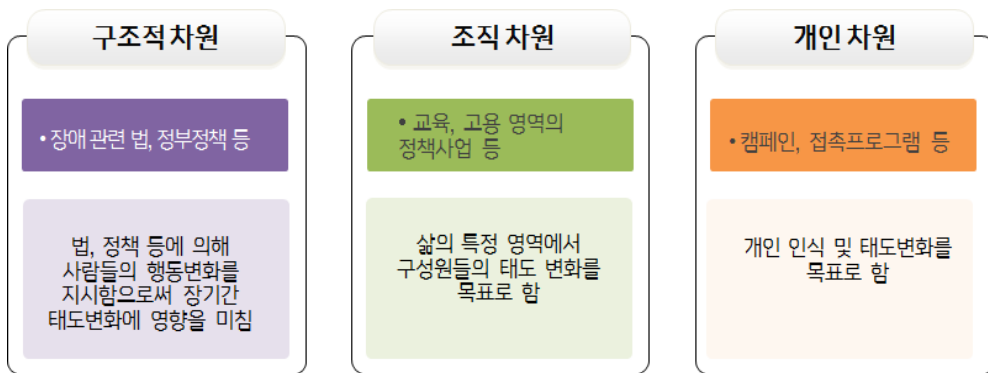
제1절 국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제2절 국내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제3절 국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례

제4절 국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 국외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함



- Thompson et al., (2012).

1. 구조적 차원의 정책들(Structural-level policies)

- 구조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지시함으로써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정책이나 법들이 포함됨
- 법은 정의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음. 그러나 장애 권리에 대해 명시한 법과 같은 구조적 차원의 정책은 장기간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여기에서는 장애 관련 법적인 권리의 시행과 모니터링 정책들에 대해 설명함

* Thompson et al., "Community attitudes to people with disability: scoping project", 2012. 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추가적인 자료검토를 통해 세부 내용을 보완함

1) 호주

- 구조적 차원의 정책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 교육, 고용, 주거, 소득 등과 같은 영역에서 직면하는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임. 호주 정부 차원의 Discrimination Act(1992년), Disability Services Act(1986년)와 주 정부 차원의 법률(예: 빅토리아 주의 Disability Act, 2006) 및 Disability Action Plan 등이 여기에 해당 됨
- 호주 정부의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Commonwealth Disability Strategy는 이와 같은 구조적 차원의 정책들을 실행하기 만들어진 것들로 주, 지역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를 향상시키고 사람들의 통합, 참여, 평등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에 초점을 맞춤
-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책임과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조적 차원의 기구임
- 장애 관련 이슈와 그것과 관련된 법적인 제도, 연구조사, 제기된 불만들에 대해 안내하고 포럼 개최, 컨설팅 등과 같이 제기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또한 각 조직의 Disability Action Plan을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타 조직의 잘 수행된 Action Plan을 예시로 제시하는 등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함
- Action Plan은 상품, 서비스, 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조직들이 장애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 Action Plan의 개발과 실행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를 준수하는데 있어 자발적이고 예방적인 접근방식이며, 이는 조직과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됨
- 조직은 이를 통해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

가 되며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

- 조직은 Action Plan을 개발하고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서비스 접근을 막는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된 전략들에 관해서 장애인들 혹은 장애인 단체들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Home](#) / [Our Work](#) / [Disability Rights](#) / [Action Plans](#)

Action plans and action plan guides

Disability Rights Friday 14 December, 2012

Resources on developing an action plan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ction plans: A guide for business](#)
- [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 guide to action plans](#)
- [Job Access guide to action plans](#)

1. Introduction

2. How to develop an action plan

3. Summary

4. Appendix 1 - Checklist

5. Appendix 2 - Examples

6. Appendix 3 - Legislative requirements for action plans

7. Appendix 4 - Relevant sections of the Act

8. Download document in Word or PDF

4. Appendix 1: Checklist

1. How does your business collect information about actual and potential markets? What can you do to collect more useful information?
2. What physical barriers need changing to encourage customers who have a disability?
3. How can you change communication practices to ensure that all customers may have access to your information and provide information to you?
4. Are any employees allowing their own discriminatory practices to impact on customer service? How might this problem be addressed to ensure that your staff provide a quality service?
5. Will the review of your business practices make use of the expertis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identifying barriers to access and in developing the Action Plan?
6. Have you determined ways to evaluate your progress towards Action Plan goals?
7. Are your goals and targets achievable?
8. Have you set time frames to ensure your goals and targets have some meaning?
9. Has the business allocated sufficient resources, priority and authority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Action Plan?
10. How are you going to inform employees about the Action Plan and educate them about their role in implementing it?

1. Have you devised strategies for publicising your commitment to the Action Plan so that your business reaps all the public relations benefits?
2. Does your business have a complaints procedure that really enables matters to be fixed without the customer making a complaint to the Commission?
3. Has your business incorporated long term planning and evaluation strategies into the Action Plan?

3. Summary

The Action Plan process is similar to any best practice approach to business. It will fit comfortably with your business objective of ensuring continued commercial success. The components are:

1. Review your practices
2. Devise policies and programs to eliminate disability discrimination
3. Set goals, targets and time frames
4. Devise and incorporate evaluation strategies
5. Appoint persons to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6. Communicate the Action Plan to people within your business

※ 자료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disability-rights>) 내에 소개된 장애 차별 행위 개선 행동 계획(action plan) 비즈니스 가이드 - 요약 및 점검표(<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disability-rights/disability-discrimination-act-action-plans-guide-business>), 접속일 2019.10.10.

○ Action Plan의 실행 절차(Process)

1. 사업체의 장애 차별 현황(물리적 장벽, 직원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등) 검토

2. 장애 차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3. 개선 목표 및 기간 설정(목표는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4. 평가 전략 수립 및 통합
5. Action Plan의 이행을 책임질 사람 지정
6. 사업체 내 사람들에게 Action Plan 공유

○ Action Plan 중 하나로 소개된 Football Teams의 사례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 AFL(Australia Football League) Football Teams의 Action Plan 사례

구분	프로그램 개요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구클럽은 동일한 혹은 유사한 환경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덜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함. 이러한 차별 금지는 Commonwealt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92)와 Equal Opportunity Act(1995)에 의한 것임 • 본 축구 클럽은 위 법률 중 다음과 같은 기술들을 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임 - 장애를 가진 사람 및 그 가족은 우리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참여를 막는 신체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장벽과 관련한 정보의 원천임
Action Plan의 기본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축구 클럽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클럽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Action Plan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임 - 클럽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 클럽 관람객들에 대한 교육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클럽에 참여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확인 - 이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함
Action Plan의 특정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장의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분명히 지정하는 것 - 장애인 화장실 시설 - 구내식당에 대한 접근성 - 클럽룸에 대한 접근성 - 축구 경기장에 대한 접근성 - 축구 관람을 위한 시야 확보

※ 자료 : AFL Community (<http://www.aflcommunityclub.com.au/>) 접속일 2019.10.10.
http://www.aflcommunityclub.com.au/fileadmin/user_upload/Manage_Your_Club/1_Quality_Club_Assessment/Suisse_Quality_Club_34_Sample_Disability_Action_Plan.pdf

2) 영국

- 2006년, 영국 정부는 Disability Equality Duty를 도입함. 이는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에서 시민 혹은 고용인으로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임. 네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제거함
 - 사람들의 장애를 고려함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킴
 - 긍정적인 태도 향상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킴

3) 미국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의 주요 법령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993제정, 2008개정)임
 - 이 법은 고용, 지역 정부의 서비스, 주거, 교통, 통신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부여함. 특히, 이전 법과 달리 연방 정부 기금과 관련이 없는 식당, 호텔, 극장, 쇼핑센터 등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장애인 접근을 막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Disability Office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웰빙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들의 실행과 조정을 감독함
 - 여기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협업과 조정을 위한 기관들 사이의 장벽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2. 조직 차원의 정책들(Organizational-level policies)

- 지역사회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정책은 조직 차원의 개입이며 이는 특정 삶의 영역에서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함
- 조직 차원의 정책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특정 영역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다룸
- 여기에서는 교육, 고용 영역에서의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함

1) 교육 영역*

- 교육 영역에서 학생들의 관계 및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호주 및 미국 사례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교 및 교육 관련자들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 특히, 호주의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1) 호주

- Disability Ambassadors in Schools 프로그램(시범 사업)
-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내로 와서 다양한 장애 이슈들에 관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증진시킴
- 이들은 ‘홍보대사’의 성격을 가지는 사람들로서 고용, 스포츠, 예술 등 특정 영역에서 성취를 이루어낸 자들로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youthappropriate’) 사람들로 구성됨

* 학생들의 관계 및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례 출처 : Thompson, D., Fisher, K. R., Purcal, C., Deeming, C., & Sawrikar, P. 의 “Community attitudes to people with disability: scoping project”, (2012).

○ Glen Eira시의 Disability Awareness in Schools 프로젝트

- 이 프로젝트에는 지역사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5,6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 이슈에 대해 토의해보는 활동, 교사를 위한 책자 보급, 핵심 교육 과정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 2007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고되어 2008, 2009, 2010년까지 이어짐

○ 호주 Queensland주의 Just Like Me, Just Like You 프로젝트

-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가정 하에 긍정적 태도 증진에 초점을 맞춘 Disability Awareness Kit를 학교에 제공함
- 키트에는 신체, 지적, 시각 및 청각 장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장애의 원인, 증상, 욕구, 대처 전략, 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함.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 아동들이 읽을만한 문헌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함
- 역할극과 체험 활동(시뮬레이션)과 같은 5가지의 활동(장애에 대해 이해하기, 다름에 대해 공감하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기, 장벽에 대해 확인하기, 변화를 추구하기) 예시들도 제공함
-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수기들이 포함되어 있음

(2) 미국

○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의 웹사이트

-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에 대한 목록들을 제공함

○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Youth의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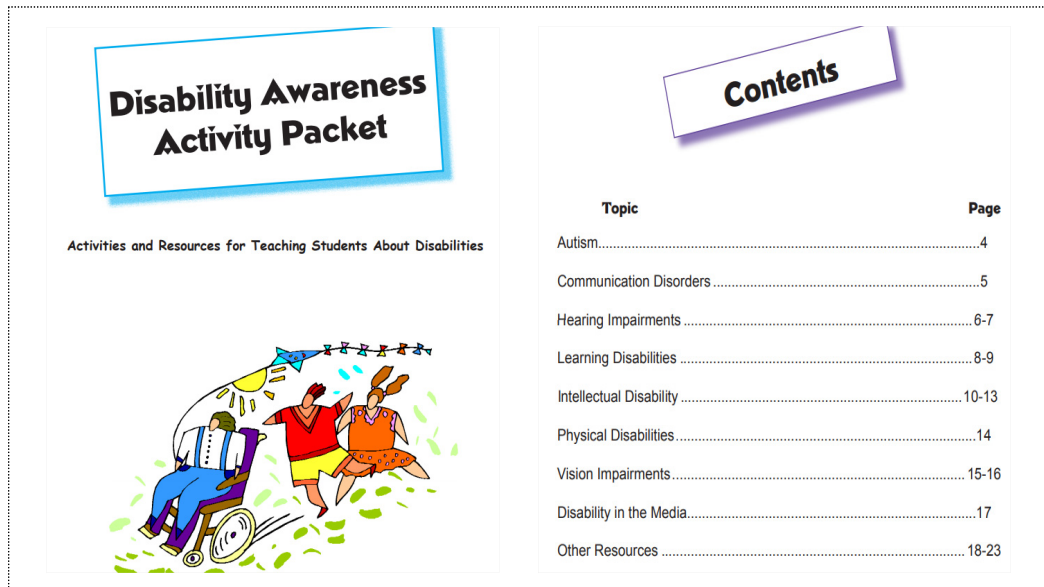
- 장애를 가진 아동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 페이지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 관련 미국 전역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 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음

○ Disability Awareness Activity Packet

-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사들이 사용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담은 소책자임

- 책자에는 자폐, 의사소통 장애, 청각 장애, 학습 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 장애 등 각 장애의 특징과 학생들이 각 장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담겨져 있음(예시: “이 활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활동입니다”).



※ 자료 : Bev Adcock and Michael L. Remus. Disability Awareness Activity Packet, (Possibilities, Inc. 2006).

2) 고용 영역*

- 조직 차원의 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영역은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임. 호주와 기타 국가들에서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들을 세웠으며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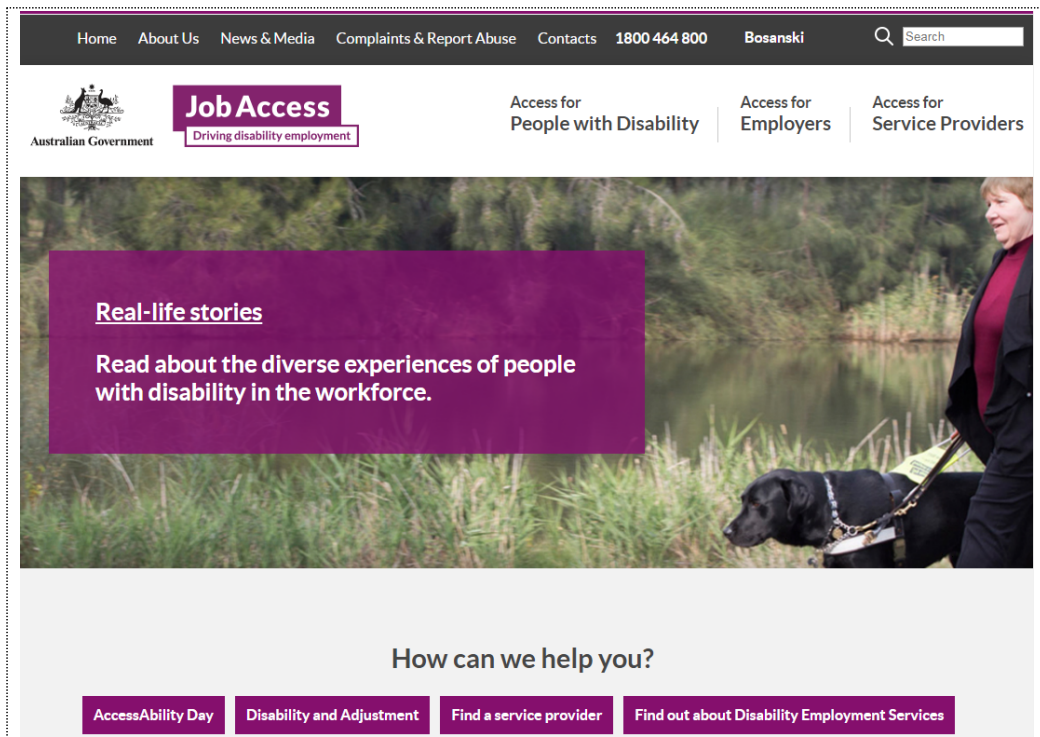
* 고용 영역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례(호주, 미국) : Thompson et al., "Community attitudes to people with disability: scoping project", 2012.

사례(일본) : 남용현 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pp. 1-111.

- 호주와 영국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 비해서 호주의 경우 법적인 장치로 인하여 정부 산하 기관들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개 채용 숫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호주의 정부 정책이 장애인들이 고용을 통해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임
- 호주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서 상담 서비스, 긍정적 사례를 통한 홍보, 훈련 및 환경 개선비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객 혹은 클라이언트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직원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함
- 그 외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 모두 고용주 중심의 인식 개선 훈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실시함

(1) 호주

- Job Access Information Service
 - 호주 정부 주도의 서비스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개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결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들을 제공함
 - ‘고용주’와 ‘장애 고용인’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고용을 가능케 한 긍정적 사례들에 대해 홍보하고, 실제 장애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직업 사례에 대해 소개함
 - 장애 인식 개선 교육비 및 근무 환경 개선비를 지원함



※ 자료 : JobAccess Information Service (<https://www.jobaccess.gov.au/home>) 접속일 2019.10.8.

○ Disability WA

- Disability WA는 장애 인식 개선 훈련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http://www.disability.wa.gov.au>)를 운영함
- 두 가지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패키지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병원, 관광, 소매,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를 위한 패키지임
-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고객서비스의 질, 장애를 가진 고객을 위한 안내, 장애 관련 법 및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점들, 장애를 가진 고객과의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고객 서비스를 위한 팁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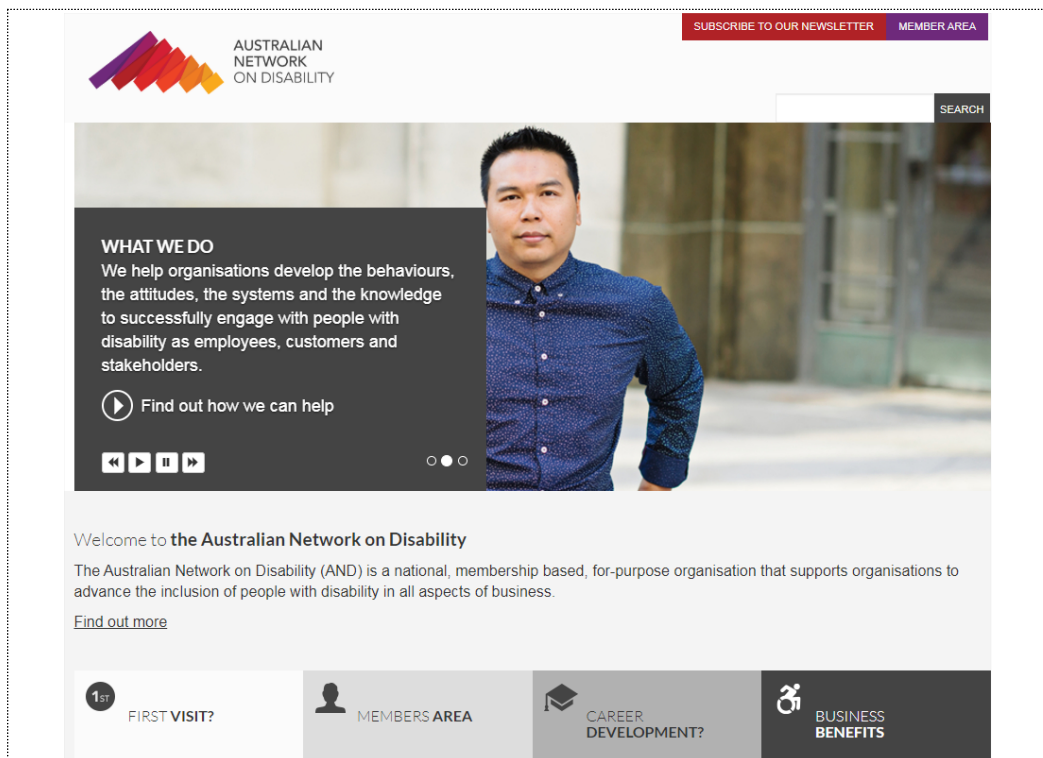
○ SCOPE

- Scope는 호주 빅토리아 지역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써

-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장애 인식 개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훈련된 촉진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임

○ 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AND)

- AND는 호주의 사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으로써 모든 사업 분야에 장애인들이 고용인, 공급자, 소비자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음. 소속 사업체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
- 장애인을 고용하고 고객으로써 환대할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를 개발 운영하고 있음(<https://www.and.org.au>).



※ 자료 : 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 (<https://www.and.org.au>) 접속일 2019.10.10.

(2) 일본

○ ATARIMAE 프로젝트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전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 고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개인의 근로 동기나 능력 부족보다는 기업이나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이해 부족이라고 진단한 결과로 나옴
- 온라인 사이트(<http://www.atarimae.jp>)를 기반으로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구하는 영상 및 메시지('장애인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본을 만들자')를 게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작성 코너, 장애인 고용을 실천 중인 고용주와의 인터뷰 기사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자료 : ATARIMAE PROJECT (<http://www.atarimae.jp>) 접속일 2019.10.8.

(3) 미국

○ Tilting at Windmills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 중심의 훈련 워크숍(그룹 토의 및 참여적 훈련 방식 활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들의 태도 및 편견을 다룸
- 훈련 프로그램에는 고용주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노출시키고 그들의 비위협적인 방식의 부정적인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오해와 편견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법적인 의무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없으나 참여자들은 대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함

3. 개인 차원의 정책들(Personal-level policies)

- 개인 차원의 정책은 일반 대중의 장애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정책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개인 차원의 정책들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과 태도 변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접근 사례를 살펴봄
- 캠페인, 미디어 및 예술 분야에서의 장애에 대한 노출, 사회 접촉 프로그램들이 이 사례에 포함됨

1) 호주

- 정부 주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및 기회 신장,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상(National Disability Awards)을 수여하고 장애인들의 능력과 장애 관련 이슈들에 대해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행사를 지원함

- 이 날, 각 주 및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기획되는데 특히,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Don't DIS my ABILITY')이 진행됨
 - 이 캠페인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영,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사람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도움
- 호주의 공영방송인 ABC는 그들의 프로그램 속에서 장애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나 이미지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예술을 활용함
- 호주의 The Victorian Office for Disability에서 주관한 'Picture This: Increasing the Cultur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a Disability in Victoria'와 같은 프로젝트의 경우 예술 활동에 있어 예술가, 그리고 관객으로써의 장애인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A Victorian Government initiative. *Community consultation report and analysis*, "Picture This: Increasing the Cultur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a Disability in Victoria",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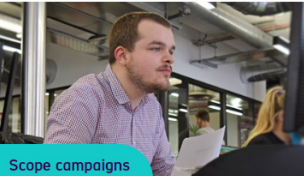
2) 뉴질랜드

- 뉴질랜드 정부 주도의 정책들 중 가장 확장된 형태이면서 성공한 것으로 꼽히는 것은 ‘Like Minds, Like Mine 프로젝트’임
- 이는 정신장애인의 차별 및 낙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방송 및 기타 미디어의 연계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사회 통합적 행동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 및 모니터링,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광고, 직장 내 인식 개선 활동 등 다양한 차원의 활동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있음
(Ministry of Health and Health Promotion Agency, 2014).

3) 영국

- 영국의 경우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들이 시민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함
- 특히, 정부가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고용하고, 각 영역에서 그들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일반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꾀함
- 이에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을 위하여 영국 정부가 어떠한 과정에 놓여 있으며 향후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대처해나갈 것인지 밝히는 로드맵 2025를 발족시켜 대중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Office for Disability Issues, 2019).
- 영국 정부는 ‘Images of Disability’ 캠페인을 실시하여 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보들을 대중에게 알릴 때 사용되는 모든 광고에 장애인 이미지를 삽입하도록 함
- 특히, 이 캠페인에는 영국 정부에서 사용한 장애인 사진 갤러리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용 계획 및 이유를 밝힌 소책자들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

- 민간 차원에서는 영국의 대표적인 장애인을 위한 NGO단체인 SCOPE (<https://www.scope.org.uk>)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음
-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한 연구 조사, 이슈 확산, 개선을 위한 서명활동, 직장 등 사회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행동 및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교재개발 및 배포, 정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로비 활동 등을 진행함
- 장애인들의 투표권 향상을 위한 접근성 향상 캠페인('Polls Apart'),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End the Awkward'),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 조기 개입 시스템 마련 캠페인('Now is the Time'), 장애인 이기에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위한 캠페인('Extra Cost')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p>Scope campaigns</p> <h3>Travel Fair</h3> <p>Join our campaign to make public transport more accessible for disabled people.</p>	 <p>Scope campaigns</p> <h3>Now is the time</h3> <p>We're campaigning to make sure all disabled children get the best possible start in life.</p>	 <p>Scope campaigns</p> <h3>Disability Gamechangers</h3> <p>Are you a Disability Gamechanger? Sign up now and pledge to fight for equality with us.</p>
 <p>Scope campaigns</p> <h3>End the Awkward</h3> <p>Worried about what to say? Not sure how to act? Don't worry, we're here to help.</p>	 <p>Scope campaigns</p> <h3>Extra Costs</h3> <p>From higher bills to expensive equipment, life costs more if you're disabled.</p>	 <p>Scope campaigns</p> <h3>Let's Talk</h3> <p>Together we can make it easier for disabled people to talk about disability at work.</p>

※ 자료 : SCOPE 홈페이지(<https://www.scope.org.uk/campaigns/>) 접속일 2019.10.7.

4)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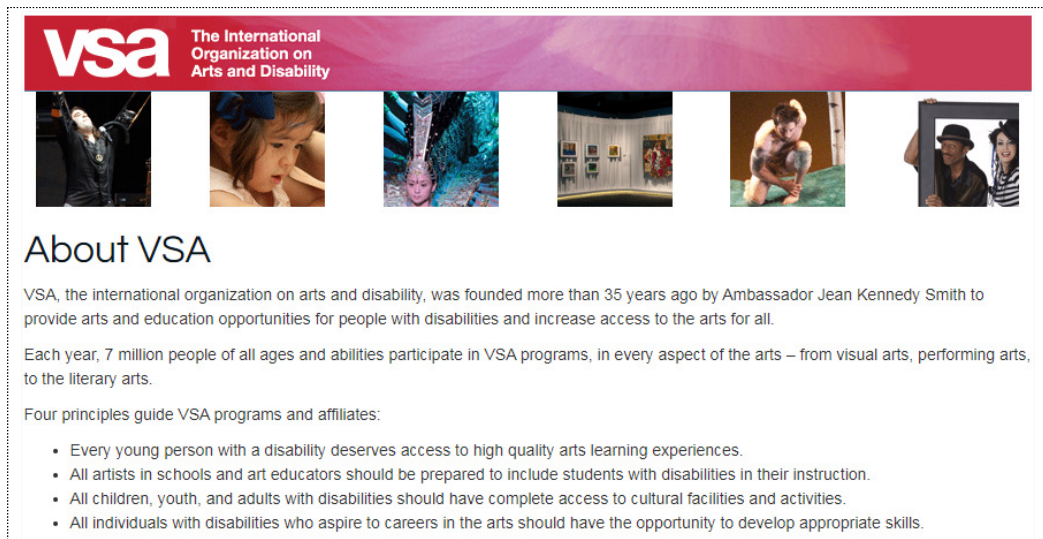
- 미국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DASH(Disability Awareness Starts Here)는 주로 워싱턴 제퍼슨 카운티의 장애인들이 공공장소와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조직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



※ 자료 : DASH 홈페이지(<https://dashproject.org/get-involved/>) 접속일 2019.10.7.

- 예술 분야에서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VSA(Very Special Arts)'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배우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예술 관련자들을 위해 장애에 대한 이해, 그들을 대하는 에티켓, 장애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교육 관련자, 부모 및 예술가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도구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예술가의 성과를 알림으로써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함



※ 자료 : VSA 홈페이지(<http://education.kennedy-center.org/education/vsa/>) 접속일 2019.10.10.

5) 기타 - 사회접촉 프로그램의 효과

- 사회 접촉 프로그램(Social Contact Program)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는 가장 직접적이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에서 실시하는 Paralympic School Day(PSD)도 사회접촉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PSD의 교육적 목표는 교육 활동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라는 장애인 올림픽의 이상과 가치를 통합하는 것임

[표 4-2] Paralympic School Day(PSD) 프로그램의 개요

구분	프로그램 개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올림픽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킴 • 체육 교육과 활동에 있어 통합 교육의 실천적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장애 스포츠의 다른 개념에 대해 알림 • 역통합을 위해 장애 스포츠 사용을 높임 •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촉진시킴 	
고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장애 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 선수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함 • 다양한 활동과 교수법을 적절히 구성하여 인식 개선을 촉진시켜야 함 • 학생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숙고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활동	체험 활동	휠체어 농구, 휠체어 펜싱, 좌식 배구, 골볼(goalball : 시각 장애인들이 세 명씩 팀을 지어 종소리가 나는 공을 굴리며 하는 구기 종목) 등
	토론 주제	사회 통합, 개별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 학교의 접근성 등
	토크콘서트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극복 및 성취 등
	숙고 및 정리	예술로 표현하기, 서로 이야기 나누기, 소감문 작성하기 등



※ 자료 : IPC 공식 홈페이지(<https://www.paralympic.org/the-ipc/paralympic-school-day>), 접속일 2019.10.10.

* <http://www.youtube.com/user/ParalympicSportTV>에서 많은 장애인스포츠 사례를 볼 수 있음

제2절 국내 장애 인식 개선 정책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정책 사례

1) 경기도

(1)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 장애 인식 개선 부분

-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11~2015)’의 지역사회 공감 영역에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가 포함됨
 - 도시군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정비
 -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비장애 학생 및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강사 양성 지원 등)
-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16~2020)’의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부문에 ‘일반학교 교원·학생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됨
 - 일반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확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및 처벌 강화
 -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확대(인권지킴이단의 인식개선 활동 수행 등)

(2) 2017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정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의 발생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구체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 인식 개선교육 실태조사(제6조)
 - 개선교육의 실시 및 장애인강사 우선(제7조)

-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3) 경기도, 장애 인식 개선 사업

○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양성 사업

- 경기도는 2018년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양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 과 일자리 양성을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함

○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

- 관광지 공간 환경 개선 및 이동권 강화(경기여행 누림버스 운행)
- 정보접근체계 구축
- 장애인 등에 대한 관광서비스 및 인식 개선 교육



※ 자료 : 경기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560260061) 접속일 2019.10.8.

2) 서울시*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통합교육 중점학교를 매년 선정하여 운영함(본 장 제3절 ‘국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례’ 참고)

* 자료 :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게시물 내용 재구성(접속일 2019.9.12.)

(1) 2018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 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3조)
- 구체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 인식 개선교육의 실시(제7조)
-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2) 서울시, 장애 인식 개선 사업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서울시는 음악연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인식 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교육 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체에서 인식 개선 강의를 수행하며, 발달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경제활동을 지원함
- ‘장애물 없는 학교생활(BF)’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기존 학교의 편의시설을 사용자 입장에서 적합하게 설치
 -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학교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
 - 장애물 없는 학교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담당 공무원 대상 지속적인 교육 실시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 및 실행
 - 무장애 관광정책 실행 기구이자 서비스 종합지원 기관인 ‘서울다누림관광센터 (<https://www.seouldanurim.net>)’ 개관
 - 관광객 주요방문지 인근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 장애유형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작
 - ‘무장애관광 서비스 및 인식 개선 매뉴얼’ 발간 및 배포

- 장애인인식개선 강연회 개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대규모 강연회를 개최하여 강연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 웹, 모바일 플랫폼 등으로 배포함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청소년 명예 촉진단’ 발족 및 활동 지원
 - 장애인 및 이동약자 편의시설의 이해,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교육
 -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캠페인 실시
 - 편의시설 관련 아이디어·정책 개선 연구(토론·워크숍 등) 공동 참여 지원
 - 연간 활동 우수자를 공모하여 선발, 사례발표회 등 우수활동 사례공모전 실시
- 장애인 생산 제품 전시·판매 ‘착한소비 행복장터’
 - 서울시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참여해 다양한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를 통한 인식 개선



※ 자료 : 서울시. "장애인 생산 제품 전시판매 '착한소비 행복장터' 보도자료", 2019.9.24.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및 장애 인식 개선 체험 지원
 - 시각장애인 축구 경기, 좌식배구·휠체어 컬링 등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기획 및 지원
 - 시책 추진 공무원 및 일반 시민들이 지체·시각·편마비·무장애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기획 및 지원

3) 강남구

(1) 강남구, '2018 장애 인식개선사업 종합계획'

- 서울시 강남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장애 인식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사업기간 : 2018년 3월~12월, 총 소요예산 55,400천원)
 - 비전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인도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의 장애 인식개선 마인드 함양
 -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통한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시설 실무자 장애 인식개선 워크숍
- 초중고 학생 및 구민 대상 인식개선
 - 학교로 찾아가는 인식개선교육 : 강남구 초중고 20개 학급 600명, 시지각협응체험, 장애인작가와의 만남
 - 발달장애인 퀴즈대회 '도전 골든벨' 개최 : 전국 발달장애인 및 교사, 가족 1500명
 - 발달장애인 '도미노게임대회' 개최 : 전국 발달장애 청소년 8팀, 성인 8팀
 - 장애인의 날 기념 인식개선체험행사 : 강남구 거주 장애인 및 구민 1500명
 - 장애인미술작품전시회 개최 및 문화예술 나눔 : 전시 및 장애인작가와의 만남
 - 강남구 연합 인식개선 캠페인 '다른 생각 같은 만남' : 사생대회 및 문화공연 등



※ 자료 : 강남구청(www.gangnam.go.kr), '전국 발달장애인 도미노게임 대회-강남구 뉴스(2018.5.18.)' 영상 캡처, 접속일 2019.9.24.

4. 민간기관의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사업 사례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외’ 의제 사업 - 한국장애인재단 수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대 배분의제(빈곤, 소외, 질병)를 중심으로 기획 사업을 진행함. 이 중 ‘소외’ 의제 사업은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포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이며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이 포함됨
- － ‘소외’ 의제 사업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은 한국장애인재단을 중심으로 3년간 실행 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장애친화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이 주요 사업이며 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함

[표 4-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외’의제 사업 중 장애 인식 개선 사업(한국장애인재단 수행)

구분	사업 내용	
교육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양성을 위한 교재 개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학생용, 성인용 등 대상별 맞춤형 교안 개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장애인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참여 장애 인식 개선 교육
	2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형, 체험형, 토론형, 토크콘서트형, 참여형 교육
	3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형, 체험형, 토론형, 토크콘서트형, 캠페인(참여형 교육 전환)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소시엄 단체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 	
강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및 보수 교육 진행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외’ 의제 사업 중 장애 인식개선 사업 내용(한국장애인재단을 중심으로 3년간 실행됨)

* 김미옥 외. 『배분의제 2-3차년도 성과평가(소외)-장애인의 안전한 삶 지원 사업』, 2018. 발췌, 내용 재구성.

-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1차 년도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교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 양성용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학생, 성인용 등 대상별 맞춤형 교안을 개발함
 - 개발된 교재를 토대로 1차 년도에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교육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함
- 2차 년도부터는 사업 수행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여러 기관과 컨소시엄을 맺고(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 인식 교육 사업을 진행함
 - 교육 사업은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 시켜 강의형, 체험형, 토론형, 토크콘서트형, 참여형으로, 대상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교육을 실시함
 - 강의형 : 강사들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달식 강의
 - 체험형 :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휠체어 럭비 교육 실시
 - 토론형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슈와 관련한 토론 교육 실시
 - 토크콘서트형 :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 및 토크쇼 진행
 - 참여형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VR 체험, 점자 체험 등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실시
- 3차 년도부터는 2차 년도 사업에서 실시해온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되, 참여형 교육을 캠페인 형태로 전환시켜 방송,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일반 대중으로 장애 인식 개선의 효과를 확장시킴
-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에 파견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차 년도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민간 자격증 제도를 재단 차원에서 만들어 자격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강사로 파견함

- 2019년 9월 기준으로, 장애 관련 이론에 대한 필기시험 및 강의 시연에 대한 실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 전형을 실시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강사 양성을 촉진하고 있음
- 3년간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수행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례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사업을 수행한 지역에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아졌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수준이 증가하고, 장애인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포용 정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비교지역보다 크게 나타나 인식 개선 사업의 효과성이 일부 실증됨

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크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인식 개선 교육 대상자의 연령별, 장애 유형별, 일상생활 속에서의 마주하게 되는 상황별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 기관(교육부와외 업무 협약) 및 장애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장애 인식 형성을 증진시킴
- 세부 사업으로 장애 인식개선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영상물제작,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학생 백일장, '대한민국 1교시' 방송제작 및 송출,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이 있음

[표 4-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글짓기 대회를 개최
초등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1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장애이해교육 방송 제작 교수-학습 지도 자료를 함께 개발하여 배포
청소년을 위한 교육 영상물 제작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의 올바른 장애이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각, 청각, 발달, 뇌병변 장애를 주제로 장애 인식개선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 청소년, 교육전문가,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자료 개발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공공기관 장애인 응대 에티켓, 편의시설, 직장 내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에티켓, 장애인고용 등)을 개발하고 보급
비바챔버 앙상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연주자 양성을 위해 창단하였으며,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고 정기연습과 심화연습, 마스터클래스 등 지속적인 연습 및 지역사회에서의 연주 활동을 통해 대중의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



2016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비바 앙상블'

2017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반짝반짝 돌리는'

※ 자료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http://www.wefirst.or.kr>) 사업소개, 접속일 2019.9.15, 웹사이트 게시물 재구성

3) 한국장애인재단

-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의 특징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공모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캠페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장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체계에서의 개입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임

-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장애인 삶의 행복한 변화, 나눔 문화 확산과 가치공유,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공모전, 지역사회 기관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지원, 기부연계사업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기획·지원함

[표 4-5]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장애 인식 개선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C영상, 캠페인송, 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장애 인식 개선 공모전 실시 및 우수작 배포
지역사회 기관의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에서 수행하는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지원함 - 강사 만들기를 통한 장애인 역량강화 및 비장애인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 장애·비장애인 어울림 음악회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장애인인식개선 낭독회 - 장애인직업사례 정보제공 토크쇼 -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공감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기부연계사업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기업 후원을 통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맛있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쿠키를 제작, 판매하며, 수익금의 일부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장애 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 민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강사를 양성, 인식 개선 교육의 질을 높임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원함



< 장애 인식개선공모전 - 포스터 '편견이라는 꽃' >

< 기업·단체 파트너십 - 기부연계사업 >

※ 자료 : 한국장애인재단(<https://www.herbnanum.org>) 접속일 2019.9.15. 웹사이트 게시물 재구성

제3절 국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례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현황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현황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의 교육 이행률은 2016년 19.4%, 2017년 49.1%, 2018년 46.3%로 50%에 미치지 못함

※ 2017년부터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실적이 온라인으로 집계됨(운영:한국장애인개발원)

[표 4-6] 국내 장애 인식 개선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

교육대상	2016			2017			2018		
	대상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대상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대상 기관	이행 기관	이행률
국가기관	2,490	345	13.8	2,449	333	13.6	2,449	1,032	42.1
지방자치단체	3,139	67	2.1	3,763	94	2.5	3,760	202	5.4
어린이집	41,084	4,444	10.8	40,238	24,115	59.9	40,238	20,069	49.9
각급 학교	22,768	8,683	38.1	22,759	9,751	42.8	23,266	11,144	47.9
공공기관	332	29	8.7	330	75	22.7	361	162	44.9
지방공사 및 특수법인	398	18	4.5	404	20	5	398	49	12.3
기타	-	17	-	-	-	-	-	-	-
합계	70,211	13,603	19.4	69,943	34,388	49.1	70,472	32,658	46.3

※ 자료 : 김대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9. p. 5. (원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조직을 모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임. 기타는 민간협회, 센터 등 교육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실적을 제출한 기관임

** 2018년도는 2018.1.14.까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함

2) 장애 인식 개선 교육방법

- 2018년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방법은 내·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51.9%, 원격 교육 28.6%, 기타(체험 및 연수) 19.5% 순으로 이루어짐
- － 최근 3년간 집합교육 비율은 감소하고, 원격교육 및 기타(체험 및 연수)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4-기] 국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방법 현황

(단위 : 회, %)

구분	2016				2017				2018			
	원격 교육	집합교육		기타	원격 교육	집합교육		기타	원격교 육	집합교육		기타
		내부강 사	외부강 사			내부 강사	외부 강사			내부강 사	외부강 사	
국가 기관	96	138	109	2	81	180	130	36	706	518	417	215
지방 자치 단체	19	15	57	-	32	11	61	25	34	25	99	44
어린이 집	1,150	1,803	1,583	503	16,082	16,621	6,671	7,036	18,163	2,904	12,381	5,154
각급 학교	705	7,498	3,478	488	2,090	13,149	6,359	7,215	3,783	15,364	9,448	10,070
공공 기관	18	28	9	-	12	60	37	26	82	49	105	32
지방 공사 및 특수 법인	3	12	10	-	2	3	13	10	85	90	41	37
기타	4	12	2	-	-	-	-	-	-	-	-	-
합계 (회)	1,995	9,506	5,248	993	18,299	30,024	13,271	14,348	22,853	18,950	22,491	15,552
비율 (%)	11.2	53.6	29.6	5.6	24.1	39.5	17.5	18.9	28.6	23.7	28.2	19.5
		83.2				57.0				51.9		

※ 자료 : 김대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9. p. 5. (원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육방법 회수는 분할교육 또는 신규입사자에 대한 수시교육 등이 중복되어 포함된 수치임 / 기타(체험 및 연수 등)

3) 장애 인식 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교육 비교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고용법 상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교육기관 지정, 강사 자격, 미 이행시 제재 규정 등에서 차이를 보임

[표 4-8]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제도 비교

구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
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초·중·고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의 장과 소속직원, 학생	사업주와 근로자 (전국 395만개 사업체, 2,200만 근로자)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및 횟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1년 1회 이상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1년 1회 이상
교육기관	규정 없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중 지정
강사자격	규정 없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제재규정	규정 없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결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 자료 : 김대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9. p. 4. 재구성

2.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례 - 공무원

1)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교육 기초 연구 내용(2008)

- 2008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무원대상 장애 인식 개선교육 기초연구를 수행함. 연구 결과 공무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함
- 교육 대상 :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지, 청장년, 장애인 접촉 경험 유무에 따라 교육 대상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의 나이가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지방 보다는 중앙부처가 장애인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교육 방법 :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되, 장애 체험을 겸한 교육 형태를 준비하는 것이 공무원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 방안임
 - 바람직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횟수는 1년에 한번(58%), 6개월에 한번(22%), 2년에 한번(16.4%)로 나타남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장애체험을 겸한 강의 또는 워크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61.3%)
- 교육 내용 : 공무원들의 장애 인식 개선교육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 유형별 특성 이해 및 소외상황 인지 등과 같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용적인 것이어야 함
 - 교육내용 중 강조되어야 할 분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에티켓(37%),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29%)를 제안함
 - 공무원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이 일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실제로 실행되어야 하는지 알리고 논의하는 형식도 좋음

※ 참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2008). p159.

공무원들은 장애인의 공공장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함

① 장애인의 공공장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과제 :

1순위 대중교통 문제, 2순위 보행자 도로 문제, 3순위 교육시설

② 장애인의 공공건물 접근성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 :

1순위 출입구 개선, 2순위 엘리베이터 설치, 3순위 화장실

“따라서 공무원의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현장 즉,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환경 및 정보, 그리고 대중교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사항들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공무원 자신들의 노력에 따른 실제 시설개선

노력이 동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교육과정 내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기타 : 공무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 인식 개선교육 매뉴얼이 제작되고, 공무원 교육 담당자에게 보급하기를 제안함(※ 참고 :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무원용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 2014.)

2)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교육 사례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로 각 지자체 소속 기관들도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 보통 1~2시간 과정의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외부 강사의 강의 및 동영상 시청으로 구성됨
 - 장애유형별 특성 및 에티켓, 직장 내 차별 금지, 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 등을 다룸

[표 4-9]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교육 사례

구분	교육방법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내용
서울 OO센터 (2019.9.)	집합교육 : 내부강사 강의 및 동영상 시청 (2시간)	- 장애 정의, 장애유형별 특성 - 장애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직장예절, 배려사항 등
서울 OO병원 (2019.8.)	집합교육 : 내부강사 강의 및 동영상 시청 (1시간)	- 장애 분야별 에티켓 및 캠페인 영상 - 유형별 장애인 배려 - 우리가 잘 모르는 내부장애인 이해 등
서울 OO센터 (2019.8.)	집합교육 : 내부강사 강의 및 동영상 시청 (1시간)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및 법령 소개 - 동영상 시청 :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홍보영상자료(굿월스토어)
서울 OO사업소 (2019.8.)	집합교육 : 외부강사 강의 및 동영상 시청 (4시간-인권 및 장애 인식 개선)	- 존엄한 존재로서의 나를 바라본다 - 노동현장이 인권적 환경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지점 찾기 - 우리사회에서 들려지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소리 확인하기 -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 - 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 시청
서울 OO사업소 (2019.8.)	집합교육 : 교육용 홍보영상자료활용 (2시간)	- 우리가 몰랐던 장애 분야별 에티켓 및 캠페인 영상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장애 등) - 장애인의 사회참여 현장 활동 홍보 및 공익광고 영상 (굿월스토어, 네일아트, 농벤져스 등)
서울 OO원 (2019.7.)	집합교육 : 강의식 (1시간)	- 장애의 개념 및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 남의 일이 아님을 인식하기 - 우리나라 장애의 15개 유형 및 함께 일할 때 에티켓 알아보기 - 장애는 인권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에서부터 직장생활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함께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함
서울 OO단 (2018.11.)	집합교육 및 전달 교육	-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
서울 OO구청 (2018.8.)	집합교육 : 외부강사 강의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및 에티켓 -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와 고용사례 등

※ 자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newsearch.seoul.go.kr>) 접속일 2019.9.24.

3.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례 - 학교

1) 장애이해 교육 시범학교(제주 동광초등학교) 사례

- 제주 동광초등학교는 2014년 3월 제주도교육청 지정 ‘장애이해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2년간 운영하였으며, 2014학년도 장애 인식개선 우수학교로 선정됨
 - 2019년 현재 총 41학급 중 특수학급 2학급이 포함됨
-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연 30시간 확보
 - 장애 인식, 장애인 존중 및 수용, 실천적 인식 등과 관련된 학년별 프로그램을 적용
 - 장애이해교육 워크북을 제작하여 장애이해교육활동 기록장으로 활용
 - 장애영역별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성동화 시청 방송 시간 운영
 -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토요 방과후 수화반 운영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체육활동 운영
 - 장애 인식개선 독서행사를 학기별로 1회씩 실시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더불어 숲’ 장애체험장 체험학습 실시
 - 학부모와 함께 하는 장애 인식개선 골든벨 대회 개최
 - ‘책 읽어주는 어머니회’에서 매주 1회, 1학년 학생들에게 장애이해관련 그림책 읽어주기 등
- 지역사회 연계 장애 인식 개선 활동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전교생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 스포츠체험교육 실시
 - 제주장애인야간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는 직접 장애인 강사로부터 생생한 체험위주의 강의를 들으며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는 기회 제공
 - 가족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주말마다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 활동 등



※ 자료 : 강연신. “장애이해 교육활동으로 장애 인식 개선의 꽃을 피워요”, 교육제주, 2015. winter / vol. 168.
(제주 동광초등학교 사례)

2) 통합교육 중점학교(서울 대림중학교) 사례

○ 대림중학교는 2017학년도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됨

- 한 걸음(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 여건 조성), 두 걸음(장애 이해 및 인권 교육), 세 걸음(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활동)에 걸쳐 통합교육을 실시함

○ 한 걸음 -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통합교육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개최 : 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교무행정
부장교사, 통합학급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행정실장으로 구성
- 장애이해 및 인권과 관련한 게시판 설치, 장애이해 도서 비치(총 197권)
- 또래 도우미 활동 : 특수교육대상학생 1명당 - 또래 도우미 자원학생 2명 선정
- 컨설팅장학 실시

○ 두 걸음 -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 장애이해 퀴즈대회 실시(전교생 대상) : 퀴즈대회 전에 장애이해 관련 책자를 배부
하여 사전 학습 후 퀴즈대회에 참여
- 장애 예술단을 통한 공연관람 :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의 '찾아가는 드림콘서트'
- 장애이해 사생대회 개최

○ 세 걸음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활동

- 통합 동아리 활동(통합문화체험반) : 케이크데코레이션, 가죽공예, 천연화장품, 바
리스타, 플로리스트, 파티쉐 등 8차시에 걸쳐 흥미있는 주제로 함께 동아리 활동
- 통합학급 체험학습 : 함께 모여서 대학교 탐방, 연극 관람 등 활동
- 통합 캠프 : 통합캠프 희망학생 대상, 1박 2일 운영
- 장애체험활동

○ 운영상의 어려움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거부로 교육과정 통합 시행이 어려웠고, 통합 방과 후 학교
는 실시하지 못함. 특수교사 1명으로 다른 특수교사와 의논 및 협력 기회 부족

○ 평가

-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 (3월)4.13점 → 통합교육 → (11월)4.24점
-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 (3월)1.87점 → 통합교육 → (11월)1.76점



장애이해 관련 게시판 설치



장애이해 도서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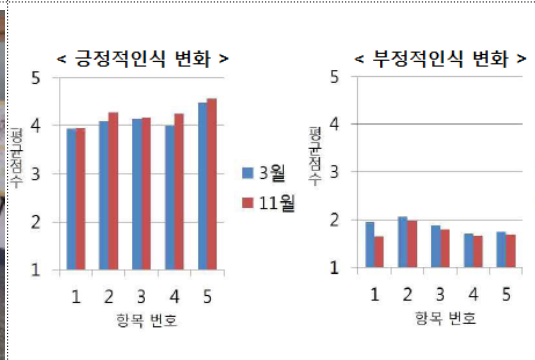
장애이해 퀴즈대회 실시



장애예술단의 공연 관람



장애이해 사생대회



통합학급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 자료 : 서울시교육청, 『2017학년도 통합교육중점학교 운영보고서-대림중학교』, 2018.1. 게시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6778&ctgCd=209>

3) 통합교육 중점학교(서울 계성고등학교) 사례

- 계성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됨
 - 장애 이해 교육,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 체험, 사회적응훈련, 통합동아리, 또래 도우미 활동 등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함
- 비장애학생 대상 - 장애 이해 교육(연 2회, 총 2시간)
 - 1학기(척수장애인 당사자 강의, 시청각실에서 진행)
 - : 장애영역별 이해, 장애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
 - 2학기(강사는 1, 2학년 학생, 담임교사와 협의 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진행)
 - : 특수학급 소개 및 장애영역별 이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이해, 장애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 통합교육 및 통합 교내활동에 대한 안내,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 및 원만하고 동등한 교우 관계 맺기
- 특수교육대상학생 - 이미지메이킹 교육(총 8회, 1회차당 2시간씩 총 16시간)
 - 일반학급 학생들과 성공적인 통합 교육을 위하여 용모, 자세, 예절 등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어필하는 좋은 이미지 만들기,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요소, 직장 생활 예절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일반교사 대상 -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 I,II(연수시간 총 60시간)
 - 장애와 장애인권, 특수교육 관련 법률의 이해
 - 통합교육의 이해, 장애영역과 통합교육
 - 통합학급에서의 교수학습 전략, 문제행동 지도
 - 교수적 수정의 이해와 적용, 교과별 지도방법 및 사례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지도, 성교육, 건강 및 부모상담
- 학부모 대상 - 가정통신문 배부, 특수학급 학부모간담회 실시
 - 학교 설명회, 학부모 총회 안내자료 배부, 장애인의 날 가정통신문 배부 등
-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의 날 행사 - 장애 인식개선교육(전교생 대상 방송교육) 실시
 - 장애인의 날 관련 가정통신문 배부 및 관련 게시물 부착

○ 체험 중심의 다양한 통합교육 활동 운영

- 또래도우미 활동(1년)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의 1:1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도움(급식 보조, 이동 보조, 과제 보조 등)을 지원
- 함께 하는 사회적응훈련(8회기)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학생이 조를 이뤄 함께 사회적응을 위한 여가생활체험, 버스 및 지역사회 식당 이용, 직업체험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교육 실시)
- 통합동아리 활동(15회기)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의 1:1 비율로 바리스타 동아리 운영. 또래 교수를 통해 학교 적응과 진로 체험 등 상호보완적인 활동 진행.
- 함께하는 카페 ‘마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11명이 요일별 조를 나누어 카페를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료 판매 활동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장 형성
- 소규모 방과후 학교 및 원데이클래스(28회기) :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체험 등 활동 중심 수업을 개설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활동을 하며 교류할 수 있게 함
- 1:1 학습 도우미 활동(주1회) :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또래 교수(비장애학생)를 통해서 부족한 교과 내용 학습(1:1 매칭). 활동이 진행되면서 스스로 잘못 쓰이고 있는 장애 관련 용어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학년별 게시판에 부착하고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도 실시함

○ 자체 평가

-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통합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통합교육의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체험 활동이 비장애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도움이 됨
-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특수학급 학생들이 도와줘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같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등 일반 학생들의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음



함께 하는 카페 '마루' 운영



함께 하는 사회적응훈련



특수교육대상학생 이미지메이킹 교육



비장애학생대상 장애이해 교육



장애인의 날 행사 가정통신문

시간	활동 내용
1시간	동아리 활동 반 조사 및 편성
2시간	동아리 활동 소개 및 활동 계획 작성
2시간	커피의 역사 및 이론적 배경
2시간	에스프레소 머신 작동 방법 및 도구 이해하기
2시간	그라인더 작동 방법 이해하기
2시간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1
2시간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2
2시간	우유 스티밍 연습하기 1
2시간	카메라페 및 카푸치노 만들기 2
2시간	카라페 마끼야도 만들기
7시간	카페 '마루' 운영하기
1시간	총현제 평가하기
2시간	활동 소감 나눔 및 크리스마스 기념 음료 개발하기

통합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 자료 : 서울시교육청, 『2017학년도 통합교육중점학교 운영보고서-계성고등학교』, 2018.1. 게시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6778&ctgCd=209>

제 5 장

고양시 성인 및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실태

제1절 고양시 성인의 장애 인식 조사 방법

제2절 고양시 성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분석

제3절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조사 방법

제4절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분석

제절 고양시 성인의 장애 인식 조사 방법

- 고양시민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양시내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설문조사 개요

- 표본 설계
 - 성별 : 남자, 여자
 - 연령별 : 18-39세, 40-64세, 65세 이상
 - 지역별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 표본 추출 : 각 권역에 해당하는 총 39개동을 인구순으로 정렬한 후, k번째 동을 추출하는 계통 추출법을 적용하여, 조사대상 동을 추출함(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탄현동 지역은 가중 할당함)

○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고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 조사방법 : 전문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9. 7. 11 ~ 2019. 7. 22 (12일간)

○ 가중치 처리

- 분석 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석될 수 있도록 사후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함

- 가중치는 인구수가 아닌, 인구 구성비로 적용함

$$wt = \frac{n_{hsa}}{N_{hsa}}$$

<i>wt</i>	최종 가중치
<i>N</i>	모집단의 인구비율
<i>n</i>	표본 구성비
<i>h</i>	지역(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i>s</i>	성별(남성, 여성)
<i>a</i>	연령대(18-39세, 40-64세, 65세 이상)

2. 설문 응답자 현황

○ ‘고양시 성인의 장애 인식 실태조사(2019.7.11.~7.22.)’ 설문 응답자는 총 620명임

[표 5-1] 고양시 성인 -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전체		620	100.0	가족/친척 중 장애인 여부	장애인 있음	158	25.5
성별	남성	307	49.5		장애인 없음	462	74.5
	여성	313	50.5	직장/학교 내 장애인 여부	장애인 있음	117	18.9
연령별	18~39세	256	41.3		장애인 없음	324	52.3
	40~64세	203	32.7		해당없음(무직)	179	28.9
	65세 이상	161	26.0	장애인관련기관 봉사활동 경험	경험있음	226	36.5
구별	덕양구	317	51.2		경험없음	394	63.5
	일산동구	150	24.2				
	일산서구	153	24.7				

* 덕양구는 덕양남부(156명)와 덕양북부(161명)로 구분하여 조사함

제2절 고양시 성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분석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1) 장애인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 정도

- 고양시 성인은 장애인에 대해 ‘불쌍한’, ‘외로운’, ‘불행한’, ‘슬픈’, ‘허약한’ 이미지를 떠올린 시민이 상대적으로 많음
- 설문응답자의 10% 이상이 체크한 이미지 중 긍정적 이미지는 ‘친근한’ 이미지로 나타남

[표 5-2] 고양시 성인 -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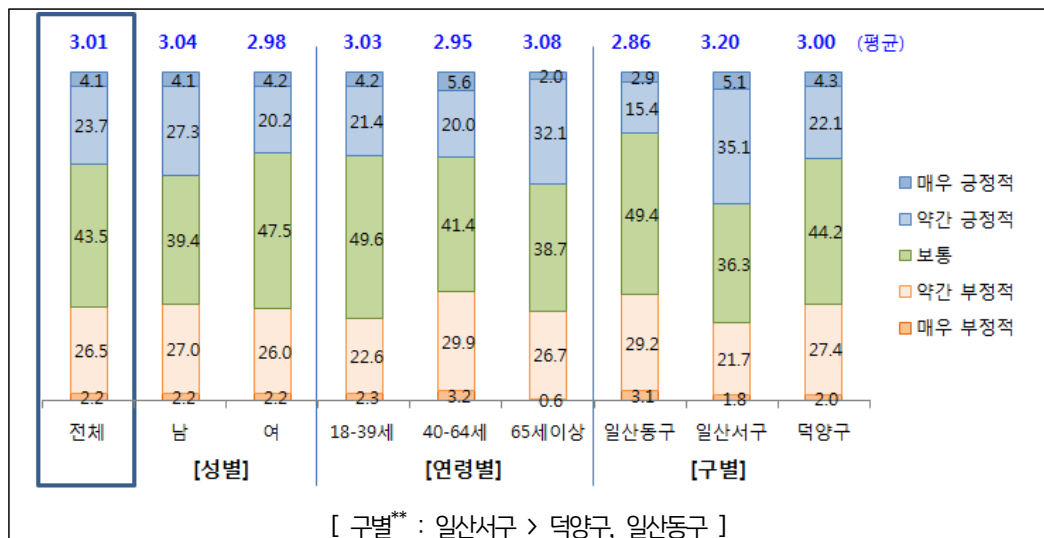
형용사 이미지	체크 수(명)	비율(%)	형용사 이미지	체크 수(명)	비율(%)
불쌍한	279	45.0	남을 잘 돕는	27	4.4
외로운	220	35.5	부주의한	26	4.2
불행한	204	32.9	머리가 좋은	23	3.7
슬픈	187	30.2	발랄한	18	2.9
허약한	143	23.1	꼼꼼한	18	2.9
친근한	84	13.5	영리한	17	2.7
고집스러운	82	13.2	게으른	17	2.7
둔한	76	12.3	즐거운	16	2.6
씩씩한	50	8.1	창피한	12	1.9
행복한	45	7.3	건강한	10	1.6
친절한	42	6.8	못생긴	9	1.5
솔직한	42	6.8	단정한	9	1.5
바보스러운	30	4.8	민첩한	6	1.0
지저분한	28	4.5	깨끗한	5	0.8
이기적인	28	4.5	잘생긴	3	0.5

※ 형용사 척도 : Siperstein(1908)의 척도를 국내 연구자가 변안하여 사용한 것을 재구성하여 사용함
 장애인에 대해 좋거나 싫음으로 표현하는 감정, 신체적 외모, 사회적 행동 등을 표현하는 3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형용사 15개와 부정적 형용사 15개가 반씩 포함되어 있음

- ‘내 주위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느낍니까?’라는 문항에 보통이 43.5%로 가장 많고, 긍정적 27.8%, 부정적 28.7%로 비슷하게 나타남
- 이는 구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일산서구의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 주위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31.4%)이 여성(24.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47.5%)이 남성(39.4%)보다 높게 나타남
- 구별 : 일산서구 주민은 긍정적 인식(40.1%)을 갖고 있다는 비율이 부정적 인식(23.6%)을 갖고 있다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일산동구 주민은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32.3%)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긍정적 인식(18.3%)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5-1] 고양시 성인 - 주위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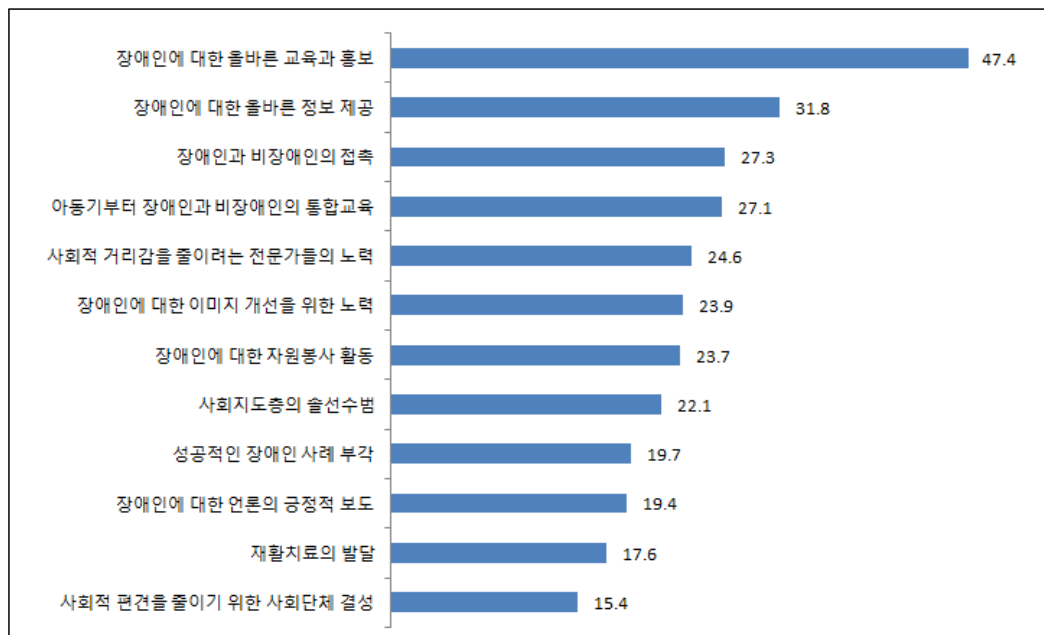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및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높게 나타남.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경험 및 통합 교육도 긍정적 인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47.4%,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3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27.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27.1%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고양시 성인 - 장애인 긍정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단위 : %)



3)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결여’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언론 및 TV 프로그램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결여 33.6%,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관습 29.0%,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 28.4%, 장애인을 흉내 내는 코미디 연기 23.9%, 장애인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 사건의 뉴스나 기사 23.7%, 장애인을 나쁘게 표현하는 드라마나 영화 2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 고양시 성인 - 장애인 부정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단위 : %)



4) 장애 수용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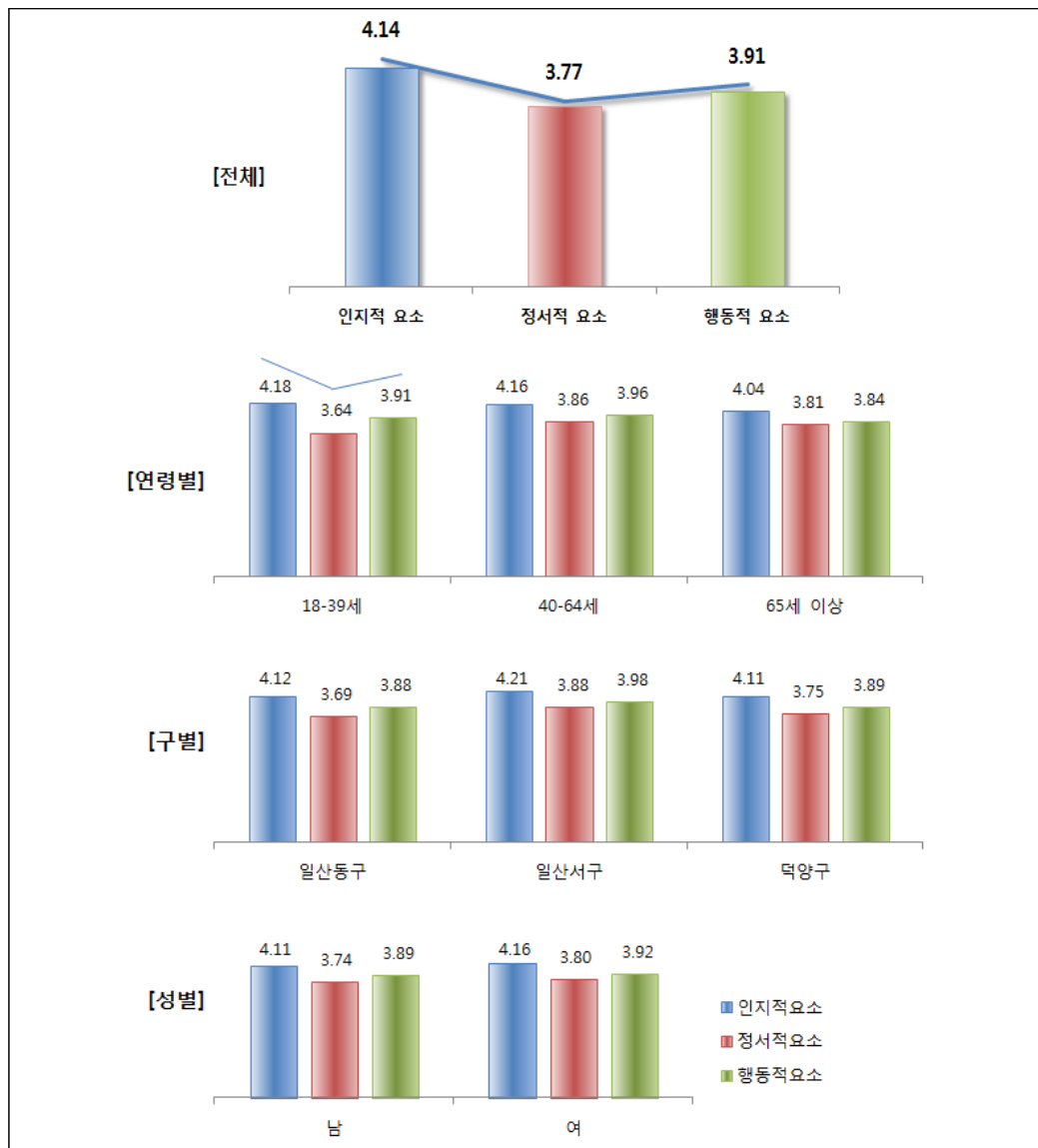
- 고양시 성인의 장애 수용 태도를 살펴보면 인지적 요소 4.14점, 정서적 요소 3.77점, 행동적 요소 3.91점으로 인지적 요소가 정서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고양시민들이 장애에 대해 인식하여 알고는 있으나 장애에 대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감정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소 거

리가 있음을 의미함

- 청년층은 인지적요소(4.18점), 정서적요소(3.64점), 행동적요소(3.91점)의 격차가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그림 5-4]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종합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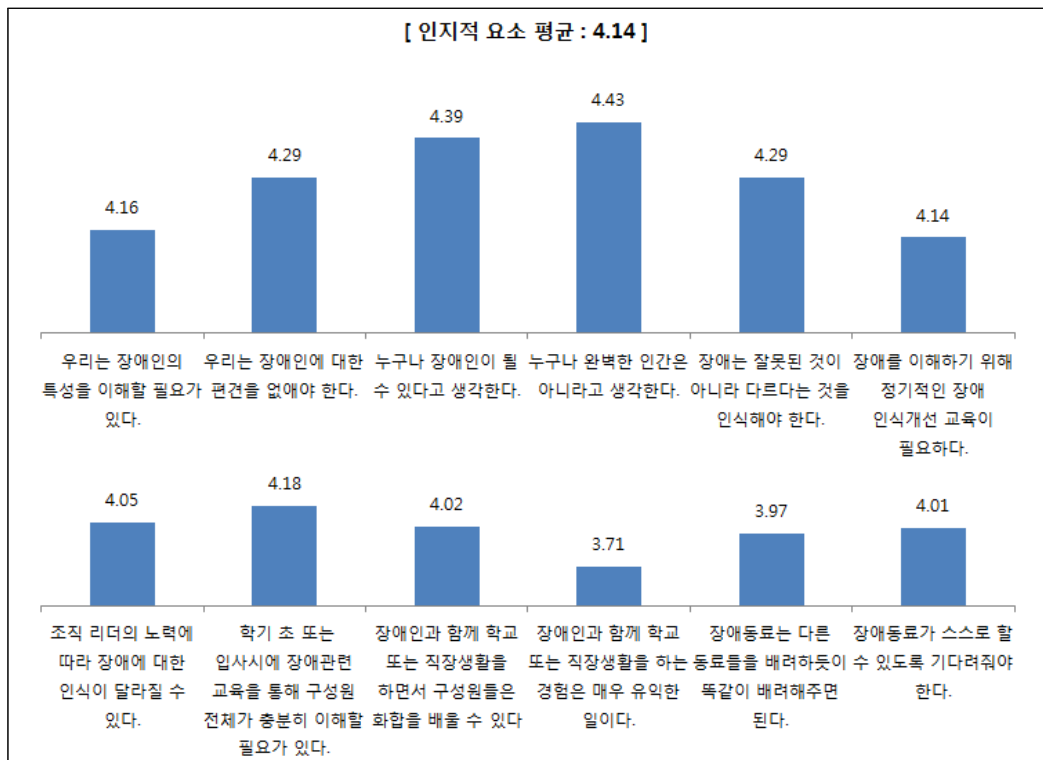
(단위 : 점)



- 인지적 요소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4.43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4.39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4.29점), ‘장애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4.29점)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과 함께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항목은 3.71점으로 인지적요소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 청년층 4.55 > 중장년 4.35 > 노년층 4.22
 -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다 : 청년층 4.59 > 중장년 4.44 > 노년층 4.19
 - 장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 : 청년층 4.41, 중장년 4.32 > 노년층 4.11
 - 학기초 또는 입사시 장애관련교육 필요 : 청년 4.27, 중장년 4.20 > 노년 4.03

[그림 5-5]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인지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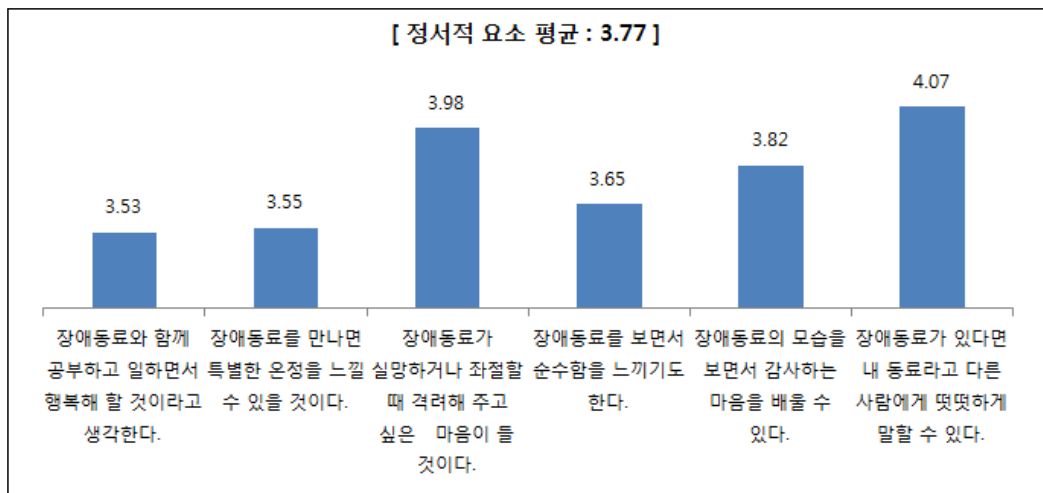
(단위 : 점)



- 정서적 요소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동료를 내 동료라고 다른 사람에게
뽕뽕하게 말할 수 있다’(4.07점), ‘장애동료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3.98점), ‘장애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3.82점) 순으로 나타남
- 장애동료에게 특별한 온정을 느낀다 : 노년층 3.70, 중장년 3.64 > 청년 3.36
- 장애동료에게 순수함을 느끼기도 한다 : 중장년 3.77, 노년 3.70 > 청년 3.49
- 장애동료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다 : 노년 3.96, 중장년 3.94 > 청년 3.58

[그림 5-6]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정서적 요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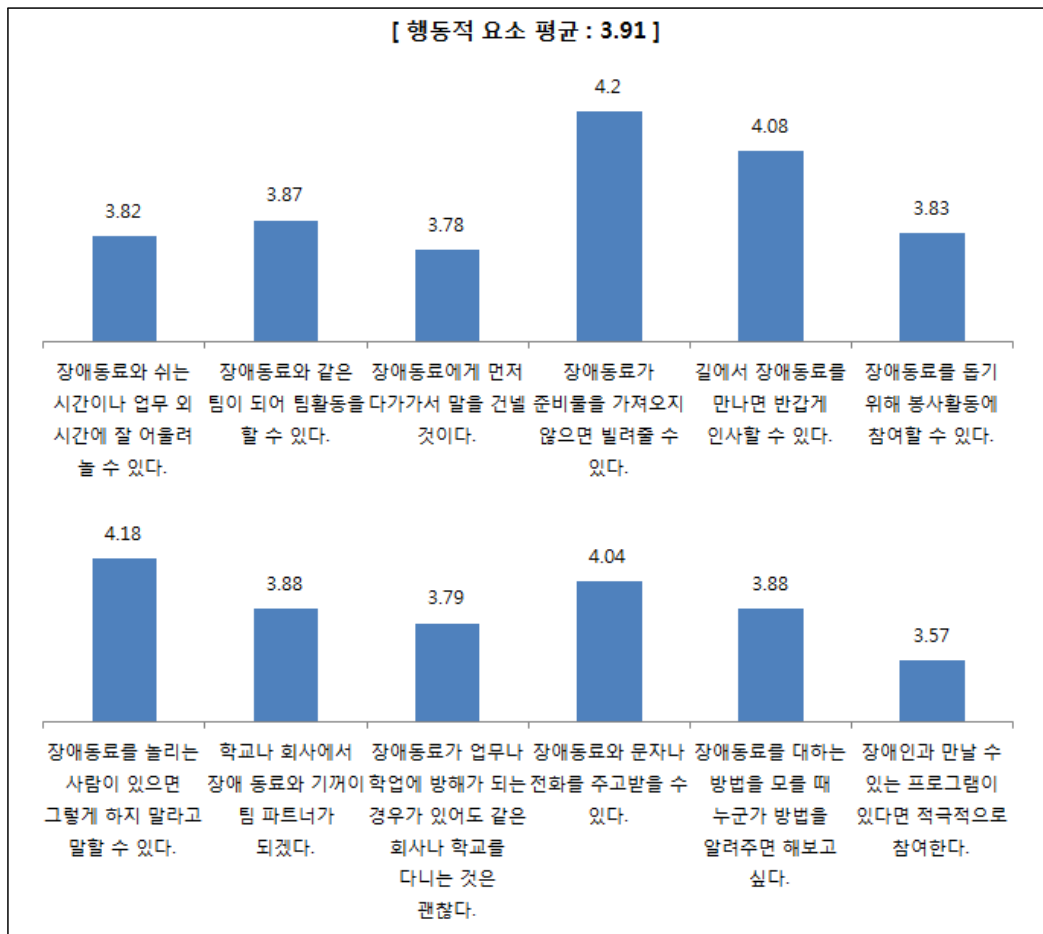


- 행동적 요소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동료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빌려줄 수 있다’(4.20점), ‘장애동료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4.18점), ‘길에서 장애동료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4.08점), ‘장애동료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4.04점)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장애인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3.5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장애동료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 중장년 3.90, 노년층 3.83 > 청년층 3.61
-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 노년 3.67, 중장년 3.64 > 청년 3.43
- 장애동료에게 준비물을 빌려줄 수 있다 : 청년 4.31, 중장년 4.20 > 노년 4.05
- 길에서 장애동료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 청년 4.17, 중장년 4.10 > 노년 3.91
- 놀리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 청년 4.29, 중장년 4.20 > 노년 4.00
- 장애동료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다 : 청년 4.14, 중장년 4.06 > 노년 3.90

[그림 5-7]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행동적 요소)

(단위 : 점)



[표 5-3] 고양시 성인 - 장애 수용 태도(세부 항목)

(단위 : 점)

구분		청년 18~39세	중장년 40~64세	노년 65세이상	비고
인 지 적 요 소	우리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17	4.14	4.17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4.37	4.28	4.19	**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55	4.35	4.22	***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59	4.44	4.19	***
	장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41	4.32	4.11	***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4.2	4.17	4.04	
	조직 리더의 노력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4.11	4.04	3.97	
	학교 혹은 직장에 장애동료가 있다면 학기 초 또는 입사시에 장애인 관련 교육을 통해 구성원 전체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4.27	4.20	4.02	**
	장애인과 함께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구성원들은 화합을 배울 수 있다.	4.03	4.09	3.91	
	장애인과 함께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3.63	3.82	3.69	*
정 서 적 요 소	장애동료는 다른 동료들을 배려하듯이 똑같이 배려해주면 된다.	3.89	4.06	3.94	*
	장애동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3.99	4.04	3.98	
	장애동료와 함께 공부하고 일하면서 행복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43	3.64	3.50	*
	장애동료를 만나면 특별한 온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36	3.64	3.70	***
	장애동료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3.88	4.06	4.01	*
	장애동료를 보면서 순수함을 느끼기도 한다.	3.49	3.77	3.7	**
행 동 적 요 소	장애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3.58	3.94	3.96	***
	장애동료가 있다면 내 동료라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4.14	4.09	3.96	*
	장애동료와 쉬는 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 잘 어울려 놀 수 있다.	3.82	3.86	3.77	
	장애동료와 같은 팀이 되어 팀 활동을 할 수 있다.	3.87	3.96	3.75	*
	장애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넬 것이다.	3.61	3.9	3.83	**
	장애동료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빌려줄 수 있다.	4.31	4.2	4.05	***
	길에서 장애동료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	4.17	4.1	3.91	**
	장애동료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89	3.89	3.69	*
	장애동료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4.29	4.20	4.00	***
	학교나 회사에서 장애 동료와 가까이 팀 파트너가 되겠다.	3.88	3.93	3.80	
	장애동료가 업무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같은 회사나 학교를 다니는 것은 괜찮다.	3.70	3.88	3.80	
	장애동료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4.14	4.06	3.90	**
	장애동료를 대하는 방법을 모를 때 누군가 방법을 알려주면 해보고 싶다.	3.86	3.95	3.83	
	장애인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43	3.64	3.67	**

※ 비고(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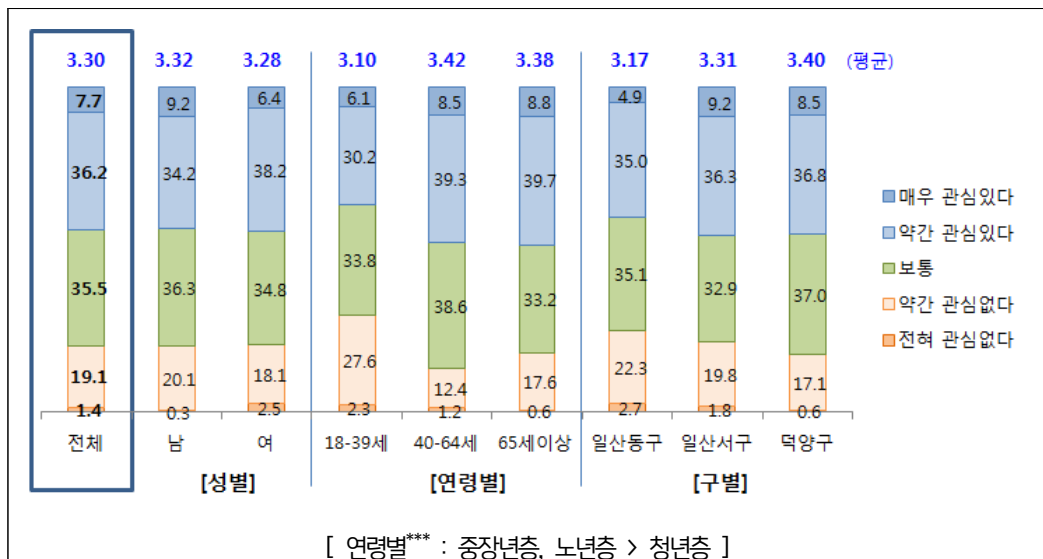
2. 장애인에 대한 관심 및 사회 통합

1) 장애인에 대한 관심

- 고양시 성인의 44.0% 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5%는 보통, 20.5%는 관심 없다고 응답함
-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18~39세 청년층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36.3%)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약 30%는 관심 없다고 응답함

[그림 5-8] 고양시 성인 -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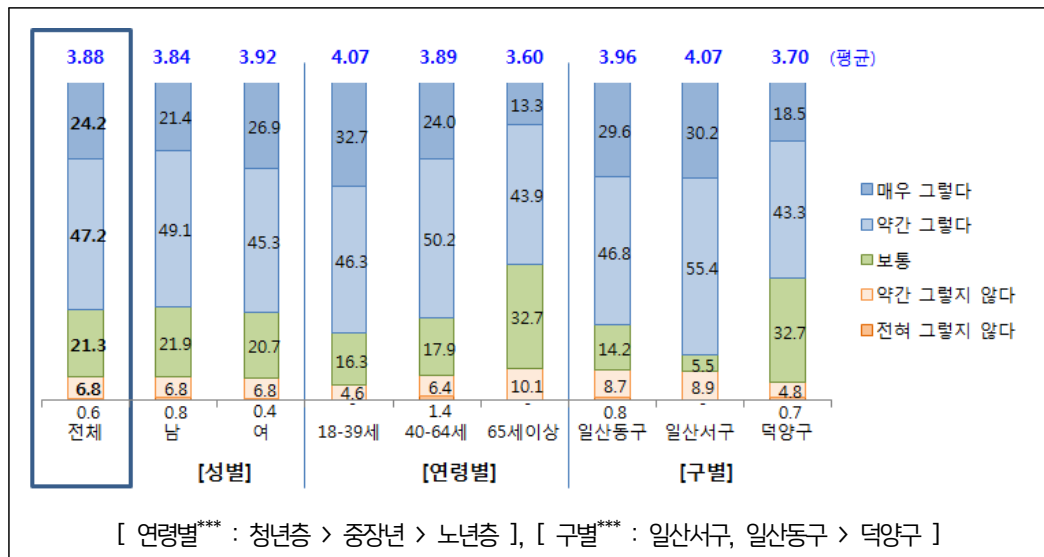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고양시 성인의 71.4%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연령별, 구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 장애인이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7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57.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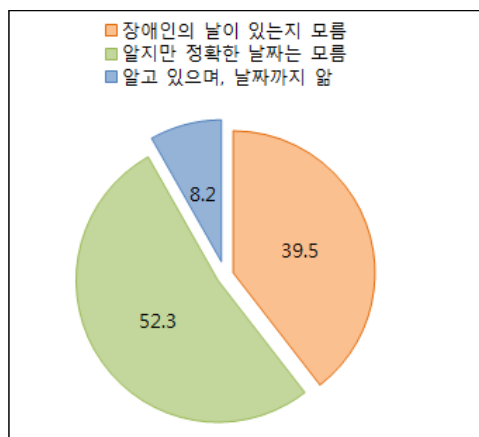
- － 구별로 보면 일산서구는 장애인이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85.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덕양구는 6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5-9] 고양시 성인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점,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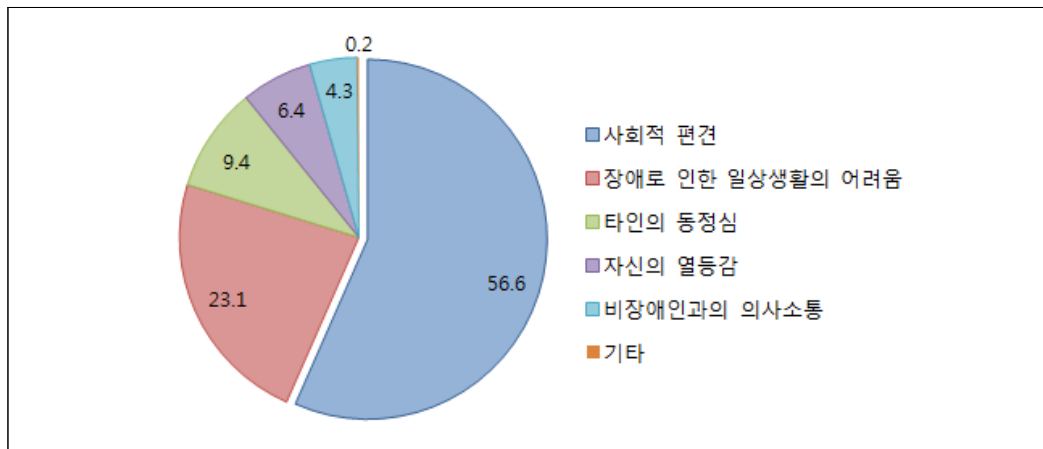
[그림 5-10] 고양시 성인 - 장애인의 날 인지 여부
(단위 : %)

- 고양시 성인 중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39.5%로 나타남
- －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경우가 52.3%임
- －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과 정확한 날짜(4월 20일)까지 아는 경우는 8.2%로 나타남

- 고양시 성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응답(56.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23.1%, 타인의 동정심 9.4%, 자신의 열등감 6.4%,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 4.3%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1] 고양시 성인 -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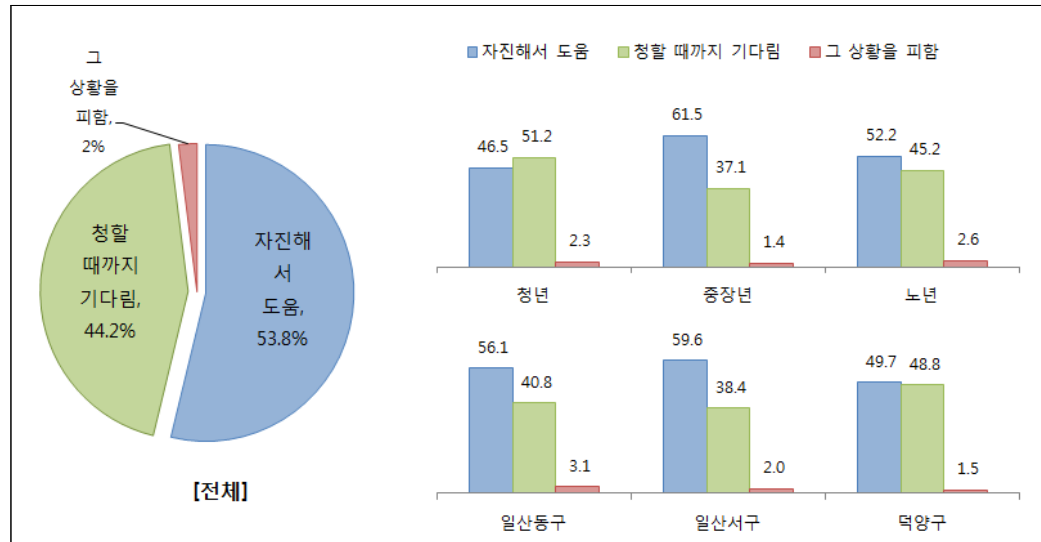
(단위 : %)



-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진해서 돕겠다는 응답은 53.8%,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응답은 44.2%, 그 상황을 피할 것 같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남
- 중장년층은 자진해서 돕겠다는 응답(61.5%)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년층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응답(51.2%)이 자진해서 돕겠다는 응답(46.5%)보다 높게 나타남. 노년층은 자진해서 돕겠다 52.2%,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45.2%로 나타남
- 일산동구는 자진해서 도움 56.1%,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림 40.8%로 나타났으며, 일산서구는 자진해서 도움 59.6%,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림 38.4%로 나타남. 덕양구는 자진해서 도움(49.7%)과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림(48.8%)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그림 5-12] 고양시 성인 -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대응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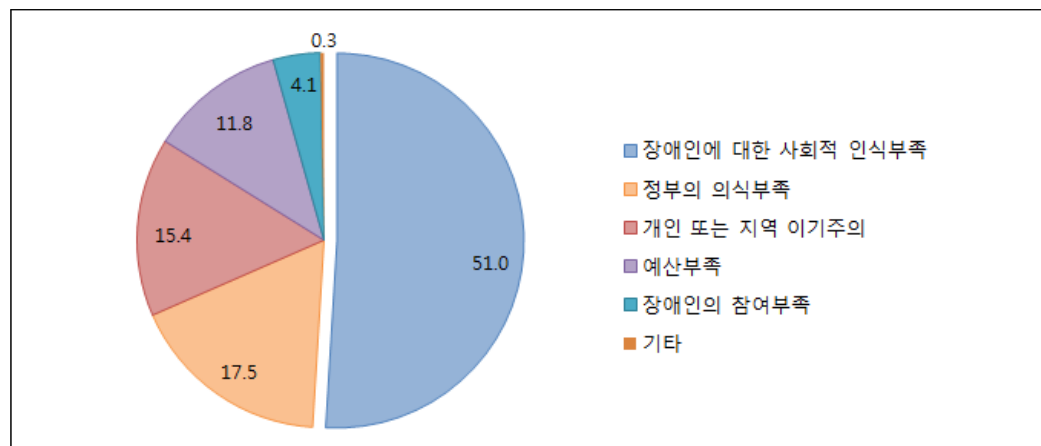
(단위 : %)



- 장애인 복지제도가 미흡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정부의 의식 부족 17.5%, 개인 또는 지역 이기주의 15.4%, 예산부족 11.8%, 장애인의 참여 부족 4.1%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3] 고양시 성인 - 장애인 복지제도가 미흡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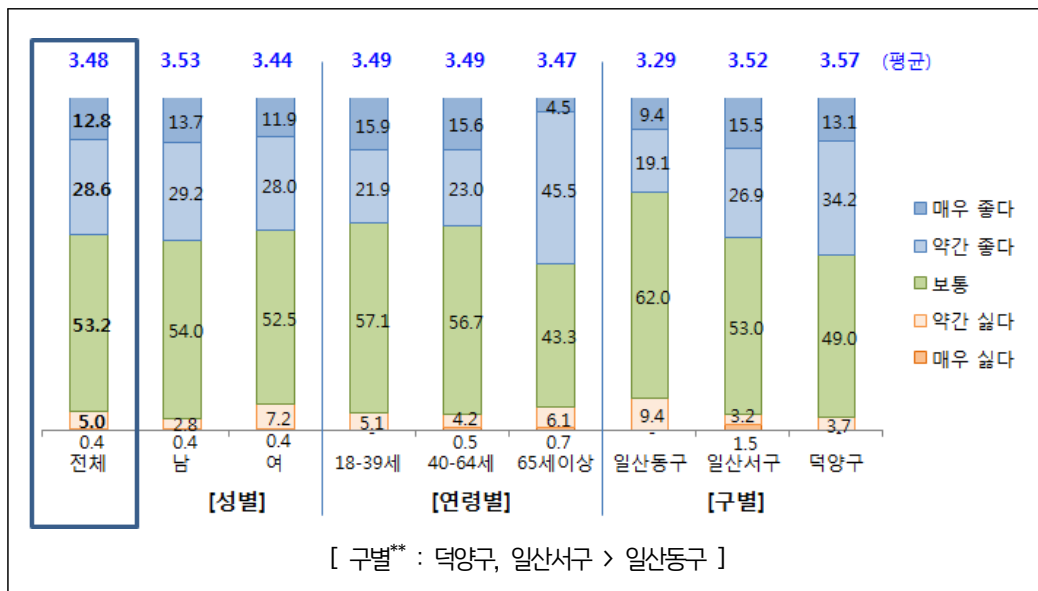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

- 자신의 자녀나 손자녀가 장애인과 함께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고양시 성인의 41.4%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53.2%는 보통으로 응답함. 싫다는 응답은 5.4%임
- 이는 구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일산동구는 자녀의 장애인 통합 교육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2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일산서구는 긍정응답 비율이 42.3%, 덕양구는 47.3%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의 긍정응답 비율이 50.0%로 청년층(37.9%)이나 중장년층(3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14] 고양시 성인 - 자녀, 손자녀의 장애인 통합 교육에 대한 생각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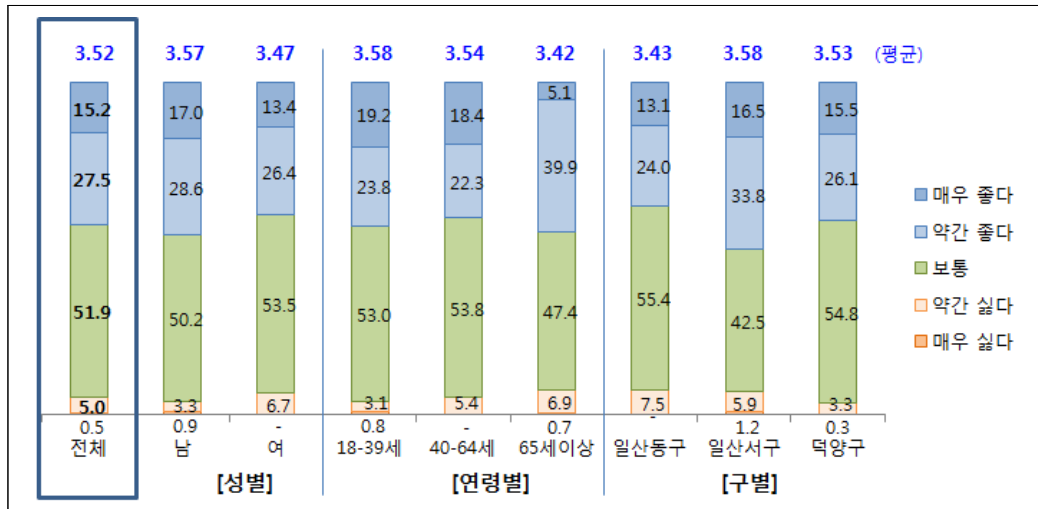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자신이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 성인의 42.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51.9%는 보통, 5.5%는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자녀 및 손자녀의 통합교육에 대한 응답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그림 5-15] 고양시 성인 -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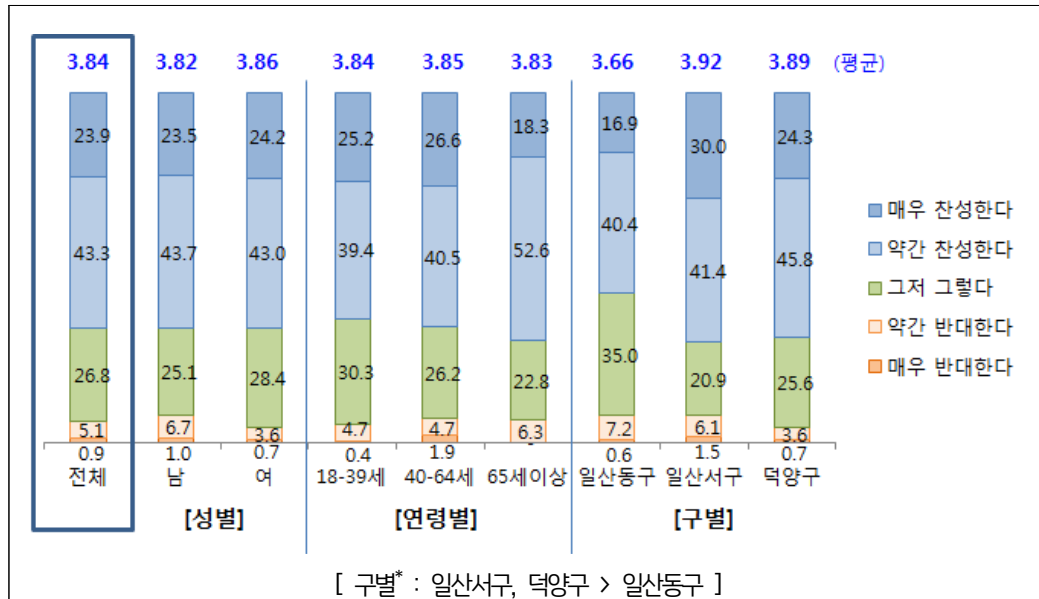
(단위 : 점, %)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양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고양시 성인의 67.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26.8%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6.0%는 반대한다고 응답함
- 이는 구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일산동구는 찬성한다는 비율(57.3%)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일산서구는 71.4%, 덕양구는 70.1%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 덕양구는 남부와 북부 생활권역 간에도 차이가 나타남. 덕양남부는 62.9%, 덕양북부는 77.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덕양북부 지역의 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반대한다고 응답한 경우(사례수 38개)는 적지만 반대하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더 높여줄 것’(4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다음으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고양시 일반 시민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줌’(26.5%), ‘서비스의 의도는 좋지만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돌봄 자원이 부족함’(15.1%),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 클 것임’(11.3%)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6] 고양시 성인 -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내 거주) 의견

(단위 :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3.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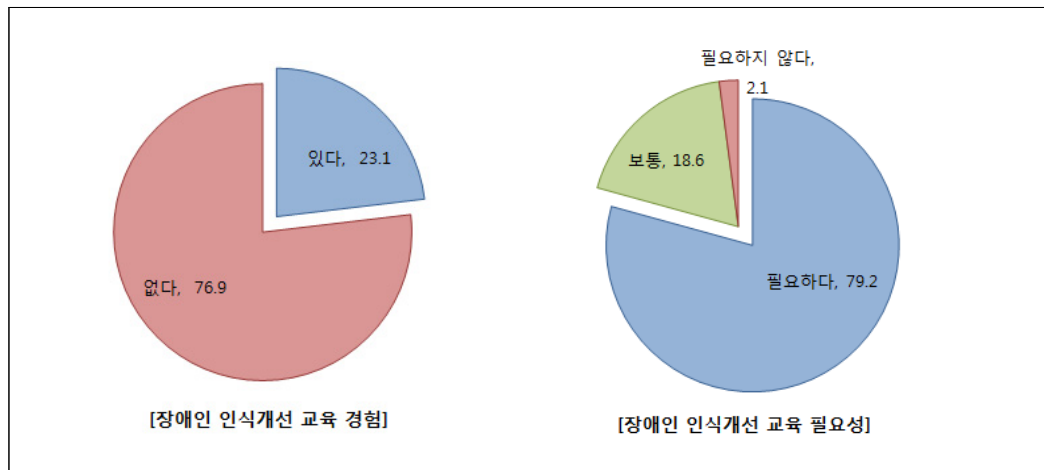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고양시 성인의 23.1%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76.9%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교육경험이 있는 초중고생(74.8%)과 대조되는 수치임
- － 이는 성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부분이 직장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 －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남성 : 있다 25.8%, 없다 74.2% / 여성 : 있다 20.5%, 없다 79.5%)
- －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청년 : 유 28.5%, 무 71.5% / 중장년 : 유 29.3%, 무 70.7% / 노년 : 유 7.0%, 무 93.0%)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9.2%이며, 18.6%는 보통, 2.1%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65세 이상 노년층은 72.5%로 다른 연령층(청년 83.2%, 중장년 8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5-17] 고양시 성인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경험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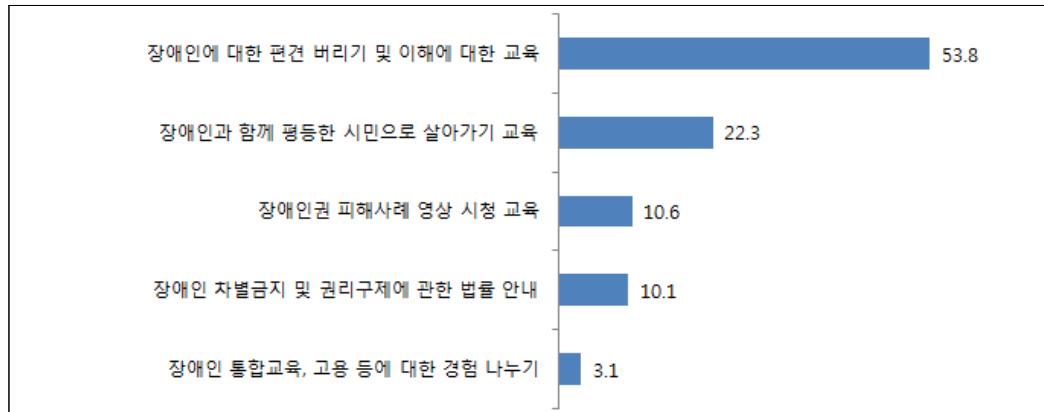
(단위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바람직한 횟수에 대해 1년에 한번(55.7%), 6개월에 한번(30.9%), 2년에 한번(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3.4%는 필요 없다고 응답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경험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53.8%)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리기 및 이해에 대한 교육’이 가장 유익했다고 응답함
- － 이어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교육’(22.3%), ‘장애 인권 피해 사례 영상 시청 교육’(10.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안내 교육’(10.1%), ‘장애인 통합 교육, 고용 등에 대한 경험 나누기’(3.1%)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8] 고양시 성인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중 유익한 내용

(단위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체험식 교육방법(46.6%)으로 나타남. 참여식 23.3%, 강의식 19.3%, 온라인 교육 10.0%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년층은 과반수가 체험식 교육방법을 선호하고 강의식 교육의 선호 비율(13.7%)이 낮게 나타난 반면, 노년층은 체험식 교육방법(39.6%) 다음으로 강의식 교육방법(29.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4] 고양시 성인 - 선호하는 교육 방법

(단위 : %)

구분		체험식 교육	참여식 교육	강의식 교육	온라인 교육
전체		46.6	23.3	19.3	10.0
성별	남성	44.6	24.0	18.6	12.1
	여성	48.5	22.6	19.9	7.9
연령별	18~39세	50.1	23.2	13.7	11.4
	40~64세	48.2	21.8	17.5	11.6
	65세 이상	39.6	25.6	29.2	5.6
구별	덕양구	45.6	23.3	20.8	9.3
	일산동구	50.9	17.1	17.3	12.8
	일산서구	44.1	29.4	18.2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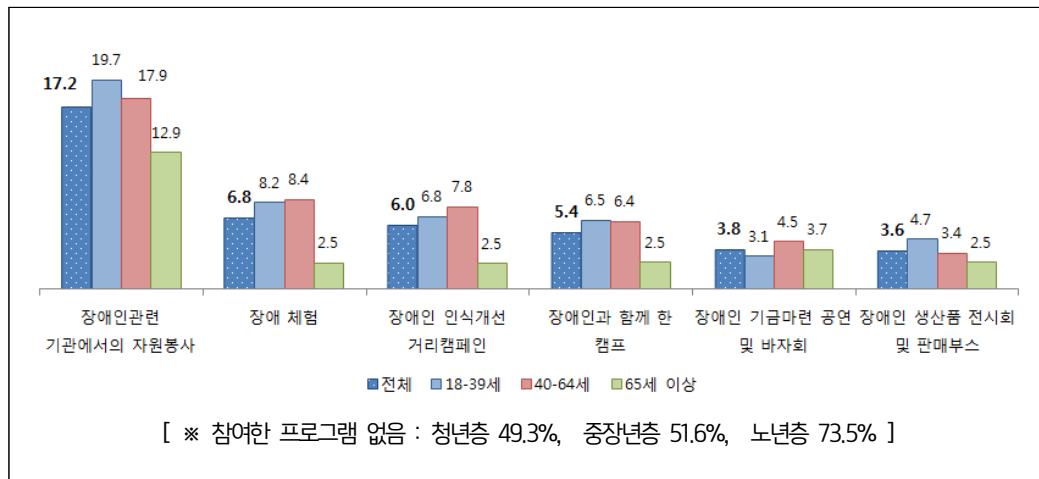
* 체험식 교육(예 : 휠체어 체험,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장애인 체험 및 이해), 참여식 교육(예 : 장애인이 접하는 상황 역할극 및 집단 토의에 참여), 강의식 교육(예 : 강사가 앞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강의), 온라인 교육(예 :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보고 학습)

2)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17.2%)가 가장 높게 나타남(모든 연령층). 이어서 장애체험 6.8%,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6.0%, 장애인과 함께 한 캠프 5.4%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년층은 전반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률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남(참여 비율 자체가 낮음)
- ※ 참여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률이 56.6%로 가장 높음. 청년층은 49.3%, 중장년층은 51.6%, 노년층은 73.5%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함

[그림 5-19] 고양시 성인 - 도움이 되었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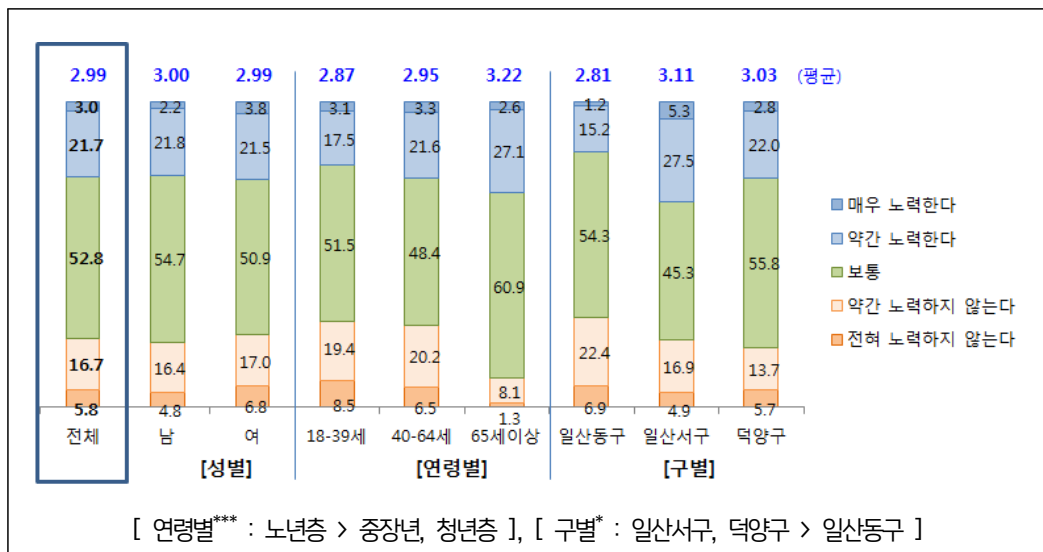
(단위 : %)



- 고양시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4.7%, 보통 52.8%, 그렇지 않다 22.5%로 나타남
- 이는 연령별, 구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노년층은 긍정응답 비율(29.7%)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부정응답 비율(9.4%)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일산동구는 긍정응답 비율(16.3%)이 낮고 부정응답 비율(29.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산서구는 긍정응답 비율(32.9%)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20] 고양시 성인 - 고양시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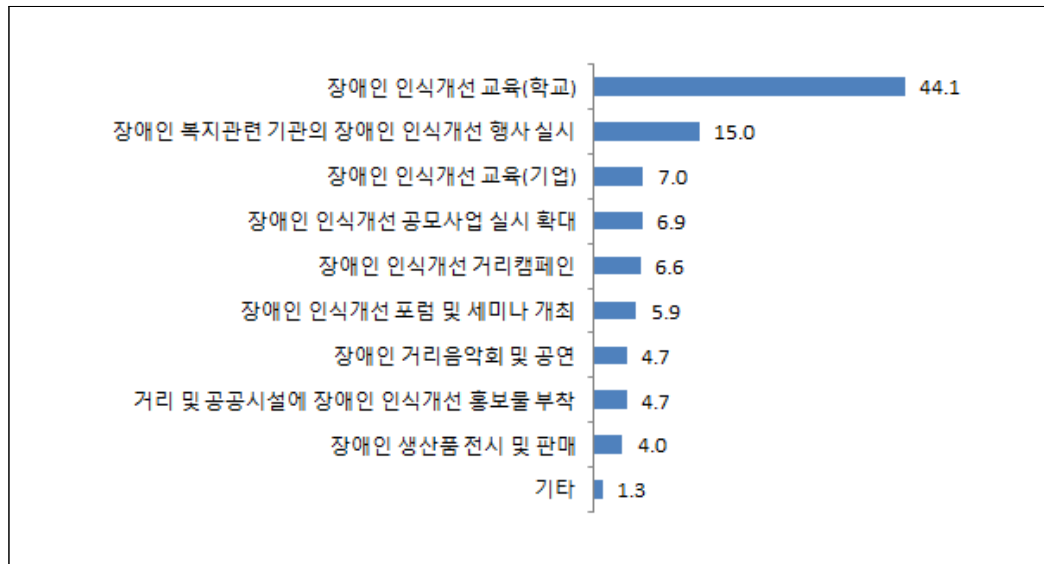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고양시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에 ‘학교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실시 15.0%, 기업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7.0%,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 실시 확대 6.9%,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6.6%, 장애인 인식개선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9%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1] 고양시 성인 - 고양시에서 확대해야 하는 사업

(단위 : %)



4. 기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

- 설문응답자의 42.7%(265명)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 유년기부터 일반 성인까지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배제와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 형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됨
- － 이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지점 확대, 장애인을 이해하는 다양한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언론의 노력에 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됨

[표 5-5] 고양시 성인 - 기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

(단위 : 건)

구분	주요 내용	의견제시 건수
정책 사업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	11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정책	11
	장애인 일자리 증진	3
	복지시설 확충	4
	공공시설 및 거리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7
	교통 편의 개선 및 이동서비스 확대	8
	사회시설 인가시 조사 및 투명한 개선 필요	3
사회 통합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언론의 노력	13
	편견 배제,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 형성	6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점 확대	28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을 이해하는 다양한 기회 제공(함께하는 체험, 참여프로그램 캠페인 등)	19
	유년기~일반 성인까지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	71
기타	-	19

1) 정책 사업

○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제도 마련
-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홍보

○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정책

-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과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함
- 장애인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이 공동체 안에서 자립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

○ 장애인 일자리 증진

- 일자리 증진
- 정부기관의 지속적이고 일정 비율의 장애인 채용과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 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 장애인을 집안에만 가두려는 가족들의 인식 또한 문제. 장애인 돌봄 및 시설을 늘려 가족들의 장애인 케어에 대한 부담 및 여유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성인이 되었을 때 돌보아주는 시설 마련

○ 공공시설 및 거리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휠체어 이동편의 시설
- 계단보다 비탈길 설치
- 거리의 벤치 확대 등

○ 교통편의 개선 및 이동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 이용시 편의시설 증대
- 버스 승하차시 휠체어 이용 편리하게
- 장애인 전용 택시 보급 확대
- 장애인을 위한 도로 개선

※ 고양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2016년 9월)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및 인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때 병원 가는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전용 택시들이 많이 보급된다면 장애인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인식도 개선되리라 봅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편의성이 좀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단보다 비탈길 설치,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이나 거리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비장애인들이 보면서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2) 사회 통합

○ 편견 배제,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 형성

-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 장애는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
-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면 사회에 융화되기 힘들
- 동정심 보다는 동등한 시선으로 봐야 함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언론의 노력 필요

- 방송을 통한 개선, 광고, 짧은 홍보물 방영 필요
- 장애에 대한 꾸준한 언론 홍보
- 매스컴을 통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홍보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점점 확대

-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짓지 않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류하고 접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필요
-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장소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원활한 직업교육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지만 정신 질환 같은(치매, 조현병 등) 경우에는 부정적인 인식, 사회통념이 오히려 대중 매체 등을 통해 부정적인 면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쉽게 3자에 게 인식되지 않는 장애와 관련된 홍보 및 사회활동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학생시절 장애우 분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인식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인문계와 홀트학교의 접촉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놀고 공부함으로써 얻는 인격적 성장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가 있음을 직접 느꼈습니다. 초등~고등 기간에 같은 반 친구 중 장애를 가진 친구가 꼭 있었고, 이는 위의 효과를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학교의 시설을 고쳐주세요. 또한 어른부터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차별하지 말고 카페나 상점의 장애인 근로자 들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일상적인 접촉의 빈도를 높이는 것.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3) 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 유년기부터 일반 성인까지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

－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필요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장애체험 교육 필요

－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직장 및 학교에서의 교육 필요

－ 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

－ 형식적 교육이 아닌 진정한 인식전환을 위한 실질적 교육 개선 필요

－ 체험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필요

- 같이 살아가는 협동정신 교육
- 지하철 안내 방송을 통한 교육
- 학교 또는 기업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 장애인을 이해하는 기회 제공(함께하는 체험, 참여 프로그램, 캠페인 등)

- 장애인과 함께하는 봉사 및 행사 참여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거리 캠페인, 공익광고, 학교나 기업 다양한 체험활동)
- 체험을 통한 의식개혁과 봉사활동
-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줄여주는 체험활동 확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에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이 잘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학교, 기업, 일반인 모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직접 체험해봐야 장애인분들의 고충이나 불편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된 생활 반경 때문에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주 부족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초중고 교육기관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알게 하고 교육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절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조사 방법

-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양市内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설문조사 개요

- 각 구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씩 총 9개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덕양구 :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 일산동구 :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 일산서구 :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 조사대상 : 고양市内 초·중·고등학교(총 9개) 재학생
- 조사방법 : 각 학교에 배포 및 회수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설문지 직접기입 방식)
- 조사기간 : 2019. 7. 8 ~ 2019. 7. 31 (24일간)

2. 설문 응답자 현황

-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실태조사(2019.7.8.~7.31.)’ 설문 응답자는 총 560명임

[표 5-6] 고양시 초중고생 -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전체		560	100.0	학급 장애친구 유무	있음	349	62.7
성별	남학생	281	52.1		없음	208	37.3
	여학생	258	47.9	학교 특수학급 유무	있음	460	82.9
연령별 (학교)	초등학교	180	32.1		없음	95	17.1
	중학교	198	35.3	가족/친척 중 장애인 유무	있음	72	13.0
	고등학교	182	32.6		없음	481	87.0
구별 (학교)	덕양구	180	32.3	장애인관련기관 봉사활동유무	있음	178	32.2
	일산동구	178	31.7		없음	375	67.8
	일산서구	202	36.0				

* 각 비율은 해당 항목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산출함

제4절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분석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1) 장애인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 정도

- 고양시 초중고생은 장애인에 대해 ‘불쌍한’, ‘슬픈’, ‘허약한’, ‘불행한’, ‘외로운’ 이미지를 떠올린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음
- 설문응답자의 20% 이상이 체크한 이미지 중 긍정적 이미지는 ‘씩씩한’, ‘솔직한’, ‘친절한’ 이미지로 나타남

[표 5-7]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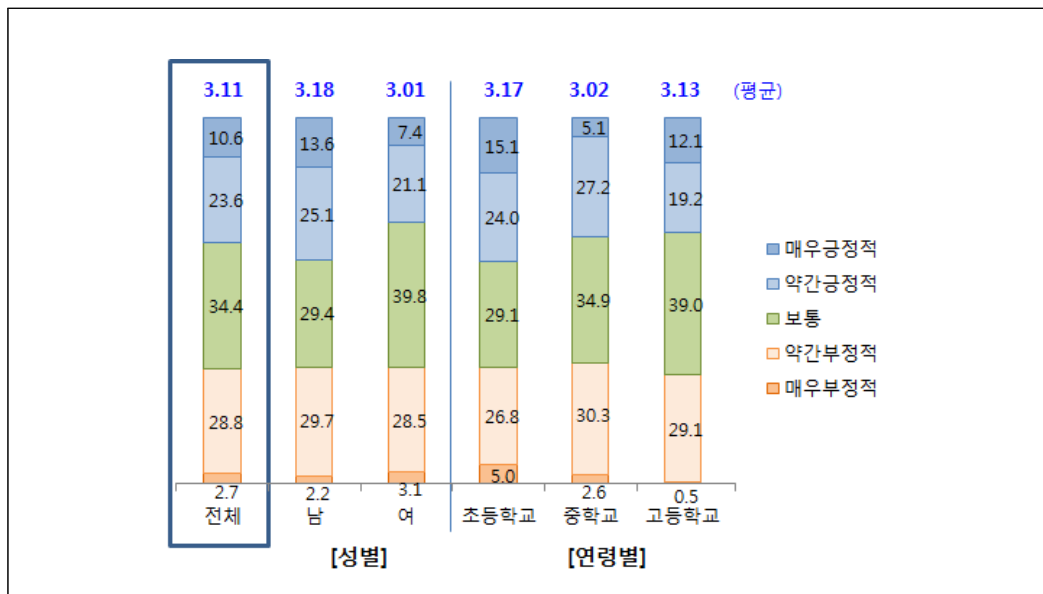
형용사 이미지	체크 수(명)	비율(%)	형용사 이미지	체크 수(명)	비율(%)
불쌍한	246	43.9	지저분한	73	13.0
슬픈	198	35.4	즐거움	64	11.4
허약한	193	34.5	머리가 좋은	64	11.4
불행한	189	33.8	영리한	59	10.5
외로운	168	30.0	남을 잘 돕는	59	10.5
둔한	161	28.8	꼼꼼한	44	7.9
씩씩한	137	24.5	이기적인	40	7.1
솔직한	134	23.9	건강한	40	7.1
친절한	116	20.7	못생긴	38	6.8
고집스러운	116	20.7	창피한	37	6.6
발랄한	98	17.5	단정한	31	5.5
부주의한	97	17.3	게으른	21	3.8
바보스러운	93	16.6	깨끗한	21	3.8
친근한	77	13.8	민첩한	20	3.6
행복한	74	13.2	잘생긴	19	3.4

※ 형용사 척도 : Siperstein(1908)의 척도를 국내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재구성하여 사용함
 장애인에 대해 좋거나 싫음으로 표현하는 감정, 신체적 외모, 사회적 행동 등을 표현하는 3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형용사 15개와 부정적 형용사 15개가 반씩 포함되어 있음

- ‘내 주위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느낍니까?’라는 문항에
34.2%는 긍정적, 34.4%는 보통, 31.5%는 부정적으로 응답함
- 주위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38.7%)이 여학생(2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
생(39.8%)이 남학생(29.4%)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5-22] 고양시 초중고생 - 주위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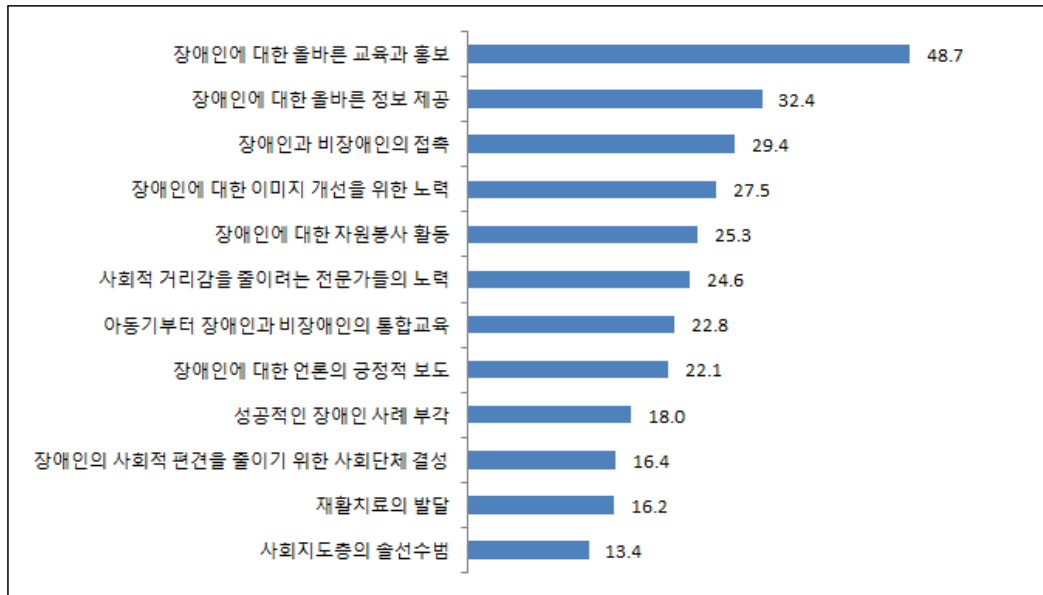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48.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32.4%)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29.4%)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고양시 성인 응답순과 동일함)

-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27.5%)과 ‘장애인에 대한 자원 봉사활동’(25.3%)은 성인에 비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23]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긍정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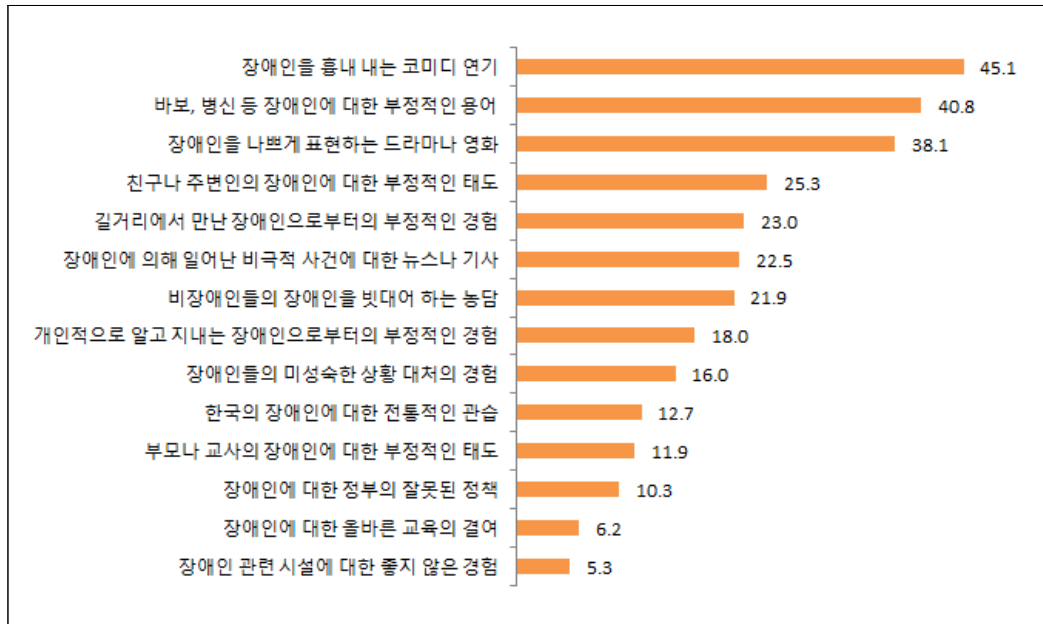


3)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 초중고생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코미디,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 프로그램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 인식 결정 요인으로 장애인을 흉내 내는 코미디 연기(45.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40.8%), 장애인을 나쁘게 표현하는 드라마나 영화(38.1%)가 높게 나타남
- 친구나 주변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25.3%), 길거리에서 만난 장애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23.0%)도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4]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부정 인식 결정 요인(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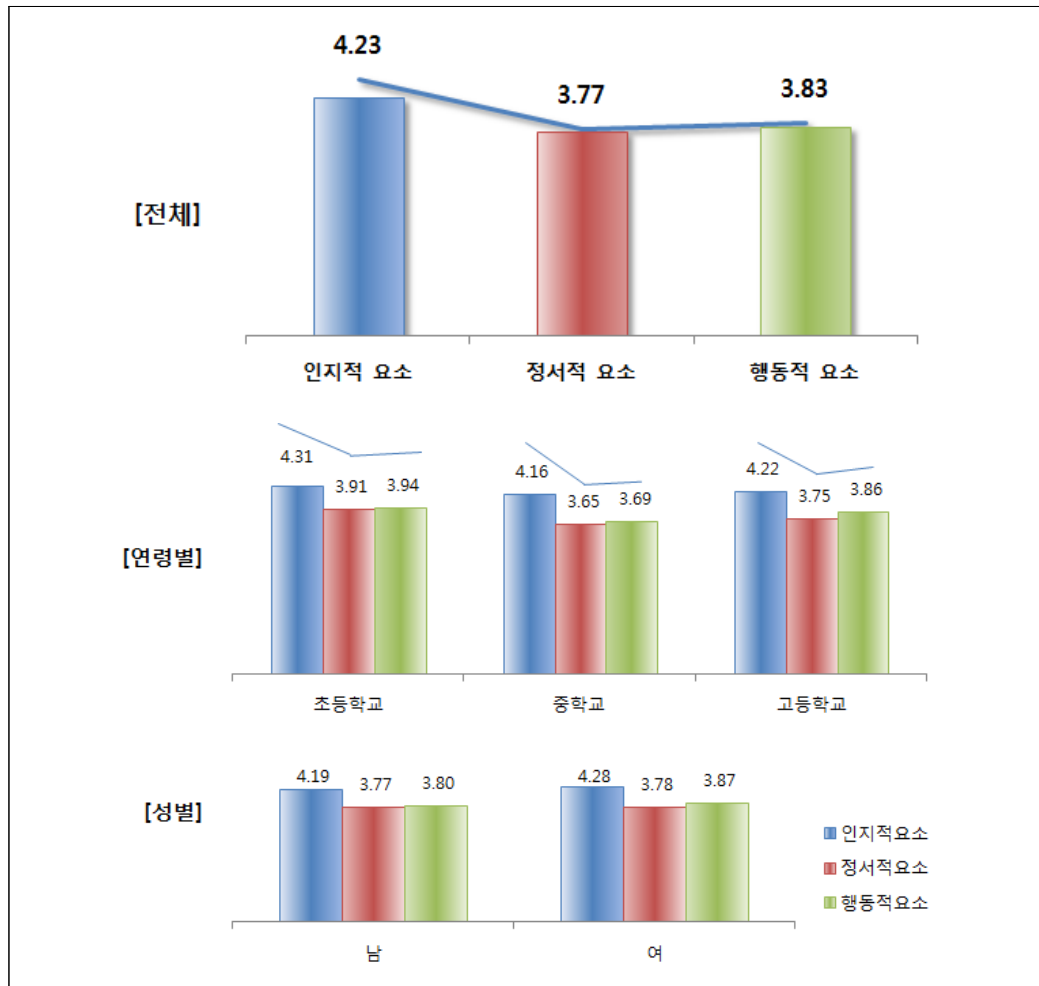


4) 장애 수용 태도

-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수용 태도를 살펴보면 인지적 요소 4.23점, 정서적 요소 3.77점, 행동적 요소 3.83점으로 인지적 요소가 정서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고양시 초중고생 역시 장애에 대해 인식하여 알고는 있으나 장애에 대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감정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소 거리가 있음을 의미함
- 초등학생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보다 장애 수용 태도가 전반적(인지 4.31점, 정서 3.91점, 행동 3.94점)으로 높게 나타남
- 중학생은 인지적요소(4.16점)와 정서적요소(3.65점) 및 행동적요소(3.69점)의 격차가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그림 5-25]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종합 평균)

(단위 : 점)



※ 사랑의복지관, '서울시 사회복지금 공모사업-청소년 인권의식 및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실태조사(2017.10.)' 결과
2017년 서초구 중고등학생(858명)의 장애수용태도는 인지적요소 4.00점, 정서적요소 3.57점, 행동적요소 3.59점 임

* 동일 문항으로 추출시 2019년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수용태도는 인지적요소 4.29점, 정서적요소 3.74점, 행동적요소 3.86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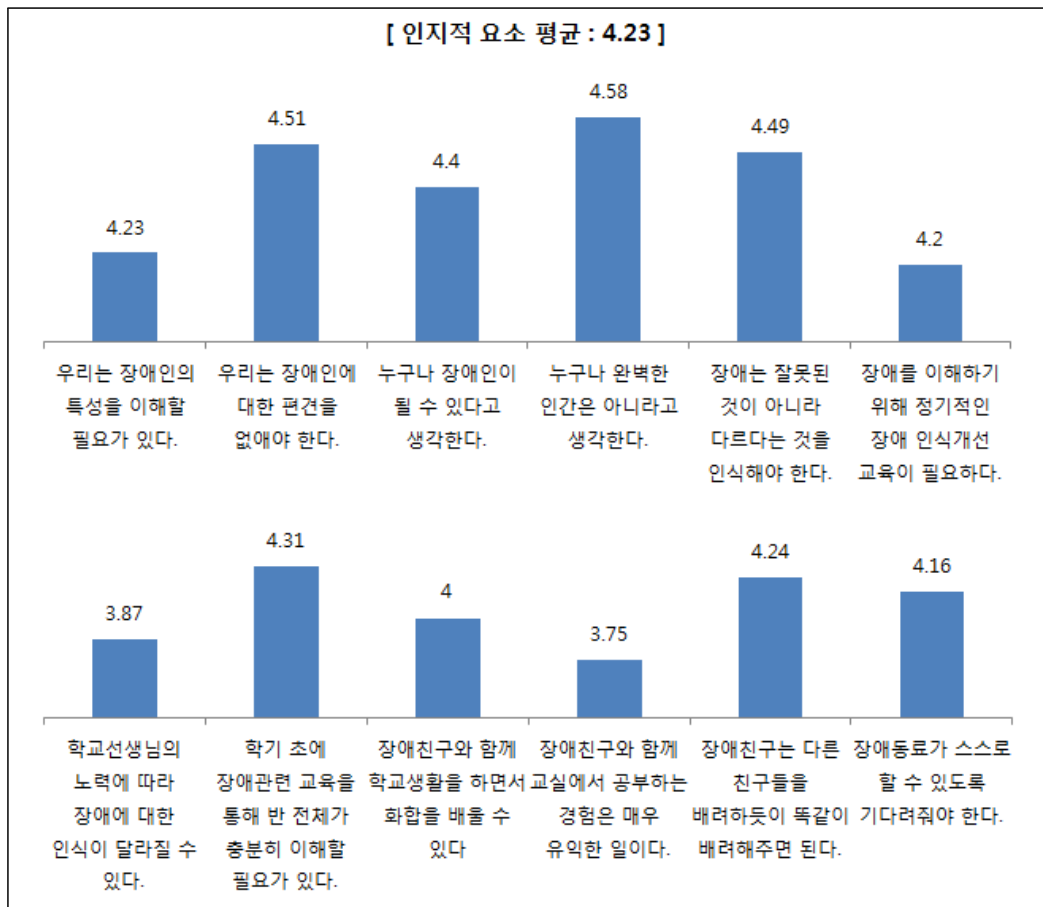
○ 인지적 요소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4.58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4.51점), '장애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4.49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4.4점) 순으
로 나타남

※ 인지적요소는 초중고생이 성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의 주요 순위는 성인과 비슷한 순으로 나타남

- 인지적 요소에서 ‘장애인과 함께 공부하거나 일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하다’는 항목은 성인(3.71점)과 초중고생(3.75점) 공통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 초등학생 4.66 > 고등학생 4.45, 중학생 4.42
- 선생님 노력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 : 초등 4.06 > 중학생 3.82, 고등학생 3.74

[그림 5-26]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인지적 요소)

(단위 : 점)



○ 정서적 요소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친구도 비장애인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4.1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친구를 만나면 특별한 온정을 느낀다’(3.28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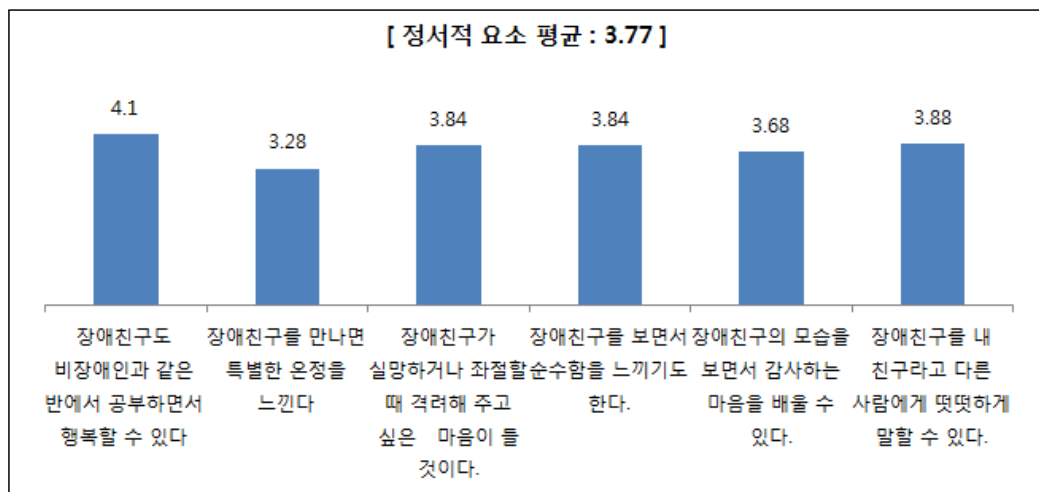
※ 정서적요소는 성인과 초중고생 평균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남

– 장애인이 좌절할 때 격려해주고 싶다 : 초등 4.03 > 고등학생 3.79, 중학생 3.71

– 장애인을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 : 초등 3.99, 고등학생 3.97 > 중학생 3.68

[그림 5-27]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정서적 요소)

(단위 : 점)



○ 행동적 요소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친구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4.23점), ‘장애친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빌려 줄 수 있다’(4.17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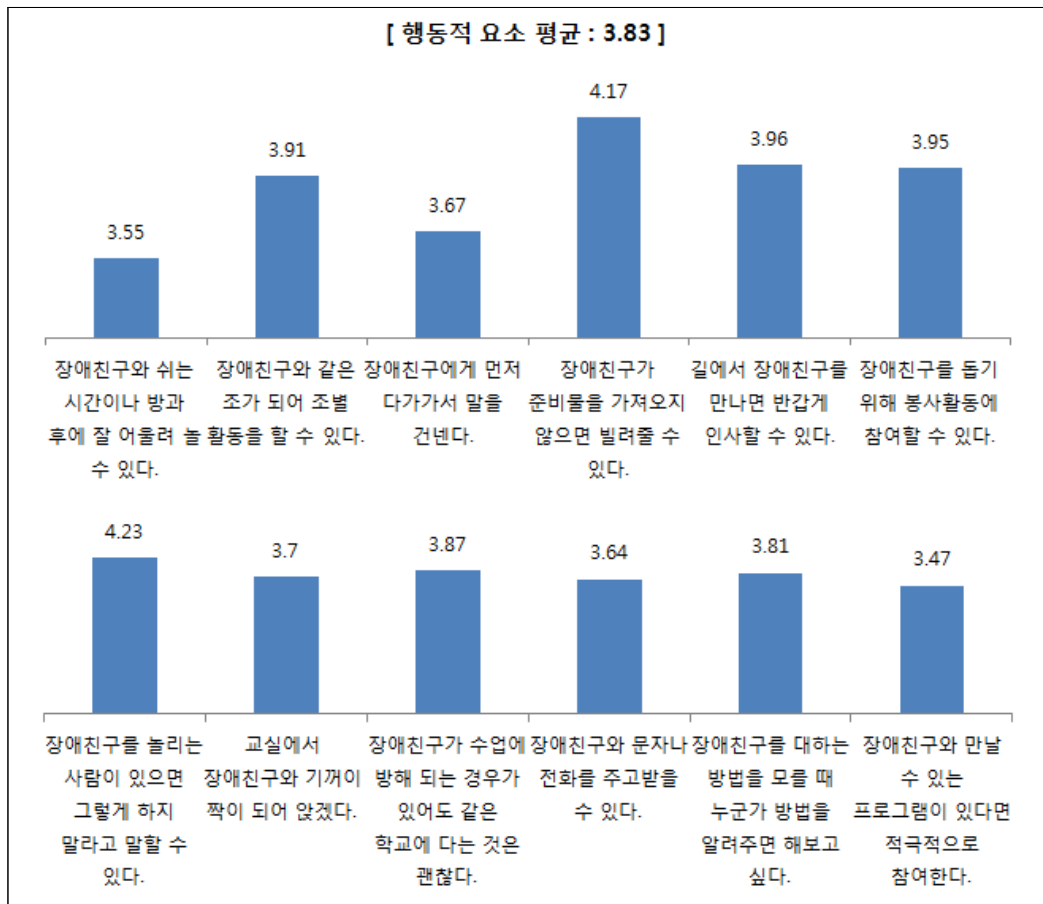
– 반면 ‘장애친구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3.47점), ‘장애친구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잘 어울려 놀 수 있다’(3.55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행동적요소는 성인에 비해 초중고생의 평균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남

- 장애인과 같은 조 활동을 할 수 있다 : 초등 4.04, 고등 4.01 > 중학생 3.71
- 장애인에게 준비물을 빌려줄 수 있다 : 고등학생 4.33, 초등 4.21 > 중학생 3.98
- 놀리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 초등 4.41 > 고등 4.20, 중학생 4.10
- 장애인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해보고 싶다 : 초등 3.98, 고등 3.80, 중학생 3.66

[그림 5-28]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행동적 요소)

(단위 : 점)



○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수용 태도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중학생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표 5-8]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세부 항목)

(단위 : 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인지적요소	우리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28	4.18	4.25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4.66	4.42	4.45	***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3	4.35	4.52	*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63	4.50	4.60	
	장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56	4.46	4.45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4.27	4.17	4.17	
	학교 선생님의 노력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4.06	3.82	3.74	**
	우리 반에 장애친구가 있다면 학기 초에 장애 교육을 통해 반 전체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4.42	4.21	4.32	*
	장애친구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화합을 배울 수 있다.	4.14	3.89	3.97	*
	장애친구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3.86	3.64	3.76	
	장애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듯이 똑같이 배려해주면 된다.	4.28	4.21	4.23	
	장애친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4.27	4.07	4.15	
정서적요소	장애친구도 비장애인과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4.29	3.92	4.10	***
	장애친구를 만나면 특별한 온정을 느낀다.	3.48	3.15	3.23	*
	장애친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4.03	3.71	3.79	**
	장애친구를 보면서 순수함을 느끼기도 한다.	3.91	3.87	3.74	
	장애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다.	3.77	3.58	3.68	
	장애친구를 내 친구라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3.99	3.68	3.97	**
행동적요소	장애친구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잘 어울려 놀 수 있다.	3.72	3.42	3.51	*
	장애친구와 같은 조가 되어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다.	4.04	3.71	4.01	**
	장애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넨다.	3.82	3.57	3.64	
	장애친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빌려줄 수 있다.	4.21	3.98	4.33	**
	길에서 장애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	4.11	3.82	3.96	*
	장애친구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98	3.83	4.04	
	장애친구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4.41	4.10	4.20	**
	교실에서 장애친구와 가까이 짝이 되어 앉겠다.	3.73	3.54	3.86	*
	장애친구가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괜찮다.	4.03	3.73	3.85	*
	장애친구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3.68	3.50	3.74	
	장애친구를 대하는 방법을 모를 때 누군가 방법을 알려주면 해보고 싶다.	3.98	3.65	3.80	**
	장애친구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61	3.39	3.41	

※ 비고(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장애수용태도는 학급 내 장애친구 유무, 학교 내 특수학급 유무, 장애인관련기관 봉사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학교 내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와 학급 내 장애친구가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5-9]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특수학급 유무 차이)

(단위 : 점)

구분		학교 내 특수학급 여부			학급 내 장애친구 여부		
		있음	없음	비고	있음	없음	비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14	3.31	-	3.10	3.28	*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19	4.45	***	4.15	4.37	***
	정서적요소	3.72	4.05	**	3.67	3.95	***
	행동적요소	3.77	4.17	***	3.72	4.02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캐나다와 칠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학우에 대해 더 호의적이며 덜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차이는 학생 개개인의 차이라기보다는 체계화된 교육적 환경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영국, 호주, 미국의 연구에 있어서는 통합 교육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지원 없이 통합 교육이 실시될 경우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자존감이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 교육 이전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우선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자질도 학생들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힘

- 호주의 교사 훈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화된 교육 혹은 공식적인 연수들을 통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었을 때 그들의 인식 및 태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미국 Rizzo & Kirkendall(1995)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태도개선과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이고 이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함

○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있음

- 이현수, 남희은(2004) : 장애학생과의 통합체육수업은 장애대상학생의 개인적 성격, 체육수업참여도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 :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3배에서 4배 학교폭력 경험 비율이 높음
- 김지원, 박지연(2014) : 이는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임

○ 반면,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10]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 수용 태도(봉사활동 경험 차이)

(단위 : 점)

구분		초중고생(장애인기관봉사활동)			성인(장애인기관봉사활동)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고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40	3.06	***	3.53	3.14	***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38	4.16	***	4.27	4.07	***
	정서적요소	4.03	3.65	***	3.81	3.73	-
	행동적요소	4.11	3.70	***	4.05	3.83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참고로 성인도 같이 비교함

- Burge et al.(2008)은 미국, 호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지난 30년간 사회접촉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이 지속되었는데,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접촉이 거의 없거나 적었던 사람들보다 접촉 빈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훨씬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함
- 영국의 선행 연구(Cameron & Rutland, 2006) 결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데, 형제자매나 친척 등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아동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정에 관한 책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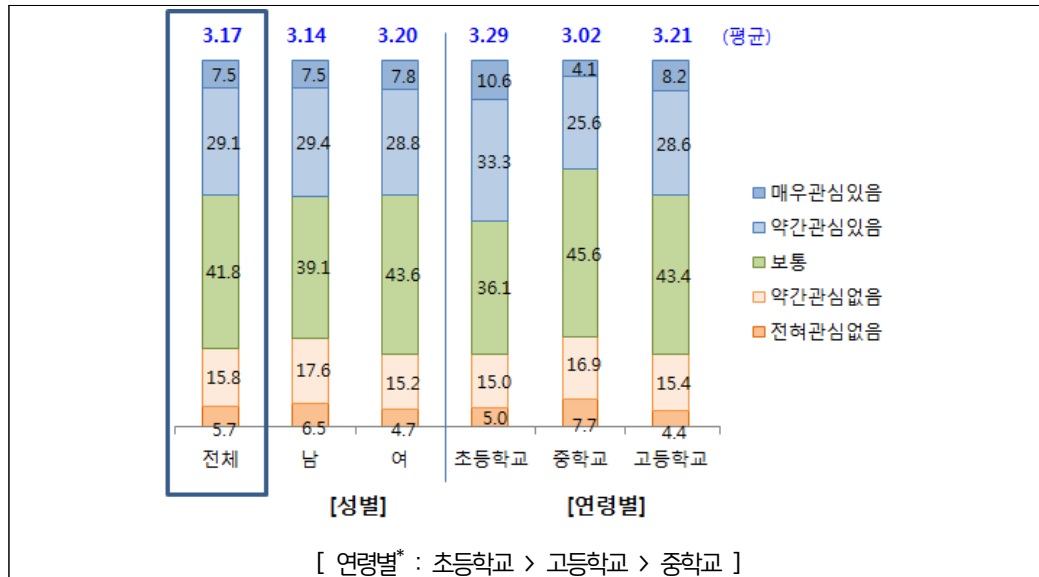
2. 장애인에 대한 관심 및 사회 통합

1) 장애인에 대한 관심

- 고양시 초중고생의 36.6%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8%는 보통, 21.5%는 관심 없다고 응답함
 -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초등학교 43.9%, 고등학교 36.8%, 중학생 29.7% 순으로 중학생의 관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고양시 초중고생의 69.4%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사회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고등학교 76.4%, 중학생 69.4%, 초등학교 62.2%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9]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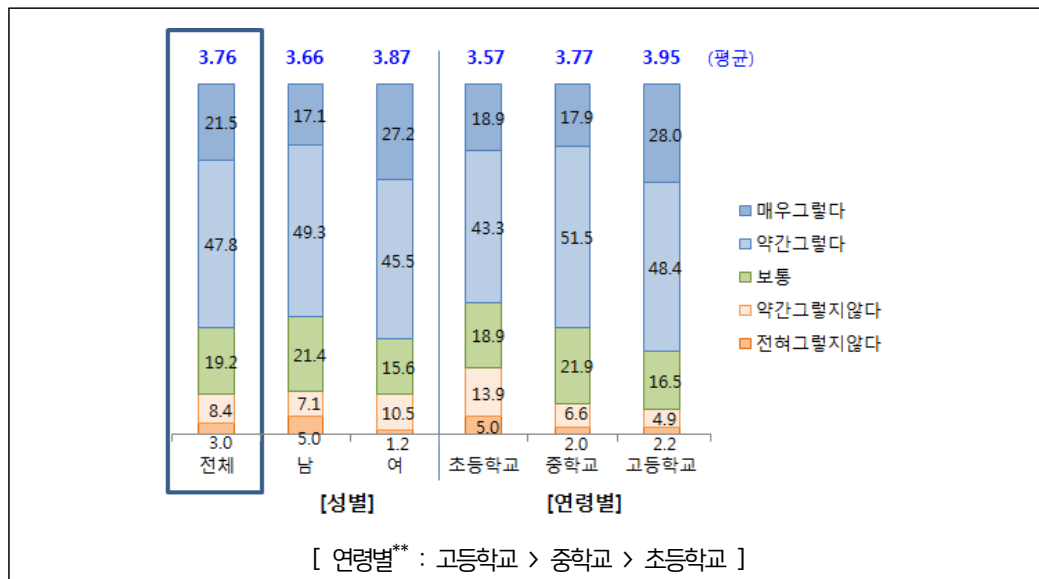
(단위 : 점,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0.01,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그림 5-30]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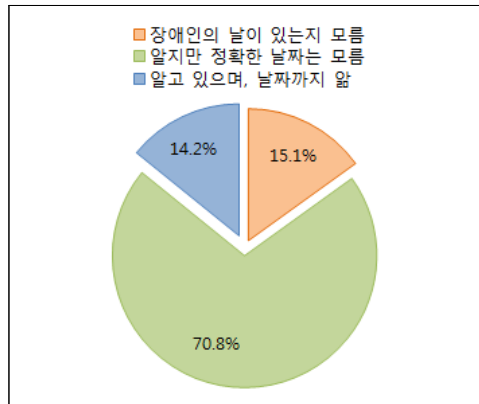
(단위 : 점,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0.01,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그림 5-31]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의 날 인지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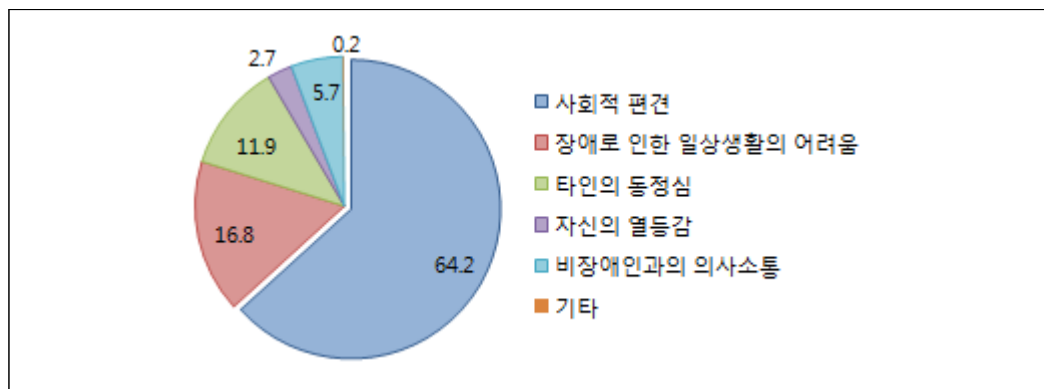


- 고양시 초중고생 중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15.1%로 나타남
-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경우가 70.8%임
 -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과 정확한 날짜(4월 20일)까지 아는 경우는 14.2%로 성인보다 높게 나타남

- 고양시 초중고생이 생각하는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 이라는 응답(64.2%)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성인(56.6%) 보다 높은 수치임
- 이어서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16.8%, 타인의 동정심 11.9%, 비장애인과 의사소통 5.7%, 자신의 열등감 2.7%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2]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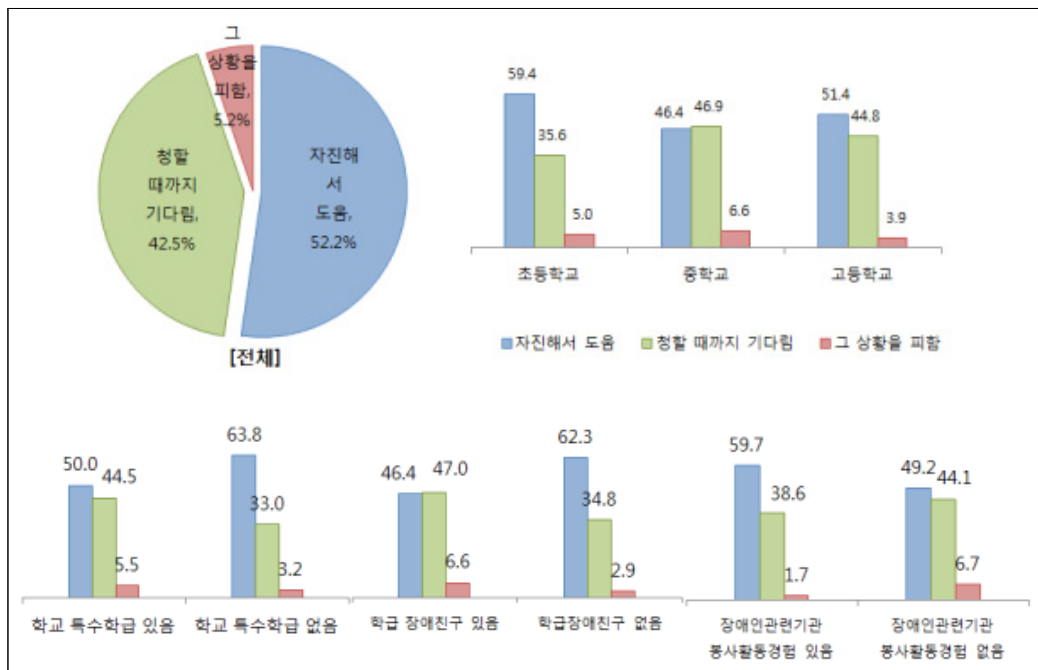
(단위 : %)



-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진해서 돕겠다는 응답은 51.9%,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응답은 42.2%, 그 상황을 피할 것 같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남
- 이는 학교의 특수학급 유무, 학급 장애친구 유무, 장애인관련기관 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와 학급에 장애친구가 있는 경우는 자진해서 돕겠다는 비율과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진해서 돕겠다는 비율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5-33]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대응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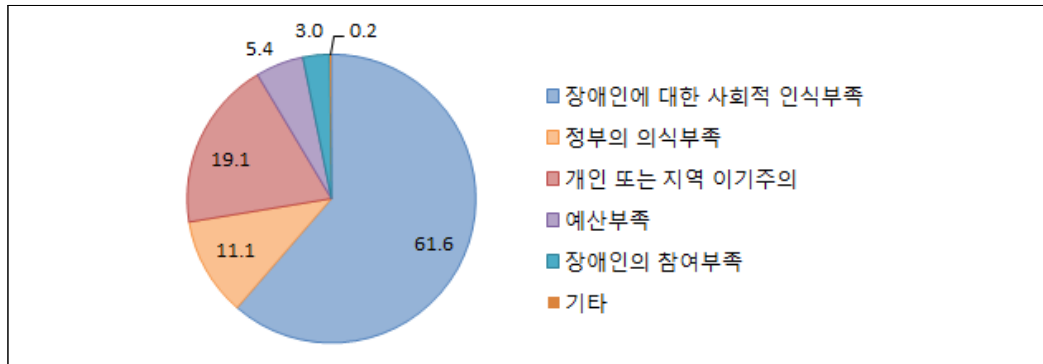
(단위 : %)



- 장애인 복지제도가 미흡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성인 및 초중고생 공통으로 높게 꼽은 항목임)

[그림 5-34]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복지제도가 미흡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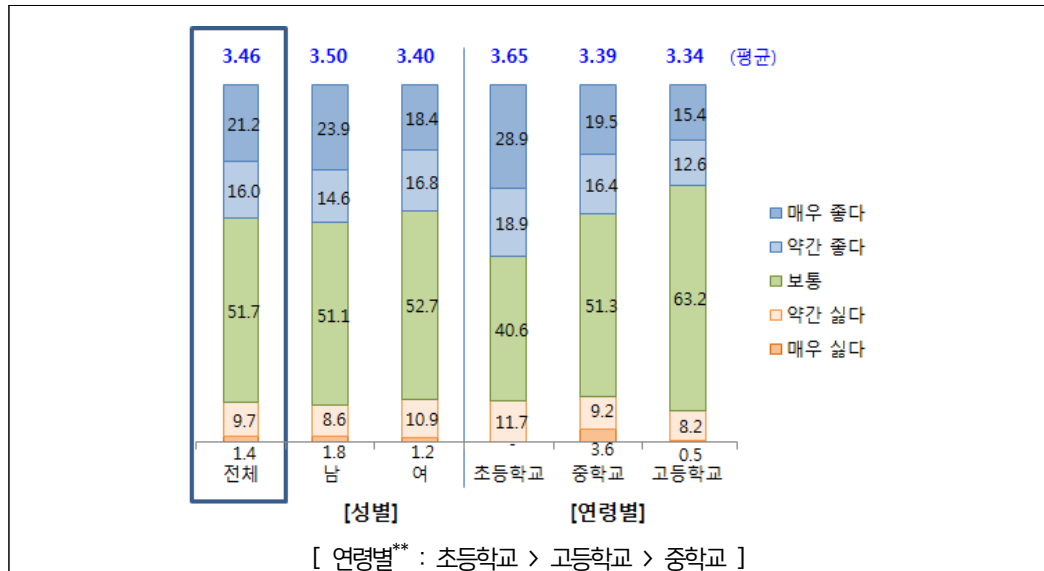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

- 장애인과 함께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고양시 초중고생의 37.2%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51.7%는 보통으로 응답함. 싫다는 응답은 11.1%임
 - 이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장애인과 함께 교육받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초등학생 47.8%, 중학생 35.9%, 고등학생 28.0%)

- 학교나 학원 외에서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38.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10%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51.8%는 보통으로 응답함
 - 이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여학생(35.8%)에 비해 남학생(39.6%)의 긍정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절반 정도는 학교나 학원 외에서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분의 1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초등학생 50.0%, 중학생 33.7%, 고등학생 31.3%)

[그림 5-35]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과 함께 교육 받는 것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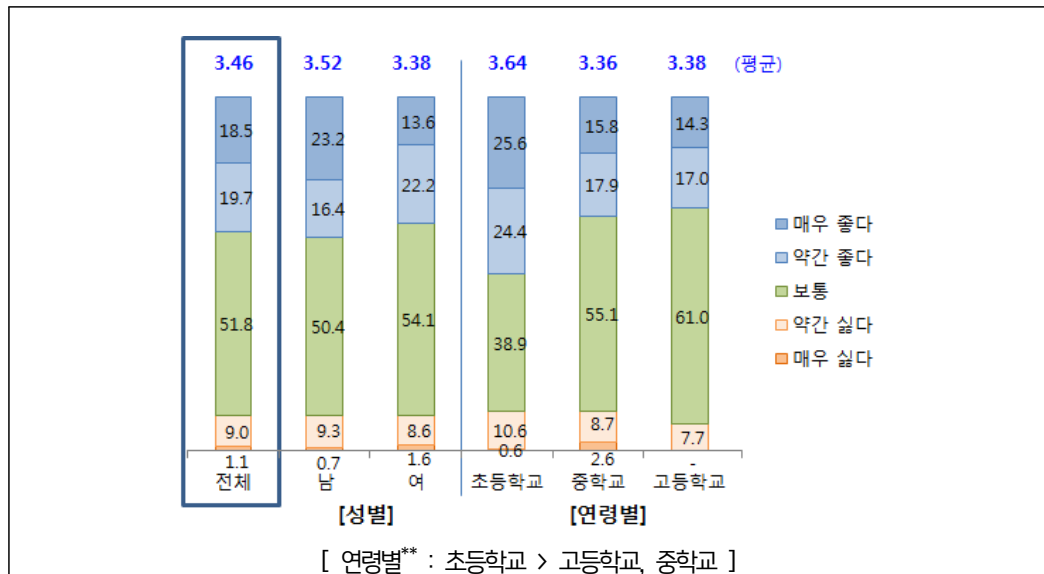
(단위 : 점,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그림 5-36]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점,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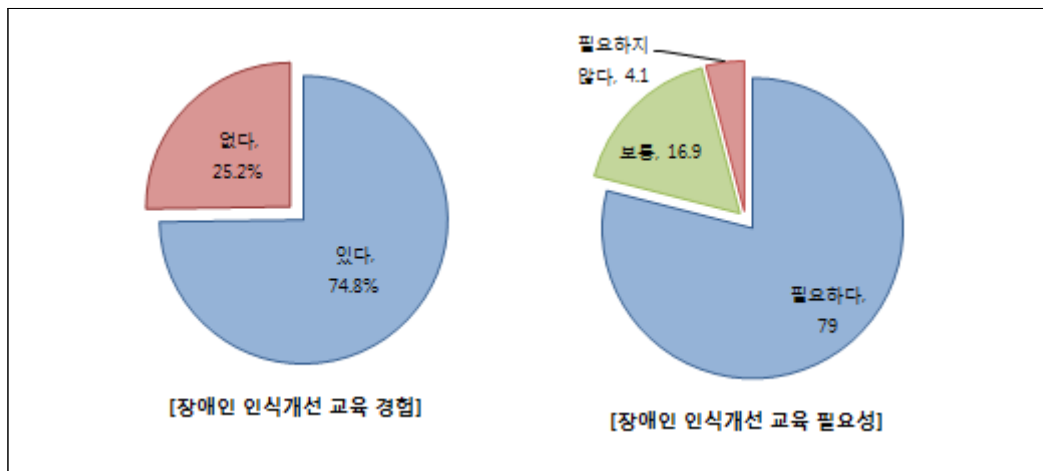
3.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2016년부터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초중고생의 74.8%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경험 : 초등학생 83.0%, 중학생 71.1%, 고등학생 70.8%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9.0%이며, 16.9%는 보통, 4.1%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성인과 거의 비슷함)

[그림 5-37]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경험 및 필요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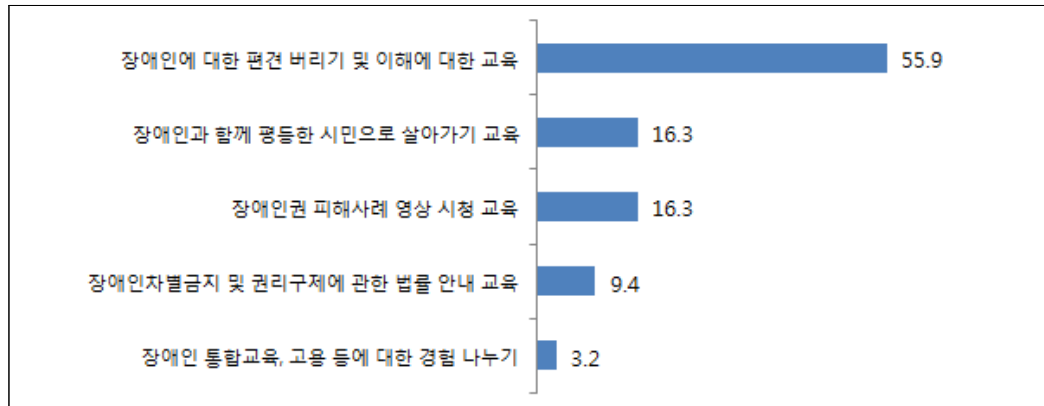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경험한 초중고생의 55.9%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리기 및 이해에 대한 교육’이 가장 유익했다고 응답함 (※ 이는 성인의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 이어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교육’(16.3%), ‘장애 인권 피해사례 영상 시청 교육’(16.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안내 교

육’(9.4%), ‘장애인 통합 교육, 고용 등에 대한 경험 나누기’(3.2%)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8] 고양시 초중고생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중 유익한 내용

(단위 :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체험식 교육방법(60.6%)으로 나타남. 강의식 18.5%, 참여식 11.2%, 온라인 교육 10.2% 순으로 나타남

- 성인에 비해 초중고생은 체험식 교육 선호도가 높고, 참여식 교육 선호도가 낮음

※ 성인 : 체험식 46.6%, 참여식 23.3%, 강의식 19.3%, 온라인교육 10.0%

[표 5-11] 고양시 초중고생 - 선호하는 교육 방법

(단위 : %)

구분		체험식 교육	강의식 교육	참여식 교육	온라인 교육
전체		60.4	18.5	11.2	10.2
성별	남학생	55.5	21.4	11.7	12.1
	여학생	68.6	14.7	10.1	7.4
연령별	초등학생	63.3	17.5	10.7	8.5
	중학생	63.3	17.3	11.7	9.7
	고등학생	55.0	21.1	11.7	11.7

* 체험식 교육(예 : 휠체어 체험,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장애인 체험 및 이해), 참여식 교육(예 : 장애인이 접하는 상황 역할극 및 집단 토의에 참여), 강의식 교육(예 : 강사가 앞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강의), 온라인 교육(예 :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보고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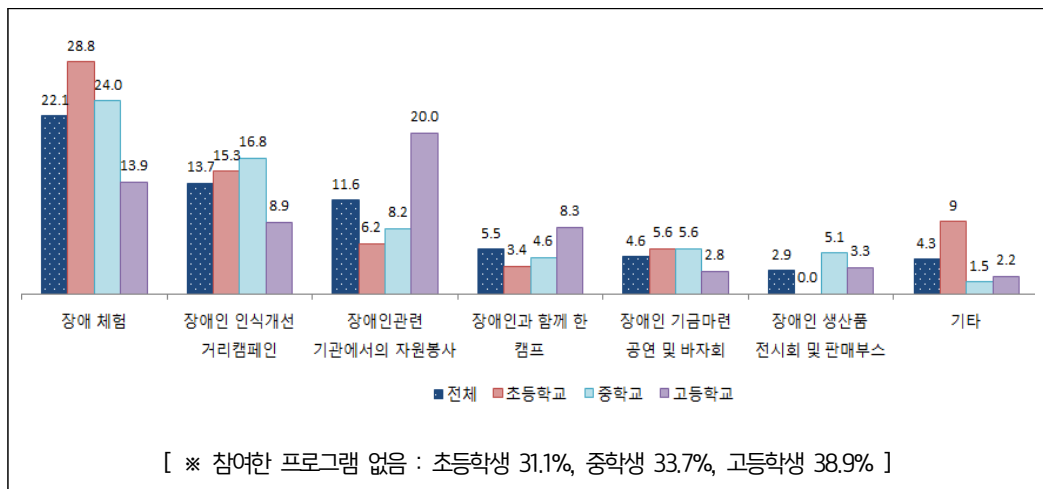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바람직한 횟수에 대해 6개월에 한번(56.6%), 1년에 한번(37.5%), 2년에 한번(4.3%) 순으로 응답했으며, 1.6%는 필요 없다고 응답함
- － 초중고생은 6개월에 한 번, 성인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많음
- ※ 성인 : 1년에 한번(55.7%), 6개월에 한번(30.9%), 2년에 한번(10.0%), 필요없음 3.4%

2)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초중고생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장애 체험(22.1%)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13.7%,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11.6%, 장애인과 함께 한 캠프 5.5% 순으로 나타남
- － 고등학생은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2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체험 및 거리캠페인에 대한 응답률이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기타 의견으로 장애인 관련 영상 시청, 교내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음

[그림 5-39] 고양시 초중고생 - 도움이 되었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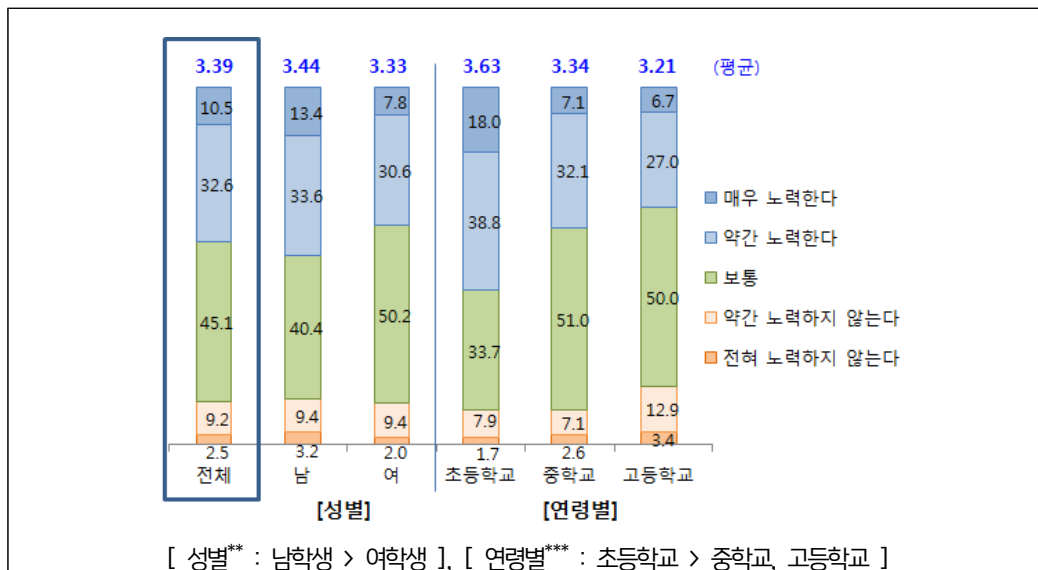
(단위 : %)



- 고양시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2.4%로 초·중·고생은 성인(24.7%)에 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성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성별 : 남학생 46.9%, 여학생 38.4%
- 연령별 : 초·중·고학생 56.7%, 중학생 39.3%, 고·고·고학생 33.7%

[그림 5-40] 고양시 초·중·고생 - 고양시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단위 :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0.01,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고양시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에 ‘학교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기업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2.3%,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실시 8.9%, 장애인 거리음악회 및 공연 7.7%,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6.8%,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부착 6.1%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장애인 관련 시설 확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의 의견이 나옴

[그림 5-41] 고양시 초중고생 - 고양시에서 확대해야 하는 사업

(단위 : %)



4. 기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

- 초중고 학생 설문응답자의 50.4%(282명)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을 이해하는 다양한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의 의견이 제시됨

[표 5-12] 고양시 초중고생 - 기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중복응답)

(단위 : 건)

구분	주요 내용	의견제시 건수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126
	장애인을 이해하는 다양한 기회 제공(함께하는 프로그램, 캠페인 등)	43
	장애인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5
사회 통합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139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언론의 노력	8
	장애인과의 비장애인의 접점 확대	4
정책 사업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정책 및 사업	7
	복지시설 확충	4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2

1) 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체험 교육, 장애인 특성 이해 교육
- 장애인 차별 사례 및 장애인 성공 사례에 관한 영상 시청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교육

○ 장애인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교육 및 맞춤 체육프로그램 필요
- 발달장애인 자립 교육 필요
- 장애인을 위한 행사 실시

○ 장애인을 이해하는 다양한 기회 제공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 장애인날 행사 개최
-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 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
-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2) 사회 통합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필요
-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 장애인이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개선
-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지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언론의 노력 필요

- 대중매체를 이용한 올바른 정보전달 필요
- 매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자제
- 장애인에 대한 포스터나 게시물을 부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점 확대

-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

3) 정책 사업

○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정책 및 사업

-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판매
- 현실적인 지원 필요
- 다양한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의 평생 일자리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지원 필요

○ 복지시설 확충

- 다양한 기관 설립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해 건물의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확대

제 6 장

고양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

제1절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 방법

제2절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 분석

제3절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 방법

제4절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분석

제절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 방법

- 고양시민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양 시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1. 설문조사 개요

- 표본 설계
 - － 성별 : 남자, 여자
 - － 연령별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설문응답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 － 지역별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설문조사 실시

- － 조사대상 : 고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면접조사
- － 조사기간 : 2019. 6. 17 ~ 2019. 7. 31

2. 설문 응답자 현황

○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 인식 실태조사’ 설문 응답자는 총 232명임

[표 6-1] 고양시 발달장애인 -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전체		232	100.0	지역구	일산동구	67	28.9
성별	남성	162	72.6		일산서구	73	31.5
	여성	61	27.4		덕양구	73	31.5
연령별	10대	7	3.2	이용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7	19.0
	20대	154	69.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	4.2
	30대	37	16.7		장애인복지관	50	35.2
	40대	12	5.4		재활치료센터	8	5.6
	50대	7	3.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	11.3
	60대	4	1.8		기타	35	24.6
* 결측제외				직업유무	직업 있음 (훈련생 포함)	175	79.5
					직업 없음	45	20.5

제2절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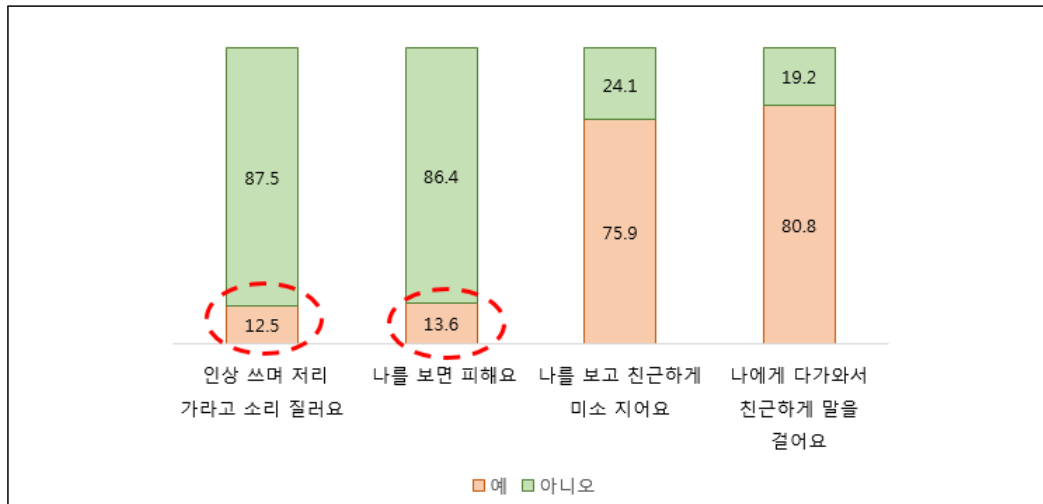
1. 사회에 대한 인식

1) 타인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한 경험 인식

-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타인의 행동 및 태도에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옴.
그러나 전체의 12.5%가 ‘타인이 인상쓰며 저리가라고 소리 질러요’라고 응답했고,
전체의 13.6%가 ‘나를 보면 피해요’ 라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한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남

[그림 6-1] 고양시 발달장애인 - 타인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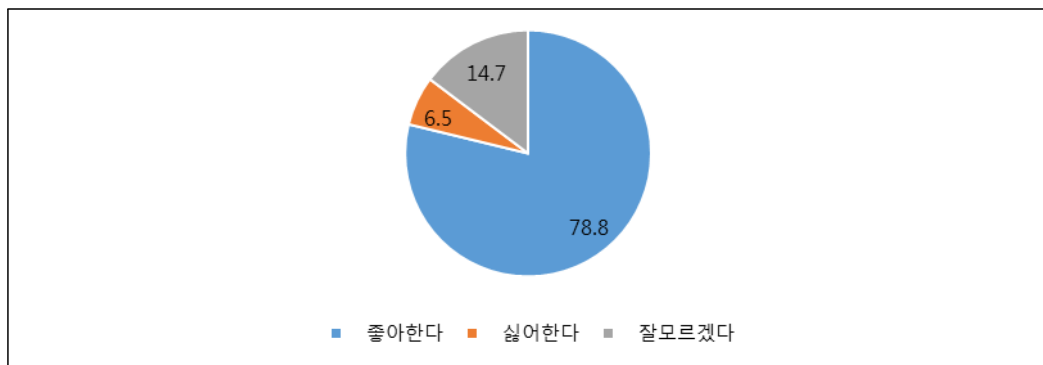


2)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선호도

-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78.8%가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5%는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2] 고양시 발달장애인 -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한 선호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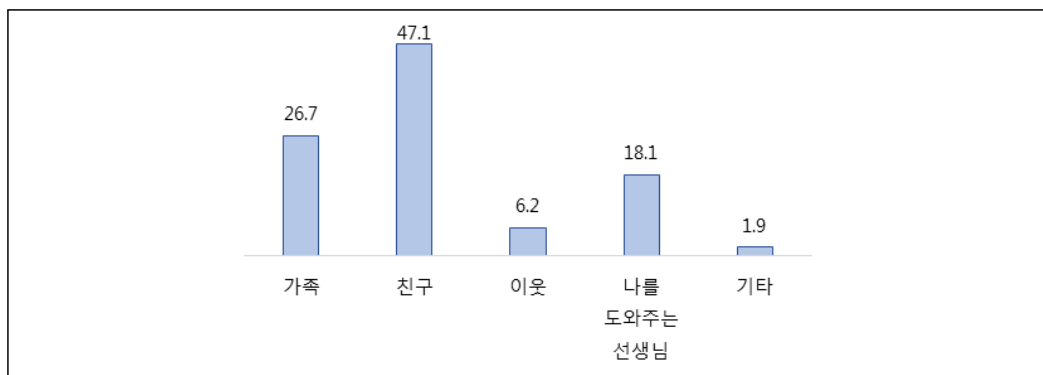


3) 함께 활동하고 싶은 사람

- 발달장애인이 함께 활동하고 싶은 사람으로는 친구(47.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 26.7%, 선생님 18.1%, 이웃 6.2% 순으로 나타남

[그림 6-3] 고양시 발달장애인 - 함께 활동하고 싶은 사람(복수응답)

(단위 : %)



4)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기 싫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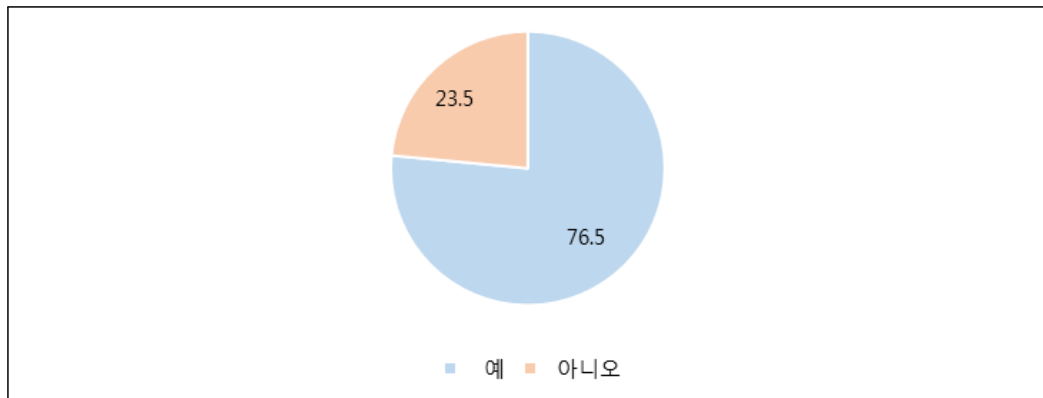
-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응답함

5)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이용 경험 유무

- 응답자의 76.5%는 복지관 등 도움을 주는 기관의 이용 경험이 있으며, 23.5%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4]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을 주는 기관 이용 경험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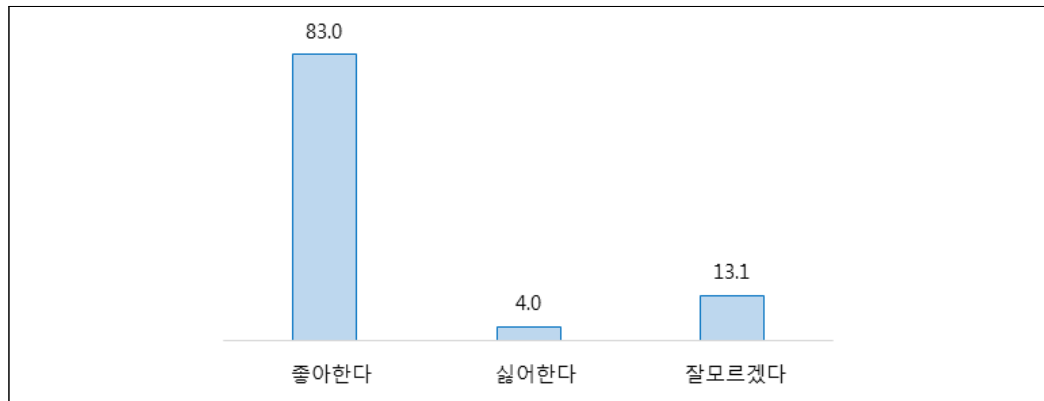


6)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이용 시 느낌

-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이용 시 느낌은 83.0%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13.1%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4.0%만 ‘싫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그림 6-5]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을 주는 기관 이용 시 느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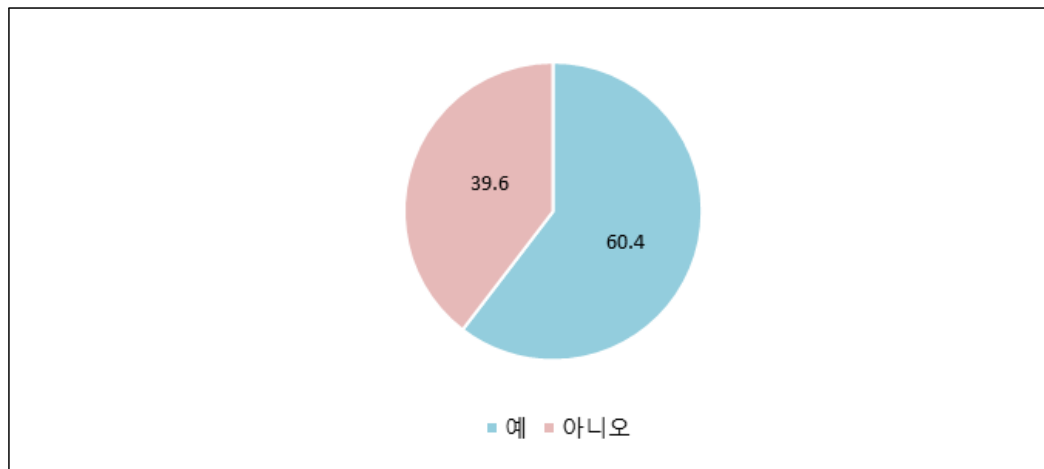


7) 타인의 도움 필요 경험 유무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60.4%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9.6%는 필요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함

[그림 6-6] 고양시 발달장애인 - 타인 도움 필요 경험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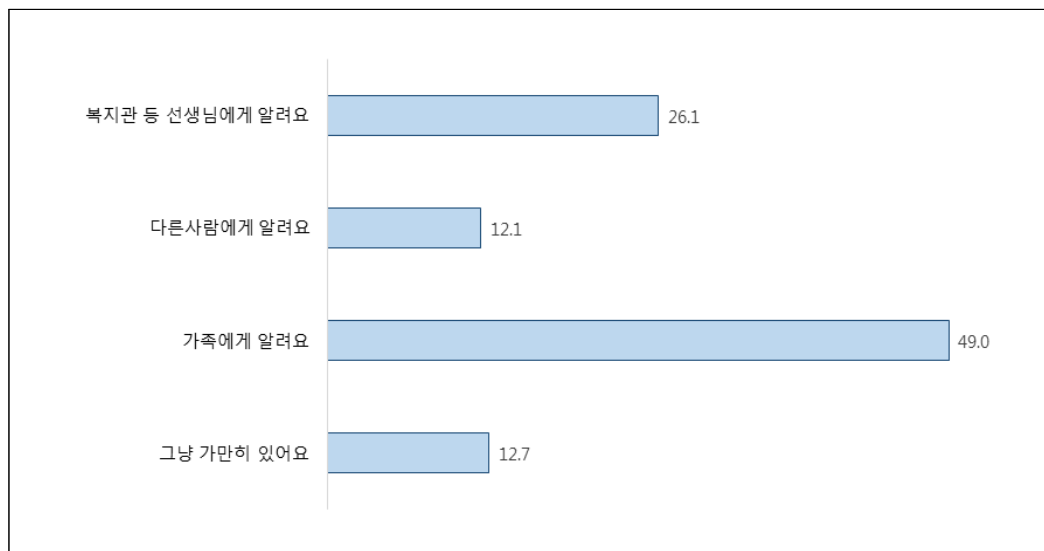


8) 도움이 필요할 때 행동

-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에게 알린다’ 49.0%, ‘복지관 등 선생님에게 알려요’ 26.1%, ‘다른 사람에게 알려요’ 12.1%, ‘그냥 가만히 있어요’ 12.7%로 나타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참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1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7]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 필요시 행동(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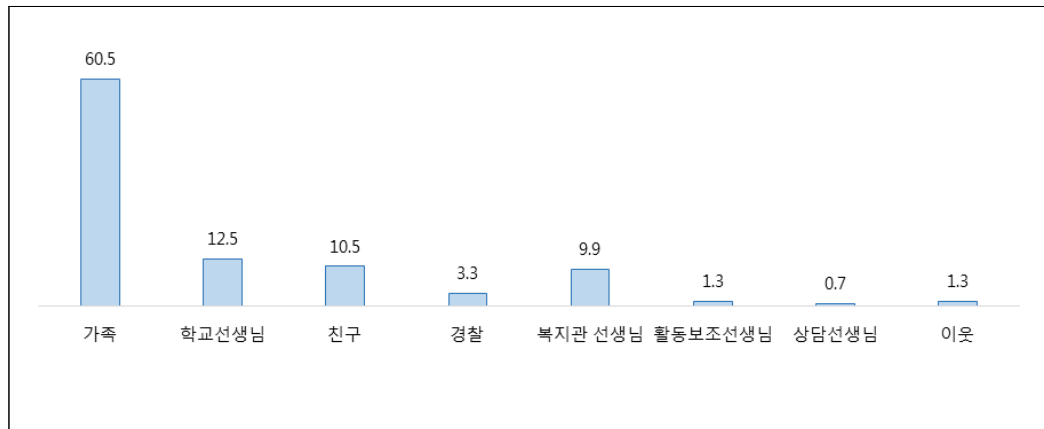


9)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요청 대상

- 발달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요청 대상은 가족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12.5%, 친구 10.5%, 복지관 선생님 9.9%, 경찰 3.3%, 활동보조 선생님 1.3%, 이웃 1.3%, 상담 선생님 0.7%로 나타남
- 이웃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그림 6-8]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 요청 대상(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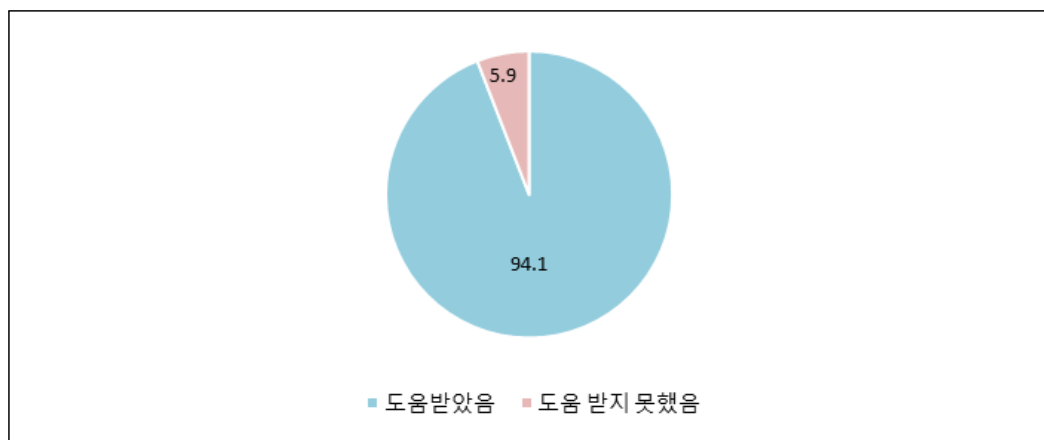


10) 도움 요청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 도움 요청시 94.1%는 도움을 받아 대체적으로 필요시 도움을 받지만 5.9%는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9] 고양시 발달장애인 - 도움 요청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 %)



제3절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 방법

- 고양시민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양시내 성인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의 인식을 조사함

1. 설문조사 개요

- 표본 설계
 - － 성별 : 남자, 여자
 - － 연령별 : 발달장애인 가족
 - － 지역별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설문조사 실시

- － 조사대상 : 고양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족
-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개별면접조사
- － 조사기간 : 2019. 6. 17 ~ 2019. 7. 31

2. 설문 응답자 현황

○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 인식 실태조사’ 설문 응답자는 총 231명임

[표 6-2]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중	구분		응답자수	비중
전체		231	100.0	직업	무직	38	17.9
성별	남성	52	23.5		주부	115	54.2
	여성	169	76.5		상용근로자	35	16.5
연령별	10대	1	0.5		임시근로자	13	6.1
	20대	17	8.0		기타	11	5.3
	30대	15	7.1	이용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4	1.9
	40대	18	8.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	3.9
	50대	108	50.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9	67.5
	60대이상	53	25		장애인체육시설	19	9.2
지역구	일산동구	73	33.2		장애인복지관	16	7.8
	일산서구	65	29.5		재활치료센터	4	1.9
	덕양구	82	37.3		기타	16	7.8

* 결측제외

제4절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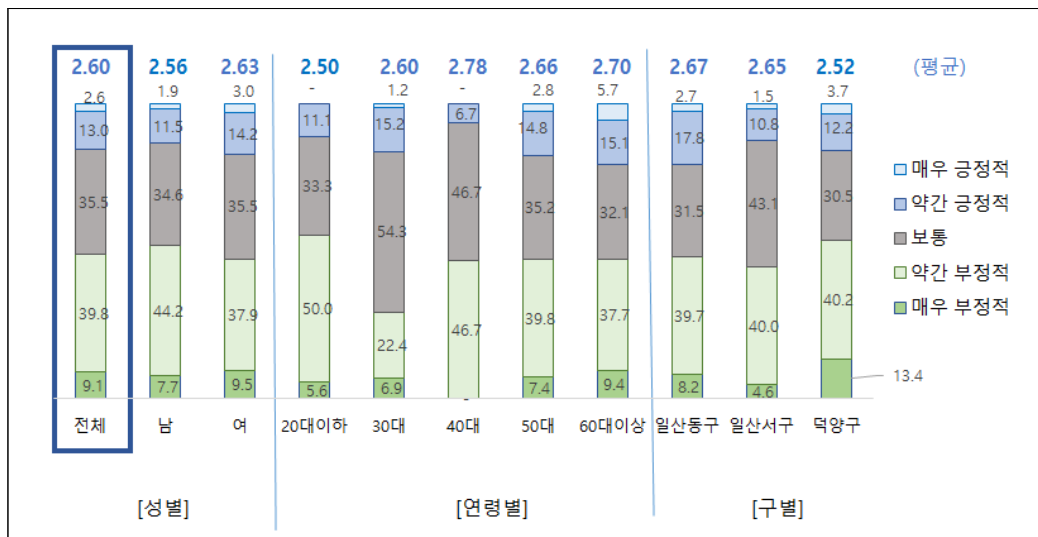
1. 사회에 대한 인식

1) 이웃사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 이웃사람의 ‘일반 장애인 전체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은 5점 만점 중 2.60점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 성별로는 남자가 여성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이웃사람의 인식정도가 부정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덜 부정적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세대에서 다 ‘보통’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 지역별로는 세 개 지역 중 덕양구에서 이웃사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생각하고 있음

[그림 6-10]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이웃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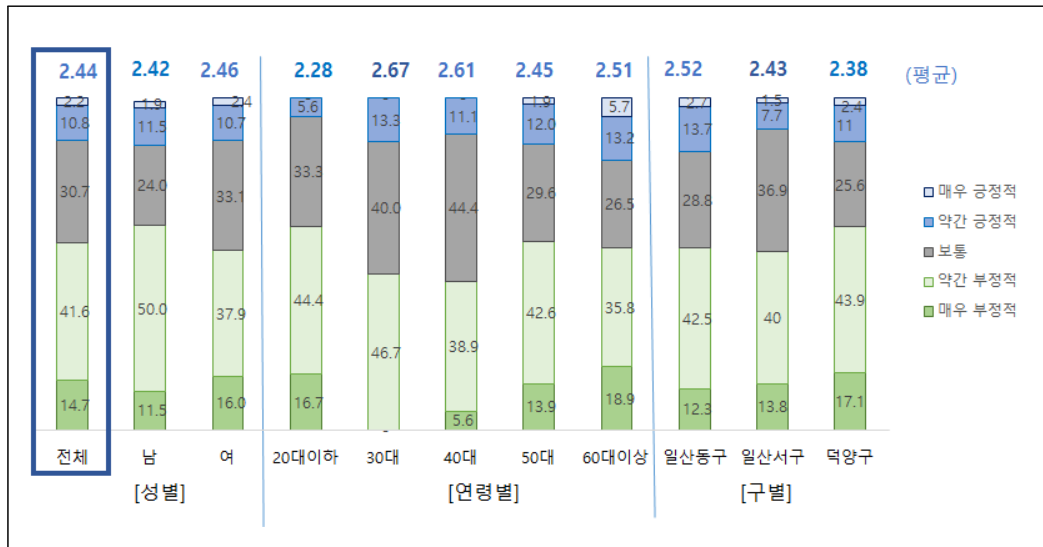


2) 이웃사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 이웃사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은 5점 만점 중 2.44점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일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보다 더 낮게 나타나 발달장애인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성별로는 남자가 여성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 연령별로는 이웃사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층은 20대로 나타났으며, 모든 세대에서 다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 지역별로는 세 개 지역 중 덕양구에서 이웃사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생각하고 있음

[그림 6-11]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이웃사람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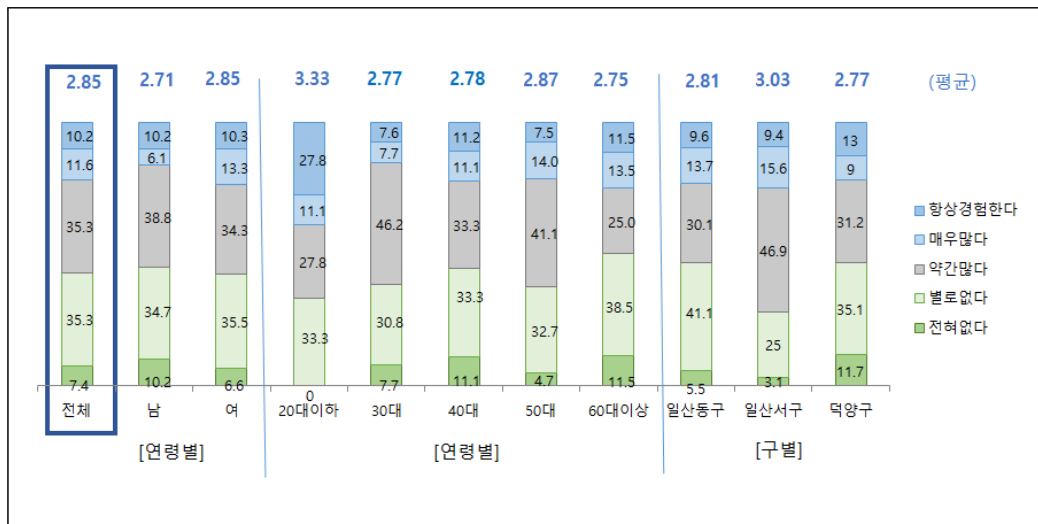


3)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차별 받는 정도

-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차별을 받는 정도는 2.85점으로 약간 많이 경험한다에 근접함. 전체적으로 57.1%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중 10.2%는 항상 차별을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가 3.33점으로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의 66.7%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
 - 지역별로는 세 개 지역 중 일산서구에서 발달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12]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이웃사람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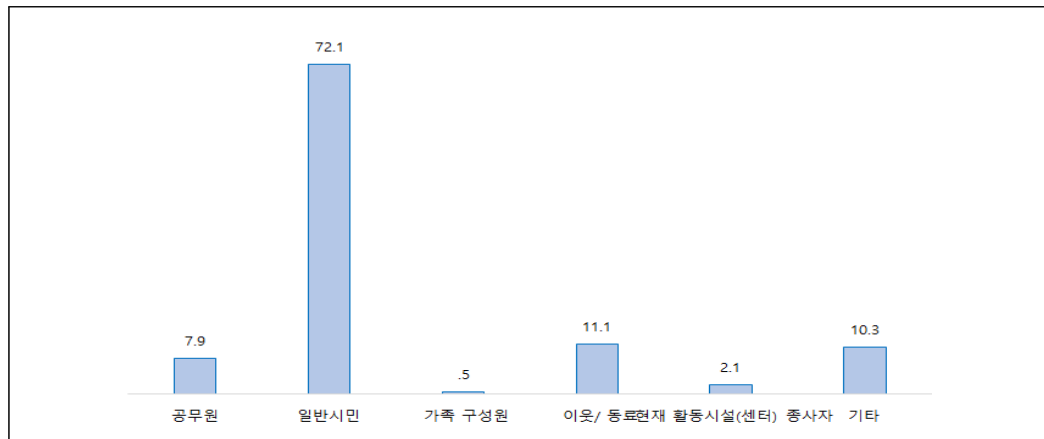


4) 차별하는 사람

- 차별을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차별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시민으로부터 차별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웃/동료 11.1%, 공무원 7.9%순으로 나타남

[그림 6-13]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차별하는 사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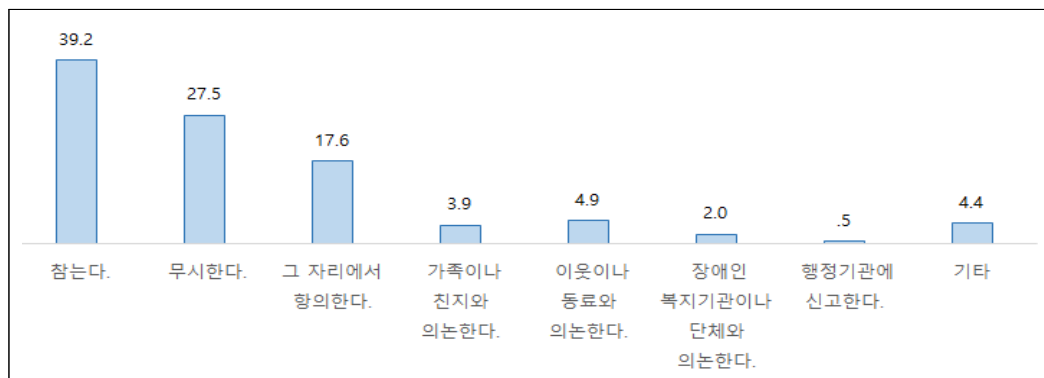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시 대처행동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는 참는다 39.2%, 무시한다 27.5%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전체의 66.7%로 높게 나타남
-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17.6%로 나타났으며 가족, 이웃과 의논한다가 8.8%,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단체와 의논한다가 2.0%로 나타났고, 행정기관 신고는 0.5%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 6-14]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시 대처 행동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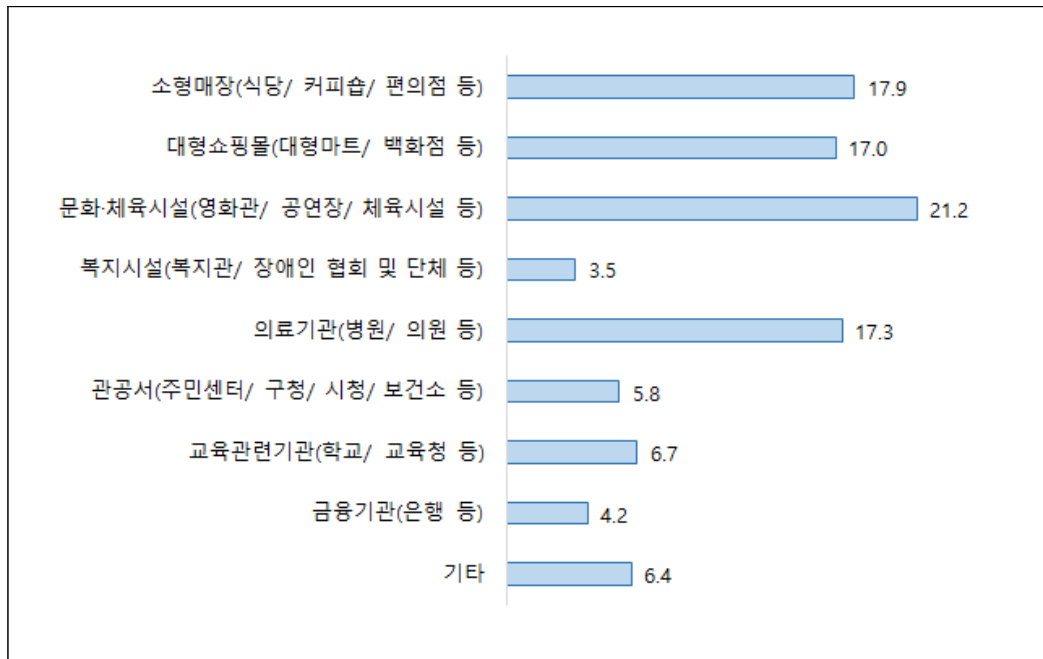


6) 장애인 차별 경험 장소

-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던 장소는 문화·체육시설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형매장 17.9%, 의료기관 17.3%, 대형쇼핑몰 17.0%, 교육관련기관 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5]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차별 경험 장소(1+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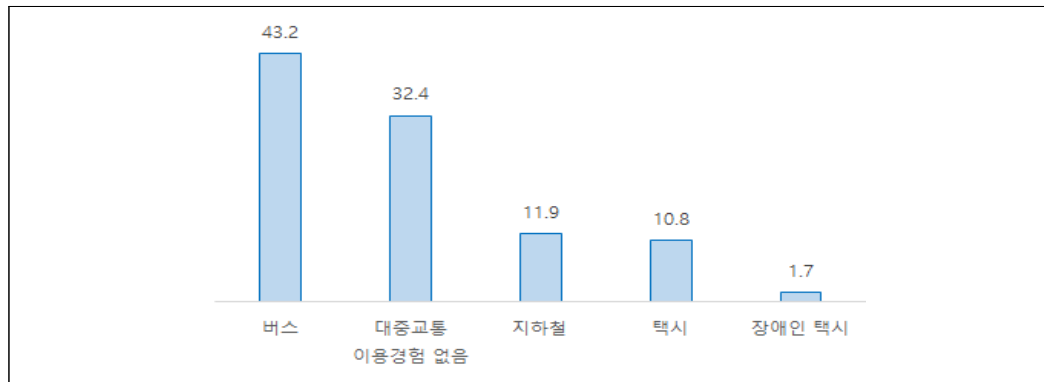


7)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

- 전체의 32.4%가 대중교통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났으며, 버스에서 차별 경험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지하철 11.9%, 택시 10.8%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택시를 타면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로 나타남

[그림 6-16]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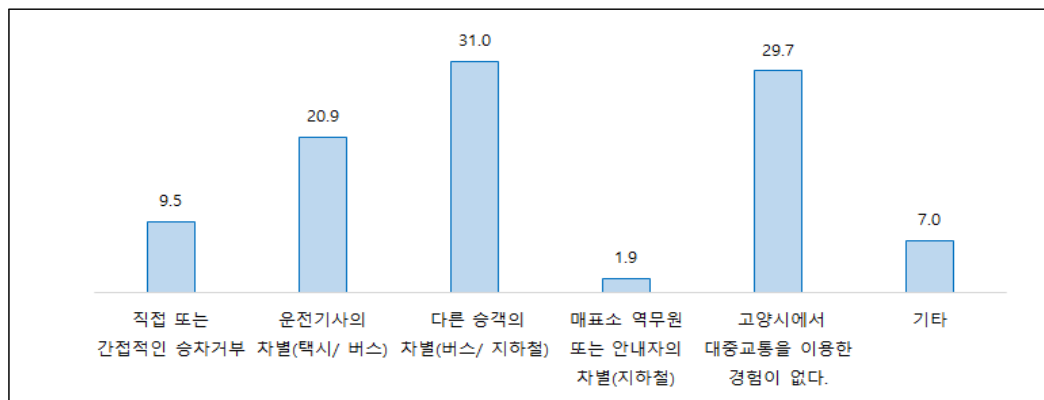


8)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내용

- 고양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29.7%로 높게 나타남.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받은 내용은 ‘버스,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차별’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택시, 버스에서 운전기사의 차별’이 20.9%, ‘직접 또는 간접적인 승차거부’가 9.5%로 나타남

[그림 6-17]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내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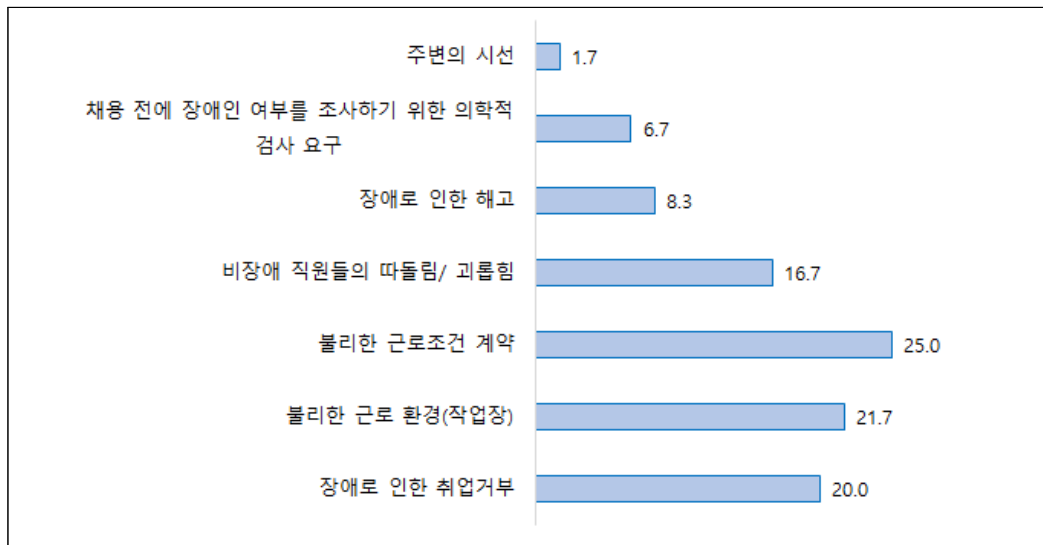


9) 장애인 자녀 근로 시 차별 경험(복수응답)

- 장애인 자녀 근로 시 차별경험에 있어서는 불리한 근로조건 계약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리한 근로환경 21.7%, 장애로 인한 취업거부 20%, 비장애 직원들의 따돌림/괴롭힘 16.7%, 장애로 인한 해고 8.3, 채용 전 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의학적 검사요구 6.7%, 주변의 시선 1.7%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8]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자녀 근로 시 차별 경험(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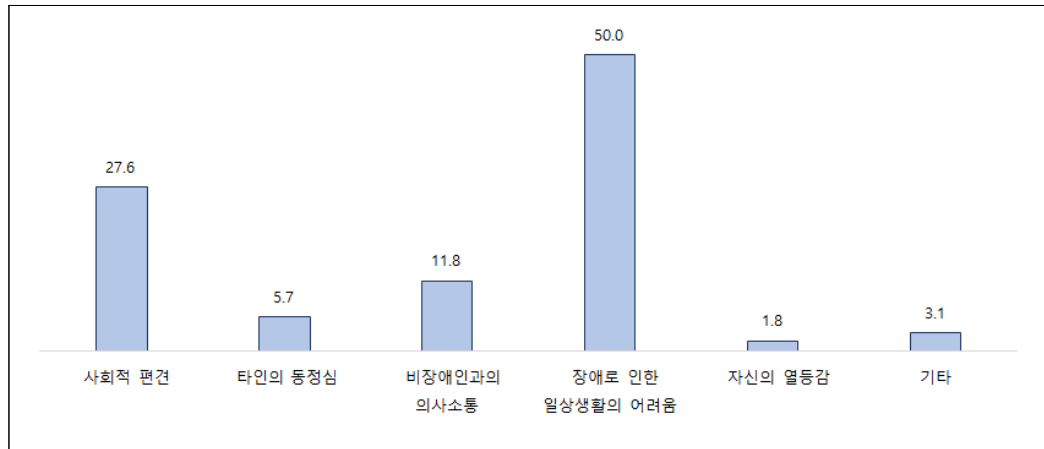


10)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

-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50%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편견’ 27.6%,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 11.8%, ‘타인의 동정심’ 5.7%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 ‘자신의 열등감’, ‘한부모 가족에 따른 어려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등이 있었음

[그림 6-19]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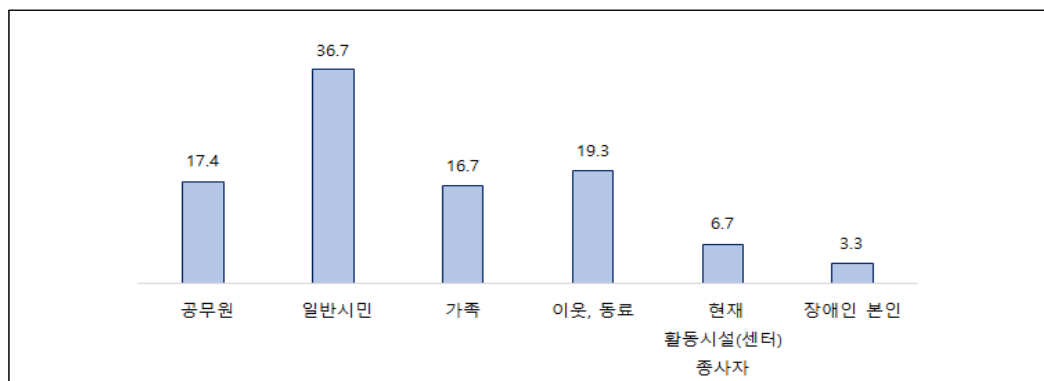


11) 인식개선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복수응답)

- 발달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변화해야 할 사람으로 일반시민(36.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이웃/동료 19.3%, 공무원 17.4% 순으로 나타남
- 이 외 가족 16.7%, 현재 활동시설 종사자 6.7%, 장애인 본인 3.3% 순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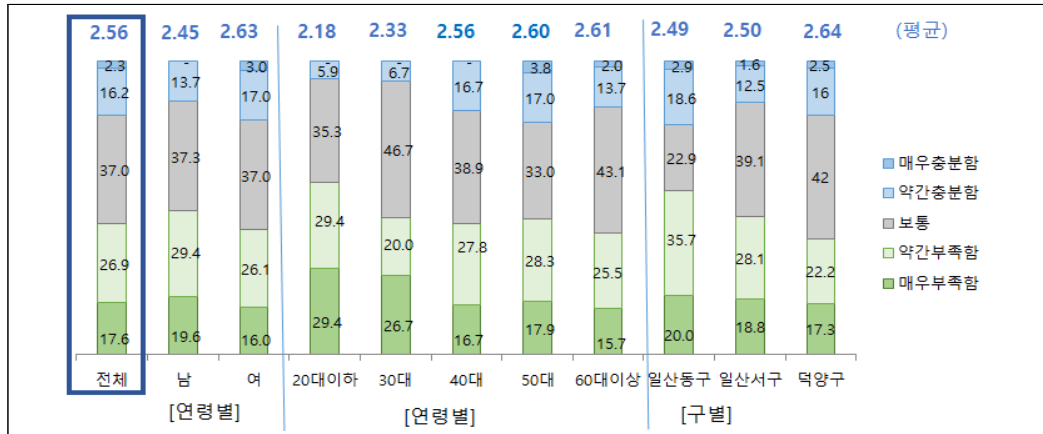
[그림 6-20]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람

(단위 : %)



-지역별로는 일산동구가 2.49점, 일산서구가 2.50점으로 덕양구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22]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고양시의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충분성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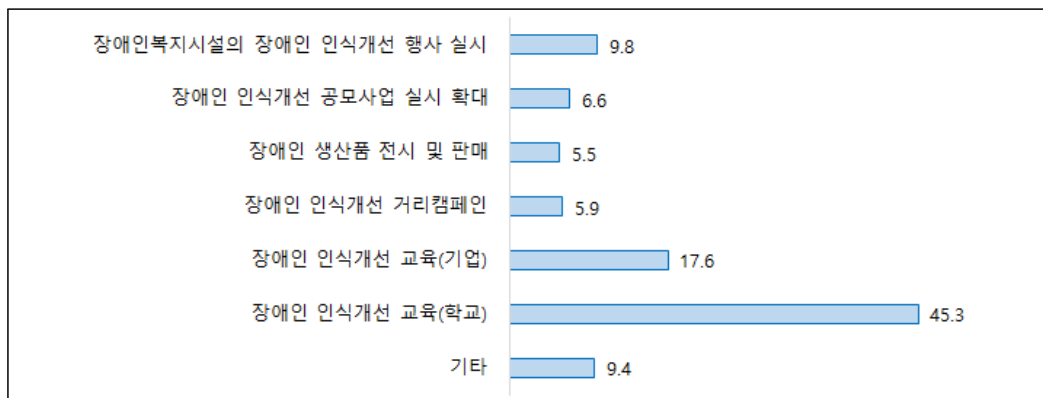


14)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학교에서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45.3%)과 ‘기업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7.6%)이 높게 나타남. 이 외 ‘장애인 인식 개선 행사 실시’ 9.8%, ‘장애인식개선 공모사업 확대’ 6.6%,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5.9%,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판매’ 5.5%로 나타남

[그림 6-23] 고양시 발달장애인 가족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단위 : %)



2. 기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시행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매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자제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익광고를 통한 장애인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관공서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복지사나 종사자들부터 중증장애인을 기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관에서 치료시 좋은 예후가 있는 장애인을 선별하여 치료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진행해주세요”

<기타 의견>

“부모와 함께 하는 영화관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확대, 요양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나이 제한 없이, 중증도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시설 개선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호 및 관리에 지친 부모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과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기관에 상관없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7 장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제1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개요

제2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결과 분석

제7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개요

- 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1.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방안 F.G.I. 개요

- 일시 : 2019년 9월 24일
- 참석 : 고양시 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 및 실무자(총 4개 기관)
- 내용 : 참석기관의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운영 현황,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의견 수렴
- 분석 방법
 - FGI 참여자의 인터뷰 녹취록을 3단계에 걸쳐 분석함. 첫 단계에서는 녹취록을 전반적으로 읽어본 후 인터뷰 내용 중 의미가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함. 두 번째 단계는 추출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유사한 내용들끼리 범주화하여 11개의 소주제로 묶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유사한 소주제들끼리 묶어 3개 주제별로 기술함

제2절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결과 분석

1. 고양시 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진 FGI 내용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FGI 참여자들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든 고양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시민사회 교육 안에 장애 인식 개선교육 포함’,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 인식 개선 교육강사로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구분		내용
장애 인식 개선교 육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든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본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시설 실무자, 비장애인(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여 교육 필요 - 장애인 관련 시설 실무자도 실제로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달라짐
	통합교육의 어려움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는 여러 변수에 따라 통합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 - 장애인의 경우도 통합교육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재활시설에 와서 다른 장애인에게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
	시민사회 교육 안에 장애 인식 개선교육 포함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의 경우 통합프로그램(평생교육과)에 참여하면서 장애 인식이 개선됨을 체감함 - 유치원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장애인당사자를 장애 인식 개선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수록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몰입도가 높음 - 비장애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일 수 있지만 장애인당사자를 강사로 파견하면 체험 효과도 있고, 교육에 대한 반응 및 효과가 있음

(1)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든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 본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시설 실무자, 비장애인(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여 교육 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달라지므로 장애인본인, 장애인가족, 장애인관련 시설 실무자 대상 교육도 필요해요.” (참석자 1)

- 장애인관련 시설 실무자도 실제로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관련 시설 실무자도 실제로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참석자 1)

“장애유형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유형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시각장애인과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의 세심한 부분까지는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석자 3)

-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달라짐

“발달장애인과 부모님을 비장애인 자원봉사자와 매칭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매우 싫어해서 사업이 잘 안됐어요. 장애인 부모님이 자신의 장애아이를 과보호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석자 4)

“장애아 부모들이 마음이 닫혀 있고 불만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부모에 대해 서로 비난해요.” (참석자 4)

“발달장애인들은 ‘동일한 교육방식’이 제일 중요한데, 복지관 교육 방침과 가정의 교육 방침이 달라서 힘이 들어요.” (참석자 3)

(2) 통합교육의 어려움이 많음

- 초중고는 여러 변수에 따라 통합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

“초등학교 때는 장애인과 같이 놀 수 있어서 좋는데, 중학교부터는 사춘기도 오고 착한척 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장애인과 융화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장애인과 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4)

“통합교육으로 비장애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석자 3)

- 장애인의 경우도 통합교육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재활시설에 와서 다른 장애인에게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

“제가 장애인 직업재활 쪽에 오래 있었는데, 통합교육을 받고 온 장애인과 특수학급 출신의 장애인이 매우 달랐어요. 통합교육에서 왕따를 당한 경우 특수학급 출신 장애인에게 같은 행동을 하는 우도 있어요. 직업재활 쪽 근무를 하면서 통합교육을 선호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참석자 3)

(3) 시민사회 교육안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의 경우 통합프로그램(평생교육과)에 참여하면서 장애 인식이 개선됨을 체감함

“지금은 프로그램도 가급적이면 지역사회 내에서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고양평생대학 같은 경우는 고양시청 평생교육 예산을 공모해서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이에요. 제 경험상 성인의 경우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효과가 좋아요.”
(참석자 3)

- 유치원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저희 복지관에서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장애를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으로 유치원~시민사회로 지라갈 때까지 장애 인식 개선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해요.” (참석자 3)

(4)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중고는 어릴수록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몰입도가 높음

“초중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나가는데, 강사는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예요. 보여지는 지적장애인, 청각,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의 인식 개선은 해결이 되는데, 발달장애인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부분은 고민이에요. 타 지자체에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1조가 돼서 교육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게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참석자 3)

- 비장애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일 수 있지만 장애인당사자를 강사로 파견하면 체험 효과도 있고, 교육에 대한 반응 및 효과가 있음

“장애인이 강의를 하면 효과가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비장애인강사가 장애인의

고충을 얼마나 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장애인강사가 강의하면 이론인데, 저는 지체장애인이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내장애인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요.” (참석자 2)

2)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 FGI 참여자들은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때 장애관련 기관 봉사활동 경험 기회 제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장애 인식 개선 사례 홍보 활성화’, ‘고양시 선도사업 제안’등을 언급함

구분	내용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p>초등학교 때 장애관련 기관 봉사활동 경험이 장애 인식 증진에 효과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5~6학년 때 홀트학교에 봉사활동 하러 간 경험이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는데 영향을 미침 - 초등학교 때는 장애인과 스스럼없이 놀지만 중학교부터는 거리감이 생김 - 청소년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오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먼저 시킨 후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므로 자원봉사가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음
	<p>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프로그램 확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페스타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다니거나 장애인 가족도 접하고,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거나 장애를 간접 체험하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p>지역사회 내의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요리교실, 식당 이용 등을 할 경우 처음에 거리를 두던 업주들도 장애인을 자주 접하면서 인식이 개선되고 호의적으로 변화됨
	<p>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 개선 사례 홍보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접촉 기회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이 개선된 사례를 홍보하는 것도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적
	<p>고양시 선도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양시 ‘꿈의 버스’, ‘장애인가족 한마음 캠핑 축제’ 등은 타 지자체에 없는 유일하며 선도적인 사업임 - 발달장애인은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표기(표지판)를 고양시 전체적으로 병기하면 자연스럽게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고양시 선도사업 희망)

(1) 초등학교 때 장애인관련 기관 봉사활동 경험이 장애 인식 증진에 효과적

- 초등학교 5~6학년 때 홀트학교에 봉사활동 하러 간 경험이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는데 영향을 미침

“저는 초중고를 고양시에서 나왔어요. 그 때 당시 5~6학년들이 홀트학교에 봉사활동 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서 사회복지 할 때 장애인가를 지원하는 데 그 기억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석자 4)

- 초등학교 때는 장애인과 스스럼없이 놀지만 중학교부터는 거리감이 생김

“초등학생 때는 장애인과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은데, 중학교부터는 사춘기도 오고 착한 척 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장애인과 융화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장애인과 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4)

- 청소년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오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먼저 시킨 후에 봉사활동에 참여하므로 자원봉사가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음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프로그램 확대 필요

-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다니거나 장애인 가족도 접하고,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가장 큰 인식 개선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리페스타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다니거나 장애인 가족도 접하고,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참석자 2)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 1로 만날 수 있는 부스 운영

“부스를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은 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장애인과 1대 1로 만날 수 있는 부스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3)

(3)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요리교실, 식당 이용 등을 할 경우 처음에 거리를 두던 업주들도 장애인을 자주 접하면서 인식이 개선되

고 호의적으로 변화됨

“결국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 장애 인식 개선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장애인 시설 내에서 요리강좌를 했다면 지금은 일반 지역 요리교실을 찾아가서
이용해요 체육활동 역시 일반 지역 스크리아구장 등을 찾아가서 하면서 업주 등에게 장애인 관련
내용을 인식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로 나가면서 장애인들도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점점
일반인과 접점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링장 업주들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와서 이용하라고 했다면 지금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장애인을 위한 레인을 빼주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식당 이용도 매우 힘들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음을 끊임없이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지금은 식당에서 저희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석자 3)

(4) 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 개선 사례 홍보 활성화

- 지역사회 내 접촉 기회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이 개선된 사례
를 홍보하는 것도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적

(5) 고양시 선도사업 확대

- 현재 고양시 ‘꿈의 버스’, ‘장애인가족 한마음 캠핑 축제’ 등은 타 지자체에 없는
유일하며 선도적인 사업임
- 발달장애인은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표기(표지판)를 고양시 전체적으로 병기하면 자연스럽게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고양시 선도사업 희망)

3) 기타

- FGI 참여자들은 기타 관련 내용으로 ‘장애 인식 개선 센터 개설 검토’, ‘장애시설을
후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등에 대해 언급함

구분		내용
기타	장애 인식개선 센터 개설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난방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원스톱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장애 인식개선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고양시 기업 대상 교육에 파견할 수 있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센터(사업)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인식 개선교육 및 강사 보수교육 등을 진행함 - 장애 인식개선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 보다 기존 인프라(예: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장애시설을 후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후원하는 기업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함 - 이런 기업들은 고양시에서 착한 기업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1) 장애 인식 개선 센터 개설 검토

○ 원스톱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중구난방으로 교육하는 것 보다 원스톱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석자 1)

○ 장애 인식개선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고양시 기업 대상 교육에 파견할 수 있게 연계

*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장애 인식개선교육센터(사업)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인식 개선교육 및 강사 보수교육 등을 진행함

“장애 인식개선 특수목적 센터가 있어서 교육인력을 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는 장애인, 비장애인 무관하고, 고양시 기업 대상으로 교육 할 수 있게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2)

○ 장애 인식개선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 보다 기존 인프라(예: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석자 3)

(2) 장애시설을 후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후원하는 기업에게 장애 인식 개선교육과 프로그램을 제 공함
- 이런 기업들은 고양시에서 착한 기업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2. F.G.I를 통한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교육 대상 :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든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 장애인본인, 장애인가족, 장애인시설 실무자
 - 비장애인(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장애인을 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
 - 교육 대상의 집단 특성에 맞게 세부 내용을 달리하여 교육 필요
- 교육 내용 : 장애 유형별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장애 유형별 이해 및 세부적인 에 티켓 안내 등
- 교육 방법 : 체험을 겸한 강의, 장애인당사자를 교육 강사로 양성 및 파견
- ※ 유의 사항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자질, 학급 내 분위기, 기타 다양한 변수 에 의해 통합교육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성인의 평생교육(시민사회 교육 등)에 장애 인식 개선교육 포함
 - 성인의 경우 통합프로그램(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장애 인식이 개선됨을 체감함
 - 시민사회 교육 안에 장애 인식 개선교육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프로그램 확대
 - 직장, 거리, 공원 등 사회에서 장애인이 많이 보여지는 것은 인식개선에 효과적

-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거나 장애를 간접 체험하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내의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시설을 이용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요리교실, 식당 이용 등을 할 경우 처음에 거리를 두던 업주들도 장애인을 자주 접하면서 인식이 개선되고 호의적으로 변화됨
- 초등학교 때 장애인 관련 기관 봉사활동 경험 기회 제공
 - 초등학생은 장애인과 스스럼없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친구라는 인식이 형성됨
- 특수학급, 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 통합교육으로 장애 인식이 낮아지지 않도록 학생, 교사 교육 및 지원 강화
- 장애 인식 개선 사례 홍보 활성화
 - 지역사회 내 접촉 기회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이 개선된 사례를 홍보하는 것도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적

3) 기타

- 장애 인식개선센터 개설 검토
 - 소규모 시설 및 업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형식적 교육을 하는 것보다 원스톱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 필요
 - 필요하다면 기존 인프라(예 :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한 센터 개설이 바람직함
 - 장애 인식 개선교육 인력(강사)을 양성하고 고양시 내 기업 교육에 파견하는 연계 역할 등
- 장애시설을 후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 고양시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을 후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제 8 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요약

1. 고양시 장애인구 및 정책 현황

1) 고양시 장애인구

(1) 고양시 등록 장애인구 비율

- 2019년 7월 현재,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고양시 전체인구 1,051,177명의 3.85%(40,286명)임
- 이는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 5.03%, 경기도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 4.21% 보다 낮음 554,110명(경기도 전체인구 13,176,011명의 4.21%)임
- 경기도 인구규모 유사지역인 수원시 3.57%(42,716명), 성남시 3.79%(35,884명)에 비해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이 약간 높음

(2) 고양시 등록 장애인구 변화

- 고양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00년 말 11,973명에서 2019년 7월말 40,286명으로 19년 동안 약 4배 정도 증가함. 고양시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등록 인구 비율 역시 2000년 1.5%에서 2019년 7월 3.85%로 증가함
- 2019년 7월 기준 고양시 장애인 인구 중 심한 장애는 15,366명(38.1%), 심하지 않은 장애는 24,920명(61.9%)임

(3) 고양시 장애 유형별 등록 현황

-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장애인 중 44.8%(18,038명)가 지체장애인임
- 청각장애인 13.4%(5,401명), 뇌병변장애인 10.5%(4,212명), 시각장애인 10%(4,033명), 지적장애인 7.8%(3,158명), 신장장애인 4.2%(1,698명), 정신장애인 3.6%(1,458명)임

2)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정책 현황

(1) 고양시 장애 인식 관련 조례

- 고양시는 2015년 10월 8일,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
- 제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기본계획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포함

(2)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사업

- 2019년도 고양시 장애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총 8개
 -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고양지부, 일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고양시 농아인협회 고양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양시지부, 나눔나무,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 학교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임
- 2019년도 고양시 공무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2019.6.25.)
 - ‘장애인과 함께하기’ 사전강의 및 ‘나의 특별한 형제’ 장애인 관련 영화 관람
- 2019년도 찾아가는 희망가득 공연상자 운영
 -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 인식 개선 사업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장애 인식교육과 공연 병행 실시
- 2019년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 장애 인식 개선사업 운영
 - 고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즐거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사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산서구 햇빛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 인식 교육 및 캠페인 실시

(3)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현황

- 장애 인식 개선교육 실적(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시스템에서 집계)
 - 고양시 어린이집~대학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율은 2016년 11.8% , 2017년 40.8%, 2018년 37.7%로 저조
 - 특히 유치원의 교육 이행률은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함
- 장애 인식 개선교육 방법

- 2018년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방법은 원격교육 39.6%, 내·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39.5%, 기타(체험 및 연수) 20.9% 순으로 이루어짐
- 최근 3년간 집합교육 비율은 감소하고(92.1% → 56.2% → 39.5%), 원격교육 비율이 증가함(4.3% → 23.4% → 39.6%)

2. 국내외 장애인 인식 개선 정책 사례

1) 국외 정책 사례

○ 국외 정책 사례는 구조적차원, 조직차원, 개인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구조적 차원의 접근 (장애 관련 법, 정부정책 등)	법, 정책 등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지시함으로써 장기간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침
조직 차원의 접근 (교육, 고용영역의 정책사업 등)	삶의 특정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함
개인 차원의 접근 (캠페인, 접촉프로그램 등)	개인의 인식 및 태도변화를 목표로 함

(1) 구조적 차원에서의 접근

- 법, 정책 등 구조적 차원에서의 개입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지시함으로써 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음.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으나 구조적 차원의 정책은 장기간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호주
 - 호주 정부 차원의 Discrimination Act(1992년), Disability Services Act(1986년)
 - 주 정부 차원의 법률(예: 빅토리아 주의 Disability Act, 2006) 및 Disability Action Plan
 -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Commonwealth Disability Strategy
 -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 장애 관련 이슈와 관련된 법적인 제

도, 연구조사, 제기된 불만들에 대해 안내, 포럼 개최, 컨설팅, 각 조직의 Disability Action Plan을 등록, 모범사례 예시 등 온라인 창구 역할

○ 영국

- 영국정부의 Disability Equality Duty(2006) :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공공영역에서 시민 혹은 고용인으로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

○ 미국

- 미국 정부의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993제정, 2008개정)임
: 연방 정부 기금과 관련이 없는 식당, 호텔, 극장, 쇼핑센터 등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장애인 접근을 막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을 명시
- 미국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Disability Office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웰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들의 실행과 조정을 감독

(2) 조직적 차원에서의 접근 - 고용, 교육 영역

- 조직 차원의 정책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특정 영역(고용, 교육 영역 등)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함

○ 호주(고용 영역)

- Job Access Information Service : 호주 정부 주도의 서비스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개별화된 상담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 SCOPE :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장애 인식 개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전문가로 훈련된 촉진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함
- 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AND) : 호주의 사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 장애인들이 고용인, 공급자, 소비자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장애인을 고용을 돕는 웹사이트를 개발 운영함
- Disability WA :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패키지와 병원, 관광, 소매, 엔터

테인먼트 종사자를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모두 고객서비스의 질, 장애를 가진 고객을 위한 안내, 장애 관련 법 및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점들, 장애를 가진 고객과의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고객 서비스를 위한 팁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됨

○ 미국(고용 영역)

- Tilting at Windmills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 중심의 훈련 워크숍(그룹 토의 및 참여적 훈련 방식 활용)으로 고용주들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노출시키고 그들의 비위협적인 방식의 부정적인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오해와 편견을 변화시키고, 법적인 의무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일본(고용 영역)

- ATARIMAE 프로젝트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전개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장애인 고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개인의 근로 동기나 능력 부족보다는 기업이나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이해 부족이라고 진단한 결과로 나옴. 온라인 사이트를 기반으로 유명 인사를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구하는 영상 및 메시지를 게시, 장애인 고용을 실천 중인 고용주와의 인터뷰 기사코너 등을 운영함

○ 호주(교육 영역)

- Disability Ambassadors in Schools 프로그램(시범 사업) : 고용, 스포츠, 예술 등 특정영역에서 성취를 이루어낸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youthappropriate') 사람들을 '홍보대사'를 구성하여 학교로 와서 다양한 장애 이슈들에 관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증진시킴
- Glen Eira시의 Disability Awareness in Schools 프로젝트 : 지역사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애 이슈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 교사를 위한 책자 보급, 교육 과정에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들로 구성됨
- 호주 Queensland주의 Just Like Me, Just Like You 프로젝트 :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증진에 초점을 맞춘 Disability Awareness Kit를 학교에 제공함. 키트에는 신체, 지적, 시각 및 청각 장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장애의 원인, 증상, 욕구, 대처 전략, 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함

○ 미국(교육 영역)

-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의 웹사이트 :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에 대한 목록들을 제공함
- Disability Awareness Activity Packet : 이 책자에는 자폐, 의사소통 장애, 청각 장애, 학습 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 장애 등 각 장애의 특징과 학생들이 각 장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담겨져 있음

(3) 개인적 차원에서의 접근

- 개인 차원의 정책은 일반 대중의 장애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접촉프로그램 등이 있음

○ 호주

- National Disability Awards 시상 :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및 기회 신장,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상 수여
- 국제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 행사 : 각 주 및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 기획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Don't DIS my ABILITY')
- 호주의 공영방송인 ABC : 프로그램 속에서 장애 관련된 이슈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비하 언어나 이미지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
- 예술을 활용한 장애 인식 캠페인 : 예술 활동서 예술가, 관객으로서 장애인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

- 'Like Minds, Like Mine 프로젝트' :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가이드 라인 배포 및 모니터링,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광고, 직장 내 인식 개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함

○ 영국

- 'Images of Disability' 캠페인 : 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보

들을 대중에게 알릴 때 사용되는 모든 광고에 장애인 이미지를 삽입하도록 함

- ‘Polls Apart’ 캠페인 : 장애인들의 투표권 향상을 위한 접근성 향상 캠페인
- ‘End the Awkward’ 캠페인 :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 ‘Now is the Time’ 캠페인 : 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 조기개입시스템 마련

2) 국내 장애 인식 개선 정책 및 통합교육 사례

(1)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 2018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 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정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장애물 없는 학교생활(BF)’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 및 실행
- 장애인인식개선 강연회 개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청소년 명예 촉진단’ 발족 및 활동 지원
- 장애인 생산 제품 전시·판매 ‘착한소비 행복장터’
-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 및 장애 인식 개선 체험 지원
- EBS 발달장애인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경기도

- 2017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장애 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
-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 등

(2) 민간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소외’ 의제 사업은 ‘한국장애인재단’을 중심으로 3년간 실행되었으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친화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실무자 및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함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장애 인식개선센터 개소
- 장애 인식 개선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초등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1교시’, 청소년을 위한 교육영상물 제작 및 보급,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3) 통합교육 사례

○ 제주동광초등학교(2014년 제주도교육청 ‘장애이해교육 시범학교’ 지정)

-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연 30시간 확보, 학년별 프로그램 적용
- 장애이해교육 워크북을 제작하여 장애이해교육활동 기록장으로 활용
- 인성동화 시청 방송 시간 운영, 토요일 방과후 수화반 운영, 통합체육활동 운영
- 장애 인식개선 독서행사, ‘책 읽어주는 어머니회’에서 장애이해 그림책 읽어주기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더불어 숲’ 장애체험장 체험학습 실시
- 학부모와 함께 하는 장애 인식개선 골든벨 대회 개최
- 지역사회 연계 장애 인식 개선 활동 : 장애인 스포츠 체험교육, 장애인 강사 교육,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등

○ 대림중학교(2017학년도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 중점학교’ 선정)

- 한 걸음(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통합교육 협의회 개최, 장애 이해 및 인권과 관련한 게시판 설치, 장애이해 도서 비치 등
- 두 걸음(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장애이해 퀴즈대회 실시, 장애 예술단을 통한 공연관람, 장애이해 사생대회 개최
- 세 걸음(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활동) : 통합 동아리 활동, 통합학급 체험학습, 통합 캠프, 장애체험활동 등

○ 계성고등학교(2017학년도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 중점학교’ 선정)

- 장애 이해 교육(비장애학생, 장애학생, 일반교사, 학부모 대상),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 체험, 사회적응훈련, 통합동아리, 또래 도우미 활동 등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함

3. 고양시민(성인 및 초중고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실태

1) 설문조사 결과

- 2019년 7월 고양시민(성인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실태’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장애수용태도 중 인지적요소는 초중고생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행동적요소는 성인이 초중고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및 단체활동에 대한 생각은 성인의 긍정응답 비율이 초중고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초중고생			구분	성인		
인지적요소 4.23점 정서적요소 3.77점 행동적요소 3.83점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14점 정서적요소 3.77점 행동적요소 3.91점		
있음 74.8% / 없음 25.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경험	있음 23.1% / 없음 76.9%		
긍정	보통	부정	(단위 : %)	긍정	보통	부정
36.6	41.8	21.5	장애인 문제 관심 정도	44.0	35.5	20.5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통합교육 선호도	[중장년층, 노년층 > 청년층]**		
37.2	51.7	11.1	단체활동 선호도	41.4	53.2	5.4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주위사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덕양구, 일산서구 > 일산동구]**		
38.2	51.8	10.0		42.7	51.9	5.5
[초등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34.2	34.4	31.5		28.7	43.5	28.7
-				[일산서구 > 덕양구, 일산동구]**		

- 성인의 79.2%, 초중고생의 79.0%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바람직한 교육 횟수 : 성인(1년에 한 번 55.7%, 6개월에 한 번 30.9%),
초중고생(6개월에 한 번 56.6%, 1년에 한 번 37.5%)
- 선호하는 교육 방법 : 성인(체험식 46.6%, 참여식 23.3%, 강의식 19.3%, 온라인 10%)
초중고생(체험식 60.4%, 강의식 18.5%, 참여식 11.2%, 온라인 10%)

초·중·고생	구분(단위:%)	성인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48.7)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32.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29.4)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47.4)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31.8)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27.3)
장애인을 흉내 내는 코미디 연기 (45.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 (40.8) 장애인을 나쁘게 표현하는 드라마·영화(38.1)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결여 (33.6)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 (29.0)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 (28.4)
사회적 편견 (64.2)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사회적 편견 (56.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61.6)	장애인 복지가 미흡하다면 주요 이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51.0)
알고 있음 (14.2)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인지 여부	알고 있음 (8.2)
자진해서 도움 (51.9) 청할 때까지 기다림 (42.2) 그 상황을 피함 (5.2)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진해서 도움 (53.8) 청할 때까지 기다림 (44.2) 그 상황을 피함 (2.0)
필요하다 (79.0)	장애 인식개선교육 필요성	필요하다 (79.2)
반기 1회 (56.6), 연 1회 (37.5)	바람직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횟수	연 1회 (55.7), 반기 1회 (30.9)
체험식 교육 (60.4), 강의식 교육 (18.5), 참여식 교육 (11.2), 온라인 교육 (10.2)	선호하는 교육방법	체험식 교육 (46.6), 참여식 교육 (23.3), 강의식 교육 (19.3), 온라인 교육 (10.0)
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리기 및 이해 (55.9) 장애인과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16.3) 장애인권 피해사례 영상 시청 (16.3)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안내 (9.4)	유익했던 장애 인식개선 교육내용	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리기 및 이해 (53.8) 장애인과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22.3) 장애인권 피해사례 영상 시청 (10.6)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안내 (10.1)
장애 체험 (22.1)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13.7)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 (11.6) 장애인과 함께 한 캠프 (5.5)	인식개선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 (17.2) 장애 체험 (6.8)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6.0) 장애인과 함께 한 캠프 (5.4)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50.4) 기업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12.3) 장애 인식개선 행사 실시 (8.9) 장애인 거리음악회 및 공연 (7.7)	고양시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확대 해야 하는 사업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44.1) 장애 인식개선 행사 실시 (15.0) 기업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7.0) 장애 인식개선 공모사업 실시 확대 (6.9)

- 학급 내 장애친구 유무, 학교 내 특수학급 유무, 장애인관련기관 봉사활동 참여 유무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정도와 장애수용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학교 내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와 학급 내 장애친구가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지원 없이 통합 교육이 실시될 경우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자존감이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태도개선과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이고 이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

〈 고양시 초중고생 - 학교 내 특수학급 유무, 학급 내 장애친구 유무에 따른 차이 〉

유의 차 항목 (5점 척도, 단위 : 점)		학교 내 특수학급 여부			학급 내 장애친구 여부		
		있음	없음	비고	있음	없음	비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14	3.31	-	3.10	3.28	*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19	4.45	***	4.15	4.37	***
	정서적요소	3.72	4.05	**	3.67	3.95	***
	행동적요소	3.77	4.17	***	3.72	4.02	***

※ 비고(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초중고생, 성인 모두 장애인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장애수용태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도 높고, 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거나 단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양시 성인 및 초중고생 - 장애인 관련기관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

유의 차 항목 (5점 척도, 단위 : 점)		초중고생(장애인기관봉사활동)			성인(장애인기관봉사활동)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고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40	3.06	***	3.53	3.14	***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38	4.16	***	4.27	4.07	***
	정서적요소	4.03	3.65	***	3.81	3.73	-
	행동적요소	4.11	3.70	***	4.05	3.83	***

※ 비고(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 성인은 장애 인식 개선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장애수용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장애 인식 개선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장애수용태도(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초중고생의 경우 장애 인식 개선교육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가 차이 나지 않음. ‘장애수용태도’ 역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
 -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인지적요소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초중고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경우 장애수용태도(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고양시 성인 및 초중고생 - 장애 인식 개선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

유의 차 항목 (5점 척도, 단위 : 점)		초중고생(장애 인식개선교육)			성인(장애 인식개선교육)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고	경험있음	경험없음	비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16	3.16	-	3.44	3.22	*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26	4.14	*	4.24	4.13	**
	정서적요소	3.78	3.68	-	3.87	3.71	**
	행동적요소	3.83	3.76	-	4.05	3.87	**

※ 비교(유의확률) : * < 0.05 , ** < 0.01 , ***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

[초중고생 : 장애 인식개선교육 경험 있음 403명, 없음 137명 ⇔ 성인 : 장애 인식개선교육 경험 있음 154명, 없음 466명]

※ 참고 (각 영역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장애 인식 개선교육 경험 유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3.29	3.28	2.99	3.10	3.19	3.15
장애수용태도	인지적요소	4.33	4.30	4.19	4.07	4.24	4.11
	정서적요소	3.92	3.86	3.66	3.60	3.76	3.68
	행동적요소	3.94	3.86	3.67	3.69	3.87	3.77

4. 고양시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

1) 설문조사 결과

○ 2019년 7월 고양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1) 발달장애인 당사자

-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타인의 행동 및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의 12.5%는 “사람들이 인상 쓰며 저리가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했고, 13.6%는 “사람들이 본인을 보면 피한다”라고 응답하며 부정적인 경험을 한 비율도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78.8%가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함께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친구 47.1%, 가족 26.7%, 선생님 18.1% 순으로 나타남
- 복지관 등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 이용 경험은 76.5%로 나타났고, 기관 이용시 83%가 좋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함
- 도움 필요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2.7%로 나타남
- 도움 필요시 요청대상은 가족이 60.5%로 가장 높은 반면 이웃은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도움 요청 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5.9%로 나타남

(2) 발달장애인 가족

구분	내용 (%)	구분	내용 (%)
이웃사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 2.60점(5점 만점)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 긍정적(15.6), 보통(35.5), 부정적(48.9) - 남성, 20대가 부정적으로 인식	장애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	-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50) > 사회적 편견(27.6) >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11.8)

구분	내용 (%)	구분	내용 (%)
이웃사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4점(5점 만점)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 긍정적(13), 보통(30.7), 부정적(56.3) - 남성, 20대, 50대, 덕양구가 부정적으로 인식 	인식개선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	일반시민(36.7) > 이웃동료(19.3) > 공무원(17.4) > 가족(16.7)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사회에서 받는 차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5점(5점 만점) (점수 높을수록 차별정도 심함) - 별로, 거의 없다(42.7) - 약간~항상 경험한다(57.1) - 여성, 20대, 일산서구가 차별경험 많음 	시설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 이해와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5점(5점 만점)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 부족함(24.2) - 보통(28.0), 충분함(47.9) - 여성, 20대가 부정적으로 인식
차별을 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민(72.1) > 이웃, 동료(11.1) > 공무원 (7.9) 	고양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의 충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6점(5점 만점) (점수 높을수록 긍정적) - 부족함(44.5) - 보통(37.0), 충분함(18.5) - 남성, 20대가 부정적으로 인식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시 대처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는다, 무시한다(66.7)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화(45.3) - 기업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화(17.6%)
장애인 차별 경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21.2) > 커피숍 등 소형매장(17.9) > 병원 등 의료기관(17.3) 	기타 (서술형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올바른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인식개선 공모사업 확대 - 장애인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 확대 - 장애인 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등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43.2) > 지하철(11.9) > 택시(10.8) ※대중교통 이용 경험 없음(32.4) 		

5.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방안 F.G.I 결과

- 고양시 장애인 관련 기관 운영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장애인 인식 사업 현황과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3개 대주제 11개 소주제로 분류됨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든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 통합교육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필요
-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애 인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 교육 안에 장애 인식 개선교육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당사자를 장애 인식 개선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초등학교 때 장애관련 기관 봉사활동 경험이 장애 인식 증진에 효과적이므로 저 연령일 때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지역사회 내 일반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자주 접할수록 인식기 개선되므로 지역 내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 개선 사례 홍보 활성화
- ‘장애인 꿈의 버스’ 등 타지자체에 없는 선도적 사업의 지속 확대 유지와 발달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등 선도사업 확대 필요

(3) 기타

- 장애 인식 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장애 인식 개선 센터 필요
- 기업을 장애시설에 사회공헌을 할 경우 장애 인식 개선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후원과 인식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제2절 정책 제언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방향, 국내외 정책 사례 연구, 고양시 정책 및 장애인구 현황, 고양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언함

연구내용	분석결과 핵심이슈	장애인식 개선방안	세부추진과제
정부의 장애 인식개선 정책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및 활성화(로드맵마련) 인식개선지표개발 장애인식교육기관 설치 수요자특성별 표준강의안 양질의 콘텐츠 발굴 전문강사 양성시스템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특수학교 특수학급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학교,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기업 교육 의무화 장애인식교육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과제 1 장애인식개선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제 2 장애인식개선 관련 조례 개정 과제 3 장애인식개선정보 온라인시스템 마련 과제 4 장애인 후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해외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로드맵 2025 - 호주 액션플랜 도입 영국 캠페인 -정부 정책정보에 장애인이미지 삽입 미국 DASH 등 - 온라인시스템 효과 높음 미국,호주 - 예술활동의 장애인 참여가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 개선센터 설치 (컨트롤 타워)	과제 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학교기관기업 등) 과제 2 기관별로 분산된 인식개선교육 통합 연계 과제 3 지역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네트워크 강화 과제 4 장애인식관련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국내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 EBS 발달장애 홍보영상 제작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조례 제정 제주도 - 동광초등학교 시범학교 사례 	장애인 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 내실화	과제 1 강의안 등 다양한 공모전 실시 과제 2 장애인 당사자 강사 활동 강화 과제 3 생애주기 역할 고려한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발 과제 4 장애인식프로그램 효과성검증 및 성과지표개발
고양시 장애인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추세(2019.7. 약4만명 ↑) 장애유형 :지체 49% 청각 13% 시각/발달/뇌병변 각 10% 실태:구매접근제한, 교통수단미흡, 노동기회차별 	충충한 대상별 교육 강화	과제 1 장애인식개선교육 사각지대 해소(노인 주부 등) 과제 2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과제 3 유아대상 장애인식 교육 강화 과제 4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교육 강화
고양시 장애인식개선 정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수립-지역사회보장계획 대체가능 조항 고양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이 높지 않음 비경제활동인구, 노인은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 장애인식개선사업 공모전 진행○강의안 공모전 진행 X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미비 성과지표 X 	사회적 확산	과제 5 버스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 교육 강화 과제 1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및 캠페인 과제 2 함께 하는(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과제 3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과제 4 장애인 홍보대사(당사자) 위촉 및 활동 과제 5 공공기관 광고 및 홍보물에 장애인 이미지 삽입
고양시민의 장애인식 설문조사 (성인, 조중고생, 장애인당사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조중고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용어가 부정적 인식 영향 성인조중고 -올바른 교육과 정보제공이 긍정적 인식 영향 성인조중고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장애인식에 긍정적 영향 장애인가족 - 장애인식개선 공익광고 필요성 의견 제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변화 필요 -시민 36.7% 공무원 17.4% 고양시 확대사업 1순위 - 장애인식 개선교육 생애주기(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 내용, 방법 다름 성인 - 장애인식개선교육 경험 여부가 장애수용태도에 영향 조중고-특수학급, 학급내 장애인구 있는 경우 장애수용태도 낮음 조중고 - 인식개선교육 경험 여부가 장애수용태도에 영향 X 	고양시 장애인식개선 특화, 선도사업 추진	과제 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범학교 지정 과제 2 특수학급 학교 장애인식 교육 및 지원강화 과제 3 장애인예술인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실시
고양시 장애인관련기관 실무자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관련기관 종사자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지식 부족 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활동이 효과적 통합활동에 대한 장애인 부모의 인식 교육 필요 장애인식개선 특수목적센터 필요성 제기 장애인고용 비장애인의 접근 확대 및 기회 마련 중요 장애인 당사자 교육의 효과성 높음 		

1.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 연구결과

- 사례분석 : 영국 로드맵 2025, 호주에서 실천중인 Action Plan 도입 효과 높음
- 사례분석 :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장애 인식 개선교육지원 조례 제정
- 사례분석 : 미국의 DASH(Disability Awareness Starts Here)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Youth 등 온라인 시스템 효과 높음
- 정책분석 :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 5조 기본계획 수립이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음 조항 변경 필요
- FGI분석 : 장애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교육 및 훈련 필요
- FGI분석 : 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 활동이 장애 인식 증진에 효과가 높음

○ 정책과제

중점과제1.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제2. 장애 인식 관련 조례 개정
 과제3. 장애 인식 정보 온라인시스템(홈페이지) 마련
 과제4. 장애인 후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고양시민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단계별 계획수립이 필요함
- 고양시는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5년)’를 제정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수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에 계획 수립 실천이 필요하며 기본 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단계별 계획 시 호주에서 실천중인 Action Plan의 개발 및 실행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Action plan은 상품, 서비스, 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조직들이 장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직과 장애를 가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자발적이고 예방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
- 현재 조례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5년 주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필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 사업 관련 수요자, 공급자, 관련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애 인식 개선 관련 고양시 온라인 정보원을 마련하여 좋은 실천 모델에 대한 공유를 확산하고, 장애 인식 개선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장애인을 후원하는 기업 활동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소속원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됨.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후원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의 고려가 필요함

2. 장애 인식 개선 센터(컨트롤 타워) 설치

○ 연구결과

- 정책분석 : 장애 인식 교육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실제 연계가 되지 않고 실적취합도 되지 않고 있음
- 정책분석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행률이 40%(어린이집~대학교)로 낮음
- FGI분석 : 장애 인식개선 특수목적 센터 필요성이 제기됨
- 사례분석 : 호주의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운영효과성 높음

○ 정책과제

중점과제 1. 장애 인식 개선교육 실적 관리(학교, 기관, 기업 등)
 과제 2.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식개선교육 통합·연계
 과제 3. 지역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네트워크 강화
 과제 4. 장애 인식 관련 모니터링 사업 활성화

- 장애 인식 개선과 관련된 자원 수집 및 정보 제공, 성공사례 공유 등 일원화된 창구 역할과 교육 체계 전반을 관리하고 장애 인식 개선사업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괄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 인식 개선 의무 교육 체계와 달리,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갖추지 않고 교육이 부처,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고양시 차원의 장애 인식 개선사업 통합적 실적 관리 필요
- 고양시, 교육청, 장애복지시설 및 기관, 상공회의소 등 지역 유관기관 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 인식센터를 중심으로 장애 인식 개선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필요
- 장애 인식 관련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 요청 및 추진 필요

3. 장애인 당사자 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 내실화

○ 연구결과

- 정책분석 : 고양시는 현재 장애 인식 사업에 대한 공모전은 진행되고 있으나 강의 안 공모전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정책분석 : 지금까지 장애 인식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효과성 검증이 미비하고 성과지표 개발이 되지 않았음

- 설문조사/FGI 분석 : 생애주기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의 내용, 방법이 상이함
- FGI분석 :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의 고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장애인 자신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정책과제

중점과제 1. 강의안 등 다양한 공모전 실시

중점과제 2. 장애인 당사자 강사 활동 강화

과제 3. 생애주기, 역할을 고려한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발

과제 4. 장애 인식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및 성과지표 개발

- 피 교육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다양해 질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장애 인식 개선 공모사업을 확장하여 교육콘텐츠를 공모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양질의 교육콘텐츠 발굴 필요
- 피교육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함과 동시에 공모전 자체가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실시, 확산 등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활동 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효과가 높아지고 장애인 고용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당사자가 주요 강사로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초중고, 청년, 중년, 노년의 장애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선호하는 교육방법이 다르므로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필요
- 학생, 교원, 직원, 사업체 내 관리자, 근로자 등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다양화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시 사회복지, 심리, 특수교육, 체육, 예술, 방송, 공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개입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실시 후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고 고양시 전체, 부문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검증 및 지표 개발이 필요함

4. 촘촘한 대상별 교육 강화

○ 연구결과

- 정책분석 : 비경제활동인구 및 노인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됨
- 정책분석 : 고양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통합학급 비율이 매우 낮음.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입학 이전 간접적으로라도 장애를 접한 경우 학교 입학 후 장애 학생에 대한 태도가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남
- 정책분석 :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적이 높지 않음. 특히 유치원의 경우 2018년 현재 이행률이 18.8%로 매우 낮음
- 설문조사 : 성인의 경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여부가 장애 수용성 모든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설문조사 :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결정요인으로 초중고 성인 모두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설문조사 : 고양시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확대해야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제 1순위로 꼽힘
- 설문조사 : 인식개선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으로 공무원 26.8%로 일반시민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FGI 분석 : 장애인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FGI 분석 :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 활동에 대한 장애부모의 인식 교육 필요
- 설문조사 :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 경험 많음

○ 정책과제

중점과제 1. 장애 인식 교육 사각지대 해소(비경제활동인구, 노인 등)

중점과제 2. 장애 관련 기관 직원 및 공무원 교육 강화

과제 3. 유아대상 장애 인식 교육 강화

과제 4.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교육 강화

과제 5. 버스,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 교육 강화

- 보건복지부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대상에서 비경제 활동인구와 노인은 제외됨. 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을 통해 장애 인식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들과 접점에 있는 장애시설 직원 및 공무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함. 장애 관련 기관 직원과 공무원의 인식 증진을 위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함
-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조기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현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고양 시내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합학급 설치 비율이 높은데 반해 통합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의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유치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행률이 낮은 만큼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특히, 장애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학생~청년에 대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 당사자에게 비장애인과 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에티켓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부모들에게도 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술, 장애자녀가 비장애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별 경험을 많이 함. 버스,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장애 인식 교육이 필요함

5. 사회적 확산

○ 연구결과

- 문헌연구 :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 접촉이론임
- 사례분석 : 서울시는 EBS를 통해 발달장애 홍보영상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시리즈’ 제작
- 사례분석 : 영국의 ‘Images of Disability’ 캠페인은 정부의 정책 정보, 광고에 장애인 이미지 삽입
- FGI 분석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자주 접하는 것임.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마련이 중요함
- 설문조사 : 청소년 및 성인 모두 장애인 자원봉사 활동 경험 유무가 장애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침
- 설문조사 :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장애 인식 개선 공익광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많음
- 설문조사 : 청소년 및 성인 모두 바보, 병신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가 장애 부정인식의 결정요인으로 꼽고 있음
- 장애 인식 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캠페인 진행 검토 필요

○ 정책과제

중점과제 1. 올바른 언어사용 교육 및 캠페인

중점과제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과제 3.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검토

과제 4. 장애인 홍보대사(성공스토리 당사자) 위촉 및 활동

과제 5. 공공기관 광고 및 홍보물에 장애인 이미지 삽입

- 생활 속에 장애 차별을 하는 언어 및 표현을 찾아 개선하고 올바른 언어사용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함
-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접촉을 할 경우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므로 접촉의 기회를 확대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봉사활동을 할 때 그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견에 공익광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많음. 서울시가 EBS를 통해 발달장애 홍보영상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시리즈’를 제작한 것과 같이 고양시도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익광고 제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와 같이 고양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광고 및 홍보물에 장애인 이미지를 삽입하여 장애 인식을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6.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특화선도사업 추진

○ 연구결과

- 사례분석 : 제주 동광초등학교와 같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학생, 학급 내 장애 친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례분석 : 예술 활동에 있어 예술가, 관객으로서 장애인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 만으로도 사람들이 장애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호주의 ‘Picture This’, 미국의 VSA(Very Special Arts) 등

○ 정책과제

중점과제 1.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 지정

중점과제 2. 특수학급 학교 장애 인식 교육 및 지원 강화

과제 3. 장애인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시

- 고양시 초·중·고등학교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확산 유도
- 고양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학생 및 교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필요함. 통합 교육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중요하지만 적절한 지원 없이 통합 교육이 실시될 경우 장애를 가진 학우의 자존감이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합교육에 앞서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애인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장애인 문화, 체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참고문헌

[인용문헌]

- 강연심(2015). “장애이해 교육활동으로 장애 인식 개선의 꽃을 피워요”, 교육제주.
- 경기도(2010).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11~2015)』.
- 경기도(2015).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2016~2020)』.
- 고양시(2019).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 각 연도(2001~2018)』.
- 고양시(2016).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복지육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
- 고양시(2018). 『제7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 고양시(2018).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연차별 실행계획서』.
- 관계부처합동(1997).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 관계부처합동(200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 관계부처합동(2007).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 관계부처합동(2012).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 관계부처합동(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 5개년 계획(2018~2022)』.
- 교육부(2017). 『제5차 특수교육발전계획(2018~2022)』.
- 김대명(20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김동일 외(2018). 『장애 인식개선교육 중장기 로드맵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미옥 외(2018). 『배분의제 2-3차년도 성과평가(소외)-장애인의 안전한 삶 지원 사업』.
- 김지원·박지연(2014). “학교폭력에 취약한 장애학생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과 학교폭력 피해 원인 고찰”, 발달장애연구.
- 남용현 외(2011). 『장애 인식 개선교육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사랑의복지관(2017).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공모사업-청소년 인권의식 및 장애수용태도에 대한 실태조사』.
- 서울시(2019). “장애인 생산 제품 전시판매 ‘착한소비 행복장터’ 보도자료”.
- 서울시교육청(2018). 『2017학년도 통합교육중점학교 운영보고서』.
- 손병덕 외(2008).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공무원 대상』,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현수·남희은(2004). “통합체육수업이 일반여자 중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 전동일·원종필(2014).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공무원용』, 한국장애인개발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 『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A Victorian Government initiative. *Community consultation report and analysis*, “Picture This: Increasing the Cultur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a Disability in Victoria”, 2009.

Bev Adcock and Michael L. Remus. *Disability Awareness Activity Packet*, (Possibilities, Inc. 2006).

Thompson, et al., “Community attitudes to people with disability: scoping project”, 2012.

Rizzo, Terry L., and Don R. Kirkendall. “Teaching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What affects attitudes of future physical educators?,”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2.3, 1995.

[관련문헌]

강용주·박자경·진홍섭(2008). 『장애인 고용인식개선을 위한 EDI 행동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대규 외(2010).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EDI 행동프로그램 II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소영 외(2013).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적 홍보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박자경(2008). “장애인 고용가능성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과 실제-영국 남동부지역 사업체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박자경·김종찬·염희영(201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변민수·박자경·김진우(2010). 『사업주의 장애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심진애(2018).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한선(2011).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의 인식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혜경 외(2017). 『장애 인식개선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양성체계 마련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Bunch, G and Valeo, A. “Student attitudes toward peers with disability in inclusive and special education schools”, *Disability and Society*, 19(2004) : 61-76.
 Burge, P, Ouellette-Kuntz, H and Hutchinson, N. “A quarter century of inclusiv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Ontario: public perception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87(2008) : 1-22.
 Cameron, Land Rutland, A. “Extended contact through story reading in school: reducing children’s prejudice toward the disabled”, *Journal of Social Issues*, 62(2006) : 469-88.
 Foley, J. T, et al., “How to develop disability awareness using the sport education model”,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78(2007) : 32-36.
 McKay, C. “Paralympic School Day: A Disabil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Palaestra*, 27(2013) : 14-19.
 Papaioannou, C., et al., “Disability Awareness Program In a Summer Camp”, *Europ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6(2013) : 19-28
 Sirlopú, D, et al.,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own syndrome: the benefit of school inclusion program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8(2008) : 27-36.

[기타자료]

- 강남구청 www.gangnam.go.kr. 접속일 2019.9.24.
- 경기도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560260061. 접속일 2019.10.8.
- 경기복지재단 ggwf.gg.go.kr. 접속일 2019.10.11.
- 경기연구원 www.gri.re.kr. 접속일 2019.10.11.
- 고양시청 www.goyang.go.kr. 접속일 2019.1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접속일 2019.9.23.
- 사회보장정보원 www.ssis.or.kr. 사회보장통계, 인출일 2019.8.30.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https://www.seouldanurim.net>. 접속일 2019.9.24.
-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접속일 2019.10.11.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http://newsearch.seoul.go.kr>. 접속일 2019.9.24.
- 서울연구원 www.si.re.kr. 접속일 2019.10.11.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http://www.wefirst.or.kr>. 접속일 2019.9.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접속일 2019.10.11.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접속일 2019.10.1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접속일 2019.10.1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https://edi.kead.or.kr>. 접속일 2019.10.11.
- 한국장애인재단 <https://www.herbanum.org>. 접속일 2019.9.15.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27.101.213.4>. 접속일 2019.8.12.
- AFL Community (<http://www.aflcommunityclub.com.au/>) 접속일 2019.10.10.
- ATARIMAE PROJECT (<http://www.atarimae.jp>) 접속일 2019.10.8.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disability-rights/disability-discrimination-act-action-plans-guide-business>),
접속일 2019.10.10.
- 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 (<https://www.and.org.au>) 접속일 2019.10.10.
- DASH (<https://dashproject.org/get-involved/>) 접속일 2019.10.7.
- IPC (<https://www.paralympic.org/the-ipc/paralympic-school-day>) 접속일 2019.10.10.
- JobAccess Information Service (<https://www.jobaccess.gov.au/home>) 접속일 2019.10.8.
- SCOPE (<https://www.scope.org.uk/campaigns/>) 접속일 2019.10.7.
- VSA (<http://education.kennedy-center.org/education/vsa/>) 접속일 2019.10.10.

부록

설문조사표(고양시 성인의 장애 인식 실태조사)

설문조사표(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실태조사)

부록 1. 설문조사표(고양시 성인의 장애 인식 실태조사)

고양시 성인의 장애인식 실태조사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고양시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자료는 조사와 연구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도움을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주관기관 : 고양시청
고양시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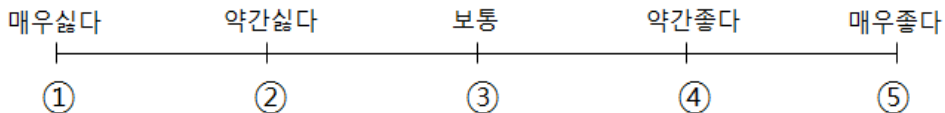
조 사 기 관 : 고양시정연구원

1. 평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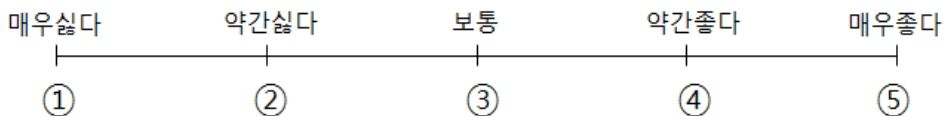
[개수에 상관없이 떠오르는 느낌에 모두 V표시 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행복한	<input type="checkbox"/> 친절한	<input type="checkbox"/> 단정한
<input type="checkbox"/> 슬픈	<input type="checkbox"/> 이기적인	<input type="checkbox"/> 지저분한
<input type="checkbox"/> 친근한	<input type="checkbox"/> 게으른	<input type="checkbox"/> 못생긴
<input type="checkbox"/> 불행한	<input type="checkbox"/> 발랄한	<input type="checkbox"/> 잘생긴
<input type="checkbox"/> 솔직한	<input type="checkbox"/> 민첩한	<input type="checkbox"/> 허약한
<input type="checkbox"/> 즐거운	<input type="checkbox"/> 영리한	<input type="checkbox"/> 건강한
<input type="checkbox"/> 불쌍한	<input type="checkbox"/> 꼼꼼한	<input type="checkbox"/> 깨끗한
<input type="checkbox"/> 부주의한	<input type="checkbox"/> 둔한	<input type="checkbox"/> 고집스러운
<input type="checkbox"/> 창피한	<input type="checkbox"/> 바보스러운	<input type="checkbox"/> 남을 잘 돕는
<input type="checkbox"/> 외로운	<input type="checkbox"/> 머리가 좋은	<input type="checkbox"/> 씩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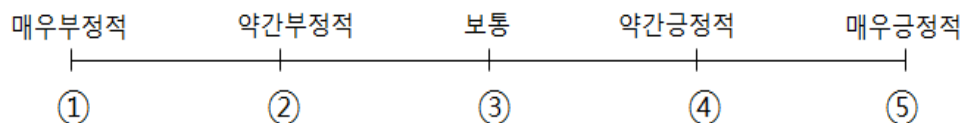
2.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나 손자녀가 장애인과 함께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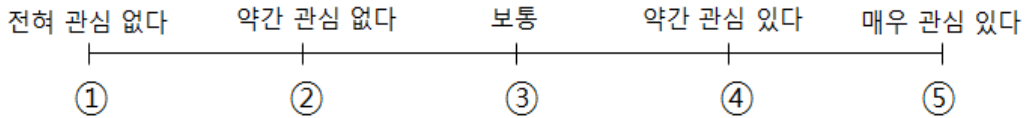
3. 귀하는 학교, 직장, 동호회 등에서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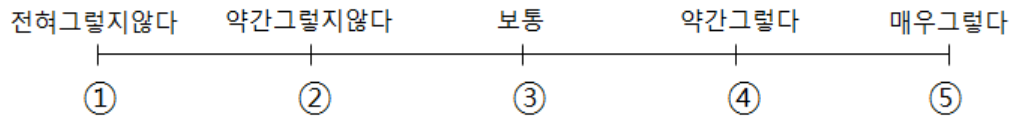
4. 내 주위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5. 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편입니까?



6.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7. 장애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애인 날이 기념일(4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 ①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지 몰랐다
☐ ②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몰랐다
☐ ③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과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다

8.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 ☐ ① 자진해서 도울 것이다
☐ ②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 ③ 그 상황을 피할 것 같다

9. 장애인 복지제도가 미흡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 ② 정부의 의식부족
☐ ③ 예산부족
☐ ④ 장애인의 참여부족
☐ ⑤ 개인 또는 지역 이기주의
☐ ⑥ 기타()

10.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시 해주세요.)

번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3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	장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6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7	조직 리더의 노력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8	학교 혹은 직장에 장애동료가 있다면, 학기 초 또는 입사시에 장애관련 교육을 통해 구성원 전체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9	장애인과 함께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구성원들은 화합을 배울 수 있다.					
10	장애인과 함께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11	장애동료는 다른 동료들을 배려하듯이 똑같이 배려해주면 된다.					
12	장애동료와 함께 공부하고 일하면서 행복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3	장애동료를 만나면 특별한 온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4	장애동료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15	장애동료를 보면서 순수함을 느끼기도 한다.					
16	장애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번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배울 수 있다.					
17	장애동료가 있다면 내 동료라고 다른 사람에게 몇몇하게 말할 수 있다.					
18	장애동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19	장애동료와 쉬는 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 잘 어울려 놀 수 있다.					
20	장애동료와 같은 팀이 되어 팀활동을 할 수 있다.					
21	장애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넬 것이다.					
22	장애동료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빌려 줄 수 있다.					
23	길에서 장애동료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					
24	장애동료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5	장애동료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 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26	학교나 회사에서 장애 동료와 기꺼이 팀 파 트너가 되겠다.					
27	장애동료가 업무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가 있어도 같은 회사나 학교를 다니는 것은 괜찮다.					
28	장애동료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29	장애동료를 대하는 방법을 모를 때 누군가 방법을 알려주면 해보고 싶다.					
30	장애인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1. 다음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① 장애인을 나쁘게 표현하는 드라마나 영화
- ② 장애인을 흉내 내는 코미디 연기
- ③ 장애인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한 뉴스나 기사
- ④ 길거리에서 만난 장애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 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장애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 ⑥ 장애인들의 미성숙한 상황 대처의 경험
- ⑦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
- ⑧ 부모나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 ⑨ 친구나 주변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 ⑩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
- ⑪ ‘바보’, ‘병신’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
- ⑫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을 빗대어 하는 농담
- 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결여
- ⑭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12. 다음 중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 ②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 ③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 ④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⑤ 재활치료의 발달
- ⑥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려는 전문가들의 노력
- ⑦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보도
- ⑧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사회단체 결성
- ⑨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 ⑩ 성공적인 장애인 사례 부각
- ⑪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 ⑫ 아동기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13.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 중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 편견
- ② 타인의 동정심
- ③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
- ④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 ⑤ 자신의 열등감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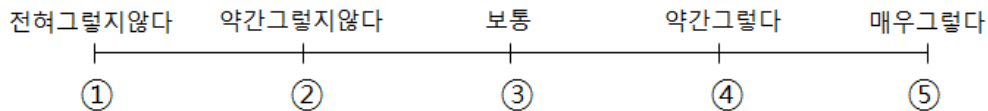
1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15번으로 가세요) ☐ ② 없다.(→16번으로 가세요)

1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중 가장 유익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안내 교육
- ☐ ② 장애인에 대한 편견 버리기 및 이해에 대한 교육
- ☐ ③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교육
- ☐ ④ 장애인권 피해사례 영상 시청 교육
- ☐ ⑤ 장애인 통합교육, 고용 등에 대한 경험 나누기
- ☐ ⑥ 기타()

1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얼마나 자주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6개월에 한번 ☐ ② 1년에 한번 ☐ ③ 2년에 한번 ☐ ④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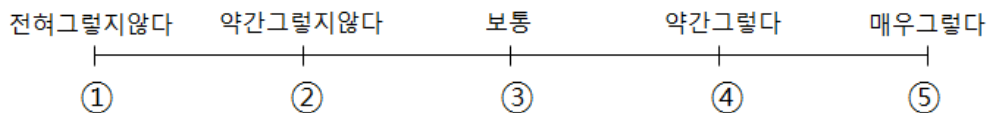
18. 다음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강의식 교육방법(예 : 강사가 앞에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강의)
☐② 온라인 교육방법(예 :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학습)
☐③ 체험식 교육방법(예 : 휠체어,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장애인 체험 및 이해)
☐④ 참여식 교육방법(예 : 장애인이 접하는 상황 역할극 및 집단토의에 참여)
☐⑤ 기타()

19. 다음 중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② 장애인 기금마련 공연 및 바자회
☐③ 장애인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④ 장애인과 함께 한 캠프
☐⑤ 장애인 생산품 전시회 및 판매부스
☐⑥ 장애 체험
☐⑦ 기타()
☐⑧ 참여한 프로그램이 없다.

20. 고양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21. 다음 중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고양시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학교)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업)
☐③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④ 장애인 거리음악회 및 공연
☐⑤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판매
☐⑥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 실시 확대
☐⑦ 장애인 인식개선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⑧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실시
☐⑨ 거리 및 공공시설에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현수막, 표어, 포스터) 부착
☐⑩ 기타()

22.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양시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을 말함

- ☐①매우 반대한다 ☐②약간 반대한다 ☐③그저그렇다 ☐④약간 찬성한다.
☐④매우 찬성한다.

23. 중증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반대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22번 문항에서 ①,②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 ①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더 높여줄 것이다.
 ②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 클 것이다.
 ③ 서비스의 의도는 좋지만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돌봄 자원이 부족하다.
 ④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는 고양시 일반 시민에게 많은 심리적 부담을 안겨준다.
 ⑤ 기타()

24.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5.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세요.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남 <input type="checkbox"/> ②여	나이	(만 세)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중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고졸 <input type="checkbox"/> ③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졸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원 이상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미혼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사별 <input type="checkbox"/> ④ 이혼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무직 <input type="checkbox"/> ② 학생 <input type="checkbox"/> ③ 주부 <input type="checkbox"/> ④ 상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⑤ 임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⑥ 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⑦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⑧ 무급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가구수입(월평균)	<input type="checkbox"/> ① 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500만원~1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⑥ 1000만원 이상		
귀하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귀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센터 등에 가보거나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본인이 사는 곳은?	()시 ()구 ()동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설문조사표(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 인식 실태조사)

고양시 초·중·고생의 장애인식 실태조사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고양시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 인식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자료는 조사와 연구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도움을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주관기관 : 고양시청
고양시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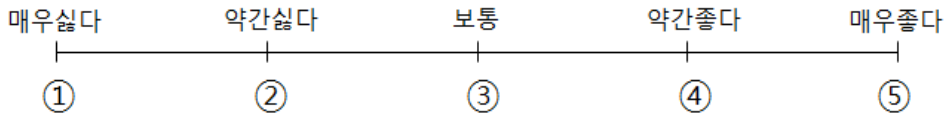
조 사 기 관 : 고양시정연구원

1. 평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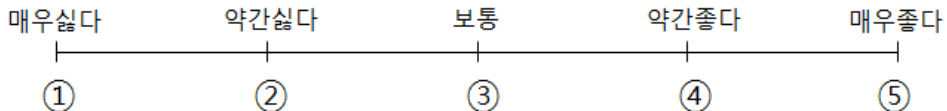
[개수에 상관없이 떠오르는 느낌에 모두 V표시 해 주세요]

- | | | |
|-------------------------------|---------------------------------|----------------------------------|
| <input type="checkbox"/> 행복한 | <input type="checkbox"/> 친절한 | <input type="checkbox"/> 단정한 |
| <input type="checkbox"/> 슬픈 | <input type="checkbox"/> 이기적인 | <input type="checkbox"/> 지저분한 |
| <input type="checkbox"/> 친근한 | <input type="checkbox"/> 게으른 | <input type="checkbox"/> 못생긴 |
| <input type="checkbox"/> 불행한 | <input type="checkbox"/> 발랄한 | <input type="checkbox"/> 잘생긴 |
| <input type="checkbox"/> 솔직한 | <input type="checkbox"/> 민첩한 | <input type="checkbox"/> 허약한 |
| <input type="checkbox"/> 즐거운 | <input type="checkbox"/> 영리한 | <input type="checkbox"/> 건장한 |
| <input type="checkbox"/> 불쌍한 | <input type="checkbox"/> 꼼꼼한 | <input type="checkbox"/> 깨끗한 |
| <input type="checkbox"/> 부주의한 | <input type="checkbox"/> 둔한 | <input type="checkbox"/> 고집스러운 |
| <input type="checkbox"/> 창피한 | <input type="checkbox"/> 바보스러운 | <input type="checkbox"/> 남을 잘 돕는 |
| <input type="checkbox"/> 외로운 | <input type="checkbox"/> 머리가 좋은 | <input type="checkbox"/> 씩씩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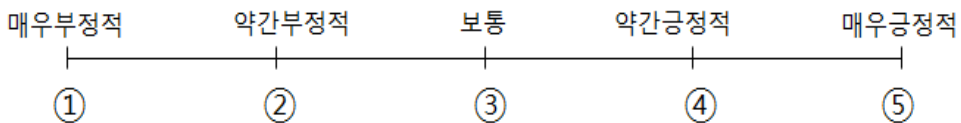
2. 장애인과 함께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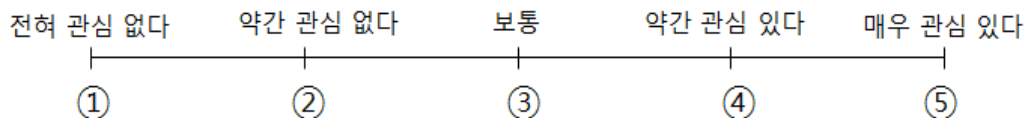
3. 학교나 학원 외에서 장애인과 함께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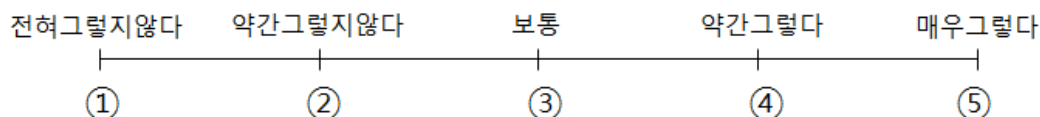
4. 내 주위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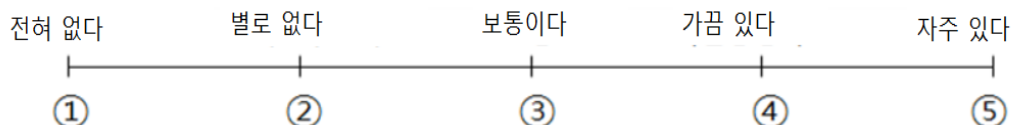
5. 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편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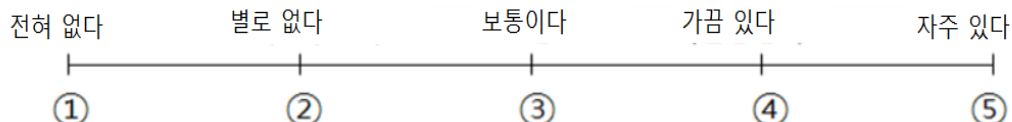
6.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7. 학교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얼마나 자주 이루어집니까?



8.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9. 장애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애인 날이 기념일(4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 ①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지 몰랐다
- ☐ ②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몰랐다
- ☐ ③ 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과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다

10.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자진해서 도울 것이다
☐②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③ 그 상황을 피할 것 같다

11. 장애인 복지제도가 미흡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② 정부의 의식부족
☐③ 예산부족
☐④ 장애인의 참여부족
☐⑤ 개인 또는 지역 이기주의
☐⑥ 기타()

12.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표시 해주세요.)

번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3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5	장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6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7	학교 선생님의 노력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번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우리 반에 장애친구가 있다면, 학기 초에 장애 교육을 통해 반 전체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9	장애친구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화합을 배울 수 있다.					
10	장애친구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11	장애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듯이 똑같이 배려해주면 된다.					
12	장애친구도 비장애인과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13	장애친구를 만나면 특별한 온정을 느낀다.					
14	장애친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15	장애친구를 보면서 순수함을 느끼기도 한다.					
16	장애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다.					
17	장애친구를 내 친구라고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말할 수 있다.					
18	장애친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19	장애친구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잘 어울려 놀 수 있다.					
20	장애친구와 같은 조가 되어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다.					
21	장애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넨다.					
22	장애친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빌려줄 수 있다.					

번호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길에서 장애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					
24	장애친구를 돕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5	장애친구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26	교실에서 장애친구와 기꺼이 짝이 되어 앉겠다.					
27	장애친구가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괜찮다.					
28	장애친구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29	장애친구를 대하는 방법을 모를 때 누군가 방법을 알려주면 해보고 싶다.					
30	장애친구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3. 다음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① 장애인을 나쁘게 표현하는 드라마나 영화
- ② 장애인을 흉내 내는 코미디 연기
- ③ 장애인에 의해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한 뉴스나 기사
- ④ 길거리에서 만난 장애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 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장애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 ⑥ 장애인들의 미성숙한 상황 대처의 경험
- ⑦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
- ⑧ 부모나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 ⑨ 친구나 주변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 ⑩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
- ⑪ ‘바보’, ‘병신’ 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
- ⑫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을 빗대어 하는 농담
- 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결여
- ⑭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14. 다음 중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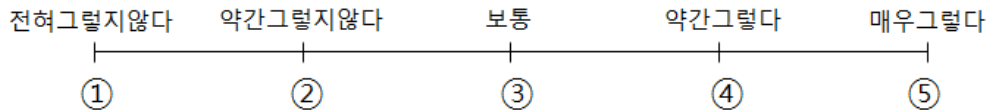
- 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 ②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촉
- ③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 ④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⑤ 재활치료의 발달
- ⑥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려는 전문가들의 노력
- ⑦ 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보도
- ⑧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사회단체 결성
- ⑨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 ⑩ 성공적인 장애인 사례 부각
- ⑪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 ⑫ 아동기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15.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 중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 편견
☐② 타인의 동정심
☐③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
☐④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⑤ 자신의 열등감
☐⑥ 기타()

- ☐④ 장애인과 함께 한 캠프
☐⑤ 장애인 생산품 전시회 및 판매부스
☐⑥ 장애 체험
☐⑦ 기타()
☐⑧ 참여한 프로그램이 없다.

22. 고양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23. 다음 중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고양시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학교)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업)
☐③ 장애인 인식개선 거리캠페인
☐④ 장애인 거리음악회 및 공연
☐⑤ 장애인 생산품 전시 및 판매
☐⑥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 실시 확대
☐⑦ 장애인 인식개선 포럼 및 세미나 개최
☐⑧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의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실시
☐⑨ 거리 및 공공시설에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현수막, 표어, 포스터) 부착
☐⑩ 기타()

24.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5. 학생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세요.

학교 구분	<input type="checkbox"/> ①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②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③고등학교
학년 구분	<input type="checkbox"/> ① 1학년	<input type="checkbox"/> ② 2학년	<input type="checkbox"/> ③ 3학년
	<input type="checkbox"/> ④ 4학년	<input type="checkbox"/> ⑤ 5학년	<input type="checkbox"/> ⑥ 6학년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우리 반에 장애친구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우리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센터 등에 가보거나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본인이 사는 곳은?	()시 ()구 ()동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Perception on Disabilities in Goyang City

Junghwa Moon*, SunChi Yoo*, SooMin Cho**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effective policies for improve of perception on disabilities that could be applied to Goyang City. It is done by reviewing successful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at led to improvements in perception on disabilities and investigating perception on disabilities of citizens, disabled people and families in Goyang City.

This study is conducted as follows: First, various resources related to improving perception on disabilities—such as laws, the government plans, policy directives, domestic research trends, etc. are surveyed; second, the status of the disabled population and policies in Goyang City are reviewed; third, outstan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at resulted improvements in the perception on disabilities are reviewed; fourt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n disabilities is conducted by looking at the results of surveys of 560 students—at every level—and 620 adults living in Goyang city; fifth, a survey was conducted on social awareness among 232 people with mil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231 family members of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ixth, the FGI (Focus Group Interview) with practitioners, who are implementing projects improve the perception on disabilities in Goyang City, is conducted and analyzed.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and suggestive implications from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the perception on disabilities; second, there should be a control tower installed to oversee the efforts to improve the perception on disabilities in the city; third, it was found to be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ructors who are disabled themselves, who are bound to be more empathetic, and that is expected to lead to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instructions given; fourth,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efforts should be strengthened by making them both detailed and custom-designed to suit the needs of those who are instructed; fifth, it is recommended that positive social perception on disabilities is to be encouraged; finally, Goyang City-specific projects where the city could play the leadership role should be developed and carried out to improve the perception on disabilities.